

5世紀의 日韓關係

－倭의 五王과 高句麗·百濟－

石井正敏

【國文抄錄】	
서언	
제1장 東晉 義熙 9년(413)의 倭國使에 대하여 머리말	<ol style="list-style-type: none">“(倭國) 王如故”라는 기사가 없는 점“安東將軍如故”라고 되어 있는 점
I. 義熙 9년의 倭國使에 관한 기준의 견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왜국 單獨入貢說과 고구려와의 共同入貢說池田溫 씨(1977)의 고구려·왜국 共同入貢說坂元義種 씨(1981)의 倭國使 倭人捕虜說義熙 9년 倭國使에 관한 근년의 이해	III. 倭國傳 元嘉28年條의 해석 맺음말
II. 기준 諸說의 논점	제3장 征東將軍(고구려왕), 鎮東將軍(백제왕), 安東將軍(왜국왕)의 서열에 대해서
III. <義熙起居注> 기사의 검토 <ol style="list-style-type: none">朝貢品 문제回賜品 문제<義熙起居注> 기사의 倭國은 高句麗의 잘못인가	머리말 I. 將軍號를 통해 본 3국의 서열에 대한 통설 II. 통설에 대한 의문-왜국왕의 ‘都督百濟諸軍事’號 요구와 관련하여- III. 왜국왕의 ‘都督百濟諸軍事’號를 宋이 인정하지 않은 사정에 대해 -坂元說 소개-
맺음말	IV. 坂元說의 검토-1지역 2군권설에 대해서- V. 征東(大)將軍·鎮東(大)將軍·安東(大)將軍號의 서열 맺음말
제2장 倭國王 濟의 將軍號에 대해서-安東將軍인가 安東大將軍인가-	결어 【文獻一覽】 【年表】 【文獻目錄】
머리말	
I. 倭王 濟의 將軍號에 대한 기본사료와 기준의 諸說	
II. 《宋書》 倭國傳·文帝本紀 元嘉28年條의 문제점	

【國文抄錄】

5世紀의 日韓關係

石井正敏

5世紀의 日韓關係에 있어서重要な問題의 하나로서, 中國의 東晉·宋과 通交하였던 5인의 倭王(讚·珍·濟·興·武), 소위 倭의 五王과 그 당시의 한반도 諸國과의 관계가 있다. 五王의 南朝通交의 배경에 對 한반도 諸國 – 특히 高句麗·百濟 – 에 대한 정책이 있고, 한반도 南部의 軍事的支配權을 의미하는 “都督百濟…諸軍事”號를 추구하고 있는 점 등에서 日本史의 分야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시점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며 현재에 이르고 있고 文字史料에 의한 연구는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그러나 새삼 基本史料를 검토할 여지도 남아 있다고 생각되어, 본 논문에서는倭의 五王과 高句麗·百濟에 관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검토를 가하였다.

우선 제1장에서는 東晉 義熙9年(413)에 入貢하였던 倭國使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邪馬臺國 여왕 臺與의 西晉 入貢 아래 약 150년만의 일이 되는 이倭國使에 대해서는 高句麗와의 共同入貢說이나倭人捕虜說이 제출되어 있다. 그래서 基本史料인 <義熙起居注> 중에서 특히 回賜品에 주목하여 검토를 하여, 高句麗와의 共同入貢說이나倭人捕虜說은 성립하지 않으며 日本列島의倭王權이 과연 한 使者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논하였다. 그 해에는 高句麗도 거의 70년만에 南朝에 入貢하고 있고, 그直前까지 직접 무력 충돌을 거듭하고 있던倭·高句麗 양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통하여 사태를 타개하려고 도모하는 차세에서 새삼 동아시아의 시점에서 생각할 필요성을 꾀하였다.

다음 제2장에서는,倭國王이 宋으로부터 얻은 將軍號에 대하여, (종래) 安東將軍인가 安東大將軍인가 견해가 나뉘어져 있고 또 그것이 나아가서는 高句麗王·百濟王과의 서열 문제와도 관련되어 논해지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宋書》夷蠻傳에 보이는 諸國王敍任記事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왜왕 濟가 元嘉 28年(451)에 安東大將軍에敍任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高句麗王의 征東大將軍, 百濟王의 鎮東大將軍에 비해 ‘大’將軍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순색이 없는 것임을 기술하고, 아울러 《宋書》倭國傳을 포함한夷蠻傳에 대한 書誌的 研究가 필요함을 논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高句麗王·百濟王·倭國王에 수여된 將軍號에는 序列이 있

고, 중국 왕조의 국제적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는 통설을 고찰하였다. 高句麗·百濟·倭國의 中國入貢記事를 검토하여, 그 당초에는 3국의 入貢 순서로 東方將軍號가 상위에서부터 수여된 것으로서 반드시 중국 왕조가 3국을 비교하여 우열을 판단하여 수여하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피력하였다.

서 언

5세기 일본열도는 倭(倭國)라고 부르는 이른바 야마토(大和) 왕권이 열도 내부를 통일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해외(중국대륙·한반도)와 교류를 진행하는 시기로 주목을 받았고, 특히 중국 남조에 사신을 파견한 5명의 왜왕(倭의 五王)이 다스리던 시대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한반도에서는 북방의 고구려와 남서부의 백제간 대립·항쟁을 축으로, 남동부의 신라, 남부중앙의 가야 제국이 연합·동맹을 전개하면서 고대국가 건설의 길을 걸었고, 이에 왜 세력이 가담하는 형태로 교류와 전쟁을 반복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열도의 왜와 한반도의 여러 세력들은 각각 중국의 왕조와 교류를 가지면서 역사를 전개해 가고 있었다. 중국대륙에서는 남북조 분열시대를 맞아, 북조·남조 모두 주변 동쪽에 위치한 한반도의 여러 국가 및 왜를 가능한 한 자신들의 진영으로 편입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패권을 다투는 정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5세기는 중국대륙·한반도·일본열도의 넓은 지역을 무대로 어지럽게 뒤얽힌 교류와 전쟁의 시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에서의 교류의 하나의 기축으로서 册封 관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5세기 일한 관계를 살펴볼 때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시각에서 고찰해야 한다는 점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시대를 고찰하는 기본적인 문자사료로는 중국의 《晉書》《宋書》, 일본의 《日本書紀》《古事記》, 한국의 《三國史記》《三國遺事》를 포함한 문헌사료, 광개토대왕비를 비롯한 금석문 사료가 있다. 그러나 문자사료는 한정되어 있어, 고고학 성과를 포함한 종합적인 고찰에 바탕을 둔 연구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와 같은 5세기 일한 관계에 대해서는 일한 양국에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있었고 축적된 성과도 있었다. 이를 연구사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 기본 사료를 정리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일은 바로 지금 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마음을 비운 사료 읽기”라는 역사학의 철칙에 기초한, 선입견을 배제한 진지한 자세로 실증적 연구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¹⁾

1) 본년 2004년 6월에 개최된 ‘일한 역사 공동연구위원회 공동연구 발표회’에 있어서 제2 분과회 소속 한국측 鄭求福 위원이 그 발표(6월 5일)에 제1분과에서의 실증적 연구방법을 비판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 위원의 자세와는 달리, 외골수나 선입견을 될 수 있는 대로 배제하고, 가능한 한 객관성을 가진 실증적인 연구가 무엇보다도 본 위원회에 요구된다

5세기 일한 관계를 고찰할 때 다루어 보아야 할 과제는 많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중국의 東晉·宋과 교류하던 5명의 왜왕(讚·珍·濟·興·武), 이른바 倭五王과 당시 중국·조선과 맺었던 관계에 대해 고찰해 보는 데에 異論은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사를 살펴보면 《宋書》倭國傳 및 本紀를 기본 사료로 하여 앞에서 말한 왜 5왕을 《日本書紀》《古事記》에 보이는 일본 천황 가운데 누구로 比定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1978년 稲荷山 鐵劍銘文을 해독하면서 여기에 한 획을 긋게 되었다. 왜 5왕 가운데 武를 雄略天皇으로 보는 것이 거의 정설로 자리하고 있으며, 비정 문제로 부터 나아가 왜 5왕 시대 야마토 정권의 구조, 府官制 성립이라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현재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왜 5왕이 중국 남조와 교섭을 하는 배경에 한반도 여러 국가와 관련된 정책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 남부의 군사적 지배권을 의미하는 ‘都督百濟 … 諸軍事’號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통해, 일본사 분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사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분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이 지역과, 왜 5왕이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한 都督諸軍事號에 있는 “慕韓”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²⁾ 고고학 조사가 진전되면서 왜 5왕 연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연구자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왜 5왕 시대 일한 관계에 대해서 일한 양국의 문자사료·고고학 자료 양쪽 모두를 검토해 보아야 할 현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문자사료에 기초한 연구는 1970년을 전후하여 시작된 坂元義種 씨의 일련의 연구를 통해 크게 진전을 보았다.³⁾ 坂元 씨는 왜국이나 고구려·백제뿐 아니라 중국 남조의 宋과 교섭하던 여러 나라들의 사례까지 좀 더 폭넓게 찾아내어 치밀하게 비교연구를 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坂元 씨의 연구를 비롯하여 문자사료와 관련해서는 그 논의가 거의 끝났다는 감이 든다. 그렇지만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도 몇 가지 있어 그 비판적 섭취가 지금의 과제이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먼저 (1) 413년 東晉에 入貢한 왜국 사신을 둘러싼 문제이다. 이 사신은 왜의 여왕 臺與가 西

고 생각하고 있다.

2)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분의 성격에 대해서는 《朝鮮學報》第179輯(2001)에 게재된 논문들과 朴天秀 <榮山江流域における前方後圓墳が提起する諸問題>(《歴史と地理》577號, 2004年) 등 참조.

3) 坂元義種 씨의 업적은 坂元義種(1978년), (1981년)에 대부분 정리되어 있다.

晉에 入貢한 이래 대략 150년 만에 入貢한 것으로, 이 때 東晉으로 간 왜국 사신에 대하여 고구려와 共同入貢한 것이라는 설 또는 倭人捕虜였다는 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며, 왜인 포로설에 따르면 중국 왕조에 入貢을 재개한 것은 421년 宋에 入貢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왜 5왕 시대가 개막하였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검토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다음으로 (2) 왜국왕이 宋으로부터 받은 官爵 가운데, 將軍號에 대해서 安東將軍인지 安東大將軍인지 견해가 다르며, 이는 게다가 고구려왕·백제왕과 서열 문제도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검토가 필요한 기본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3) 고구려왕·백제왕·왜국왕이 받은 將軍號에는 서열이 있었으며 중국 왕조의 국제적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견해가 통설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통설과 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3국의 관계를 이해해도 좋은 것인지, 내 개인적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본론에서 이러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모두 왜 5왕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하면서 5세기 일한 관계사 해명에 기여할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왜 5왕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가 왕성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한국에서는 최근까지 이를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다룬 연구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왜국왕의 자칭호를 들지 않더라도 5세기 일한 관계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일한 공동연구 테마로서 왜 5왕에 관한 여러 문제를 다루어보는 것은 커다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빈약한 문자사료이지만 계속 살펴보면서 좀 더 엄밀한 사료 해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검토를 해 나아가고자 한다.

또한 관련된 주요한 연구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게 소개하기로 하였다. 이는 곧 연구사를 중시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논지를 잘못 전달하는 오류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제1장 東晉 義熙 9년(413)의 倭國使에 대하여

머리말

東晉 義熙 9년(413년) 왜국 사신이 晉朝에 도착하여 方物을 현상하였다. 관련 사료는 다음과 같다.

[史料 1] 《晉書》卷10 安帝本紀 義熙 9年條

是歲 高句麗・倭國及西南夷銅頭大師 並獻方物.

(이해, 高句麗와 倭國 및 西南夷銅頭大師가 나란히 方物을 바쳤다.)

[史料 2] 《梁書》卷54 倭傳

其後復立男主. 並受中國爵命. 晉安帝時 有倭王贊.

(그 후 다시 男主을 세웠다. 아울러 中國의 爵命을 받았다. 晉 安帝 때에 倭王贊이 있다.)

[史料 3] 《南史》卷79 倭國傳

晉安帝時 有倭王讚 遣使朝貢.

(晉安帝의 시대에 倭王 贊이 있어 遣使朝貢 하였다.)

[史料 4] 《宋書》倭國傳

倭國 在高麗東南大海中 世修貢職. 高祖永初二年(421)詔曰 “倭讚 萬里修貢. 遠誠宜甄可賜除授.”

(倭國 高麗의 東南大海 속에 있어 대대로 貢職을 담았다. 高祖 永初二年(421) 詔를 내려 말하기를 “倭讚 萬里에서 修貢하였다. 먼 곳으로부터의 충성스런 마음은 마땅히 칭송 할 만하니, 除授를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료들을 통해 이 해에는 고구려 사신도 朝貢을 한 사실, 왜왕 贊이 朝貢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왜의 입장에서 泰始 2년(266년)에 왜의 여왕(卑彌呼의 宗女 臺輿)이 西晉에 朝貢한 이래 단절되었던 중국 왕조에 대한 朝貢을 재개한 기념할 만한 사건이며, 贊 이후 珍·濟·興·武로 이어지는 이른바 왜 5왕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기사이다. 또한 고구려의 입장에서도 중국 남조에 대한 朝貢은 기록상으로 建元

元年(343년) 아래 실로 7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마찬가지로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이다. 이러한 양국의 동년 입공의 배경으로서 410년 2월에 劉裕(후의 宋 武帝)가 이끄는 東晉軍이 산동반도에 있던 南燕을 멸망시키고 이로 인해 산동반도를 경유해서 동진에의 견사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정이 있었다.⁴⁾

그런데, 이 해 왜국의 遣使 朝貢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梁書》 《南史》의 사료적 성격으로 보아 두 사료가 가진 오리지널리티에 문제가 있어 과연 이 때의 遣使를 왜왕 讀이 보낸 것으로 보아도 좋은 것인지, 《宋書》 倭國傳[史料 4]에서 유추해 낸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적하는 견해나, 왜국이 단독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고구려와 共同入貢한 것으로 보는 견해, 나아가 본래 진짜 왜국 사신이 간 것인지, 고구려가 왜인 포로를 사신으로 가장하여 보낸 것은 아닌지 지적하는 說까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다. 뒤에 서술하겠지만, 최근에는 왜국 사신 왜인 포로설이 유력한 설로 자리하고 있다. 413년에 왜국 사신이 왜국이 보낸 정식 사신이 아니라는 의견을 보면, 왜가 중국 왕조에 入貢을 재개한 것은 421년[史料 4]에 있었던 일이다. 불과 8년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전자의 중국 왕조는 東晉, 후자는 宋에 해당한다. 중국에서 커다란 정치적 변혁이 일어난 시기로, 413년에 보낸 사신의 성격을 고찰하는 것은 入貢을 東晉 시대에 재개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왕조인 宋이 성립한 뒤에 재개하였는지, 入貢 배경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또한 150년 만에 중국 왕조에 사신을 보내는 것은 일본열도의 고대국가 형성과정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은 두 말할 필요도 없지만, 고구려와의 관계가 추측된다면, 5세기 일한관계의 冒頭를 장식하는 사건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共同入貢說의 입장에서는, 광개토대왕 비문을 통해 알 수 있는 391년 전후부터의 고구려·왜의 전쟁 상태를 고려할 때, 양자 사이에 어떠한 교섭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이는 실로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화해를 이루어 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義熙 9년 왜국 사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찰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大庭修 씨, <三・四世紀における東アジア諸族の動向>(《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3》, 學生社, 1981; 《古代中世における日中關係史の研究》(再収録), 同朋舎, 1996), 川本芳昭 씨(1988) 등 참조. 前之園亮一 씨(2001)는, 양씨의 설을 더욱 부연하고 있다.

I. 義熙 9년의 倭國 使臣에 관한 기존의 견해

1. 왜국 單獨入貢說과 고구려와 共同入貢說

義熙 9년 왜국 사신에 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해 보면, 먼저 [史料1]~[史料4]를 참고로 하여, 왜왕 讀이 보낸 사신으로 보는 점은 대개 의견이 일치하지만, 왜국 사신이 단독으로 入貢하였다는 說(單獨入貢說)과 고구려 사신과 함께 入貢하였다는 說(共同入貢說)로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 共同入貢說은 다음에 제시하는 《日本書紀》의 기술과 관련하여 나온 해석이다.

[史料 5] 《日本書紀》 應神天皇 37年 (丙寅) 條

春二月戊午朔 遣阿知使主・都加使主於吳 令求縫工女. 爰阿知使主等渡高麗國 欲達于吳. 則至高麗 更不知道路. 乞知道者於高麗. 高麗王乃副久禮波・久禮志二人爲導者. 由是得通吳. 吳王於是與工女兄媛・弟媛・吳織・穴織四婦女.

(봄2월 무오삭, 阿知使主와 都加使主를 吳에 보내, 縫工女를 구하기 위해 하였다. 이에 阿知使主 등이 高麗에 건너가 吴에 이르려고 하였다. 그래서 高麗에 도착했으나 가는 길을 몰라 길을 아는 자를 高麗에 청하였다. 高麗王은 久禮波와 久禮志의 두 사람을 인도자로 하였다. 이로 인하여 吴에 갈 수 있었다. 吴王은 이에 工女 兄媛, 弟媛, 吳織, 穴織의 네 婦女를 주었다.)

일본에서 吳(중국 남조)에 파견한 사신 阿知使主 일행이 우선 고구려에 도착하여 고구려의 길 안내를 받으며 吴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기사이다. 應神 37년은 《日本書紀》 紀年에서 306년에 해당하지만, 干支二運을 뒤로 늦추는 해석에 따르면 서기 426년에 해당한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연대가 가까우므로, 義熙 9년에 보낸 사신과 관련지어 해석하여 고구려·왜국 共同入貢說을 주장한 것이다.⁵⁾

5) 共同入貢說을 처음으로 주장한 연구자는 橋本增吉 씨(1956년)로 보이는데,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왜왕 ‘讀’이 처음으로 入貢하는 것은 安帝 義熙 9년(413년)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是歲, 高句麗, 倭國及西南夷銅頭大師, 並獻方物’이라는 기사처럼, 왜국의 사신은 고구려 국 사신과 함께 晉에 入貢하였다라는 기사가 있음에 대해, 이에 대응하는 기사로”, 應神紀二十年 秋九月條와 同紀 三十七年 春二月條를 참조하였다.(594쪽~595쪽)

아래에서도 소개하듯이 共同入貢說은 《日本書紀》 應神 37년조 기사를 참고한 것이다.

2. 池田溫 씨(1977)의 고구려 · 왜국 共同入貢說

이와 같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1977년 東洋史家 池田溫 씨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池田 씨는 《太平御覽》에 인용된 <義熙起居注>를 상세히 검토하여 “義熙 9년에 고구려 주도로 江南 建康으로 왜국과 同時入貢을 실현하였다”는 점을 논하였다. 池田 씨가 주목한 <義熙起居注>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史料 6] 《太平御覽》 卷981 香部1 麝條

義熙起居注曰 倭國 獻貂皮 · 人參等. 詔賜細筐 · 麝香.

(《義熙起居注》에 말하기를, “倭國이 貂皮 · 人參 등을 바쳤다. 조칙을 내려 細筐 · 麝香을 하사하였다.”라고 하였다.)

왜국이 담비가죽(貂皮) · 인삼 등을 현상하였고, 회賜品으로 細筐 · 麝香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義熙 어느 해의 일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晉書》 本紀(史料 1)에서 말하는 義熙 9년으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이 사료에 대해서는 今西春秋 씨(1972년)도 주목을 하면서, 조공품목인 담비가죽(貂皮) · 인삼이 모두 고구려 특산품이라는 점에서, “倭人이 담비가죽(貂皮)과 인삼을 현상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틀림없이 滿人이나 鮮人을 잘못 표기하였을 것이다 … <義熙起居注>에는 아마 고구려 · 왜국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御覽에 인용하면서 빠뜨렸을 것이다”(29쪽~30쪽)라고 ‘고구려’가 빠져있는 것이 아닌지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池田

이 기사에 관한 최근 한국의 이해는 金鉉球 외 《日本書紀韓國關係記事研究(I)》(한국一志社, 2002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1. 고구려를 통한 왜와 중국 吳의 교섭 기사에 관한 眞僞

應神 37년은 干支로 丙寅年에 해당하며 간지를 2巡 수정하면 426년이 된다. 阿知使主 일행이 처음부터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吳로 가려고 하였다는 것은 고구려와 왜 사이에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고구려가 왜에 遣使 내지 교섭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應神紀 28년 9월조에 고구려의 국서를 찢어 불화관계에 있었음을 기술한 상태에서 갑자기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吴로 간다고 하는 설 자체를 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고려왕이 久禮波와 久禮志 두 사람을 길 안내자로 보내었다고 하는 점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내용은 倭漢直의 선조인 阿知使主 · 都加使主에 관한 始祖傳承으로 이해할 수 있다.”(186쪽~187쪽)

이처럼 특히 義熙 9년(413년) 고구려 · 왜국의 入貢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니다.

씨는 <義熙起居注> 기사 가운데 특히 晉의 回賜品에 주목하여, 왜국 貢獻 기사로 보아도 틀림 없을 것이라고 논하였다. 그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細笙은 관악기인 小笙을 말하는 것으로, “和音奏法의 아름다움에 특징을 발휘하는 이 악기에 대해 옛날부터 그 和聲이 주목을 받으며 명칭에까지 표현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33쪽)고 하고, 《爾雅》釋樂에 “大笙은 之를 巢라 하고 작은 것(小笙)은 之를 和라 한다.”고 한 사료를 소개하였다. 麝香에 대해서는 “천연 동물성 향료로 옛부터 인기가 있었다.”는 향료·약품으로, “남조의 귀족사회나 사원에서 특히 이를 귀중하게 여겼음은 말 할 필요도 없다.”(33쪽)
- ② 이러한 악기와 향료를 왜국 사신에게 하사하였는데, 그 목적은 무엇보다도 ‘笙’에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해, “倭와 和는 同韻에 속하며 紐는 다르지만 유사한 음을 가지고 있어 일본 한자음으로는 모두 와(ワ)로 발음되어 구별할 수가 없다. 국명을 연상시키는 악기를 받는다는 것은 받는 입장에서는 꽤나 우리를 대접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을 만한 일이다.”(34쪽)
- ③ 한편, 조공품목인 담비가죽(貂皮)·인삼은 모두 고구려의 특산물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고구려의 특산물을 왜에서 지참한 예가 없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더군다나 … 왜의 入貢이 고구려의 주도에 따른 것이며, 또한 왜에 晉人이 좋아 할 만한 특산품이 빈약한 사정이었으니. 다만 어찌되었든 貢物을 매개로 하여 고구려와 왜가 밀접한 관계였음을 시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양자가 義熙 9년 같은 해에 入貢한 사실과 왜가 고구려의 특산품을 晉에 현상하고 回賜品을 받은 사실이 義熙年間의 일로 확인된다면, 자연히 양자가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入貢한 것은 거의 의심의 여지없는 확신 한 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35쪽)
- ④ 入貢 배경에 대해서, “5세기 전기 北魏가 세력을 신장하여 華北을 제압할 때까지, 남조가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던 시기에 해당한다. … 수십 년간 소원하였던 관계를 청산하고 建康의 劉裕에게 사신을 보낸 고구려왕의 통찰은 시의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36쪽)
- ⑤ “고구려와 왜가 동시에 入貢하였다면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진국이었던 고구려였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36쪽)
- ⑥ 이상의 검토를 통한 결론으로, “義熙 9년에 고구려의 주도로 江南 建康에 왜국과 同時入貢을 실현하였다.”(39쪽) 고 논하였다.

3. 坂元義種 씨(1981)의 倭國使 倭人捕虜說

池田 씨의 논문으로, 義熙 9년 고구려 · 왜국 共同入貢說이 유력한 說로 자리하지만, 이에 대해 당시 왜 5왕 연구에 정력적으로 임하며 획기적인 업적을 거두고 있던 坂元義種 씨는 池田 씨가 논문을 발표한 이듬해인 1978년에 <東아시아의 世界 中國文獻에서 본 古代日本の 探求(東アジアの世界 中國文獻よりみた古代日本の探求)>(1978A)를 발표하여, 주로 《太平御覽》의 사료적 성격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고 이 사료의 인용 방법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義熙 9년 왜국 朝貢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그러나, 義熙 9년 고구려와 왜가 晉에 入貢한 것이 고구려 주도의 同時入貢이었다는 점을 과연 중국 문헌이 증명해 줄지 여부를 고려하면,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 《太平御覽》의 사료 인용 방법에 중대한 의문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며, 그 의문 중 하나는 왜가 東晉과 교섭을 가질 때 東晉 교섭 역사가 깊고 그리고 왜와도 관계가 깊은 이웃나라 백제를 뛰어넘어 고구려와 연계하여, 더욱이 그 주도하에 교섭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소박한 의문이다. …”

여기에서 문제로 보아야 할 점은 역시 《太平御覽》의 사료적 성격일 것이다. 今西春秋 씨가 “왜인이 담비가죽과 인삼을 헌상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라는 의문에서 ‘義熙起居注에는 아마 고구려 · 왜국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御覽에 인용하면서 빠뜨렸을 것이다’ … 라고 해석한 것도 분명 유력한 해석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현상품이 고구려의 특산품이라는 한 가지 내용에 국한한다면, 《太平御覽》의 ‘倭國’을 ‘高句麗’의 잘못된 표기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명쾌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적어도 달리 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太平御覽》의 인용 사료에 따라 義熙 9년(413년) 왜국의 入貢을 고구려 주도의 共同入貢으로 보는 견해는 잠시 접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면한 과제는 《太平御覽》 인용 사료에 관한 문헌 비판이라고 생각한다.”(166쪽~167쪽)

坂元 씨는 본래 왜국 사신 單獨入貢說의 입장에 서서, 같은 해 간행된 저서 《고대 동아시아의 일본과 조선(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1978B)에서는 《太平御覽》의 문제로 삼는 기사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池田 씨 논문을 접하고 <義熙起居注>의 중요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선 《太平御覽》의 사료적 성격을 논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그 검토 위에서 1981년 간행된 《왜의 5왕(倭の五王)》에서는 지금까지의 해석을 수정한 대담한 說을 발표하였다. 즉, <義熙起居注> 기사를 왜국의 朝貢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 때의 왜국 사신은 사실은 고

구려가 왜와 전투하며 포로로 잡은 왜인을 왜국 사신으로 가장하여 동행한 것이라는 견해(倭人捕虜說)를 상세하게 폐력하였다. 坂元 씨의 논증은 복잡하지만, 이를 요약 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분명 義熙 연간의 왜국과 東晉 교섭 내용은 1등 사료라고 할만한 <義熙起居注>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료를 검토해 보면, 義熙 9년의 왜국 사신은 실은 왜국 사신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의의 사실을 보여준다.”(34쪽)
- ② 《太平御覽》 인용 <義熙起居注>기사와 관련하여, 고구려 탈락설(今西 씨)이 있는데, 義熙 9년에 고구려는 晉에 담비가죽(貂皮) · 인삼뿐만 아니라 赭白馬를 헌상하였다. 다시 말해 다음과 같다는 것이다.

[史料 7] 《宋書》 卷97 高句麗傳

高句驪王高璡 晉安帝義熙九年 遣長史高翼 奉表獻赭白馬. 以璡爲使持節 · 都督營州諸軍事 · 征東將軍 · 高句驪王 · 樂浪公.

(高句驪王 高璡이 晉 安帝 義熙 9년에 長史 高翼을 보내 表를 올리고 赭白馬를 바쳤다. 璇을 使持節 · 都督 · 營州諸軍事 · 征東將軍 · 高句驪王 · 樂浪公으로 삼았다.)

* 《梁書》 高句麗傳, 《南史》 高句麗傳, 《通典》 東夷下 高句麗條,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長壽王元年條 모두 같음.

고구려 朝貢品 중에서 가장 중요한 赭白馬를 헌상한 일이 <義熙起居注>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는 <義熙起居注> 기사가 고구려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왜국과 관련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③ 마찬가지 [史料 7]에 보이듯이, 이 때 고구려왕은 官爵을 받았다.

“70년 만에 있은 고구려의 入貢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 東晉측에서는 이전부터 교섭을 가져온 백제왕보다 상위의 官爵號를 하사함으로써 東晉의 기쁨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 147년 만에 있은 왜국의 入貢은 그 이상의 환대를 받아, … 왜국왕에게도 그에 걸맞은 영예칭호를 보내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왜국왕에게 官爵號를 내린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 이는 義熙 9년에 왜국왕에게 내리는 任官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좀 더 설명하자면, 義熙 9년 당시 왜국의 朝貢 그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 다시 말해, ‘왜국’ 사신이 왜국의 특산물을 지참하지 않고 고구려의 특산물인 ‘담비가죽(貂

皮) · 인삼'을 현상하였다는 것은 그 사신이 '왜국'의 진짜 사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65쪽~67쪽)

- ④ 고구려가 肅慎을 동반해 入貢한 예를 기록한 사료가 있는데, "실제로는 고구려 한 나라가 入朝한 것이었다"는 예가 있다. "《晉書》 安帝紀 고구려 · '왜국'의 入貢도 이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역시 고구려 한 나라의 入朝였던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69쪽)

"다시 말해, 고구려는 '肅慎의 槎矢'를 가져가 後趙나 宋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듯이, 遠夷인 '왜국' 사신을 보내어 東晉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을 것이다."(70쪽)

- ⑤ "義熙 9년(413년), 고구려 특산물인 '담비가죽(貂皮) · 인삼'을 가지고 東晉에 入貢한 '왜국' 사신이란 고구려와 치른 전투에서 고구려의 포로가 된 '왜국' 사람은 아니었을까."(71쪽)

- ⑥ 그리고 결론으로, "이와 같이 살펴보면, 義熙 9년 東晉에 入貢한 '왜국' 사신은 본래 왜국 사신이 아니라 고구려가 왜국과 치른 전투에서 포로로 잡은 왜인에게 고구려의 특산물인 '담비가죽(貂皮) · 인삼'을 들려 보낸 것으로, 고구려의 목 적은 遠夷 入貢이라는 명목으로 東晉의 환심을 사고,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중국측은 마치 왜국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入貢한 것으로 기록하였던 것이다."(73쪽)

라고 서술하였다.

이와 같이 坂元義種 씨는 왜국 사신=왜인 포로설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太平御覽》의 사료적 성격에는 문제가 있으나, <義熙起居注> 기사는 그대로 사실로 보아도 된다고 보고, 이를 중요한 논거로 삼고 있는 점이 무엇보다 주목을 끄는 대목이다. 이러한 坂元 씨가 주장한 왜인 포로설의 근거에는 1978A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광개토대왕 비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정세를 고려하여, 왜국의 정식 사신이 고구려와 공동으로 朝貢할 리가 없다는 이해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이고자 한다. 또한 본서에서 義熙 9년의 入貢을 왜왕 讀이 한 것으로 보는 《梁書》 《南史》의 기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하여, 양 사료에 오리지널리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同書 <1. 四一三年の朝貢は讀のものか> 참조).

4. 義熙 9년 倭國使에 관한 근년의 이해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義熙 9년 왜국 사신에 대해서는 정식 사신이 單獨入貢하였다 는 설 · 共同入貢하였다 는 설에, 나아가 倭人捕虜說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坂元 씨의 왜인 포로설이 오늘날 학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 후의 설로서는 우선 武田幸男氏(1989년)의 논문이 언급된다. 씨는 池田溫 씨의 고구려 사신이 왜국 사신을 동반했다는 설을 언급한 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他國使를 동반한 高句麗使는 빨리는 377년의 신라사, 늦게는 459년의 蕭愼사신의 경우가 인정되는데, 거기에는 고구려사에 의한 동행하는 사신에의 장악이 전제가 된다. 그렇다면 이 413년의 경우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양국이 치열한 적대관계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구려사에 왜국사가 동반했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고구려사가 왜국사를 완전히 장악한 위에 동시에 입공했던 것으로 보는 쪽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왜국사의 정체는 고구려가 전투에서 노획한 포로를 왜국사로 가장한 것이라는 해석은 일단 설득력을 가진다. 타국사신의 동반입국은 그만큼 중국에의 과시이고 고구려의 국력의 큐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반사신의 정체가 포로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라사도 백제사도 아니고 왜국사로 가장되어 왜국사로서 인식된다고 하는 것은 왜를 그만큼 중시했던 고구려의 對倭認識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왜국사 포로설의 진상은 차치하고 어여한 경우에도 413년의 양국사의 동시입조는 고구려의 남방정책에 있어서 심각한 대왜인식, 대왜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碑文’(石井注-광개토왕비문)의 작성은 거의 동시기에 시작하고 立碑가 그 다음 해였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226쪽)

이처럼 武田 씨는 坂元義種의 왜인 포로설에 일정한 동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저술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熊谷公男 씨(2001년)는

“413년에 왜국 사신이 고구려와 함께 東晉에 入朝하였다는 기록도 있지만, 여기에는 내용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으며, 아무리 보아도 고구려가 왜인 포로를 사신으로 가장하여 왜국이 고구려의 수하에 있는 듯이 보이도록 한 것 같다.”(66쪽~67쪽)

고 서술하였다. 또 鈴木靖民 씨(2002년)는

“史書에 따르면, 413년(義熙9년) 왜국 혹은 왜왕 畡이 보낸 사신이 東晉에 朝貢하였다 (《晉書》安帝紀, 《梁書》倭傳, 《南史》倭國傳). 이에 대해서는倭 왕권이 보낸 사신이 아니라 고구려가 왜와 치른 전투에서 잡은 왜인 포로를 사신으로 가장하여 한반도 내

지 고구려 특산물인 ‘담비가죽(貂皮) · 인삼’(《太平御覽》香部 麋條 <義熙起居注>)을 조공품으로 가지고 가게 하여 공동으로 취한 정략적인 행동으로 추측된다. 여기에는 이 론도 있으나, 407년에 치른 전쟁에서 6년이 지난 이 해에, 더욱이 적대 관계에 있는 고구려에 종속하는 형태로 왜가 외교 활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23쪽~24쪽)

고 서술하였다. 모두 정평이 나 있는 개설이나 통사 시리즈에 나와 있는 견해라는 점 만으로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 왜인 포로설에 대한 이론도 있어, 오래 전부터 川本芳昭 씨, 최근에는 仁藤敦史 씨가 의문을 제기하여, 왜국이 보낸 정식 사신이 고구려와 共同入貢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먼저 川本 씨(1992년)는

“이 義熙 9년의 遣使를 왜국과 고구려의 同時入貢으로 생각하는데, 이 때 왜국 사신은 역시 왜의 정식 사신이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예를 들면 백제 주도로 521년에 신라가 남조 梁에 遣使를 하였을 때, 이는 신라 官位制가 성립함에 따른 외교노선의 급진전을 받아들인 것으로, 거기에 신라의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듯이 …, 同時入貢이 한쪽의 주체성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신라는 오랜만에 중국에 사신을 보내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13년 왜국이 東晉에 사신을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칭호를 수여받지 않았다.

이유 중 또 하나는” [史料 4]에 실은 《日本書紀》應神 37년조 기사와 관련한 것으로, “고구려를 매개로 한 遣使는 《日本書紀》가 인명까지 날조하여 이 기사를 만들었다고 보지 않는 한, 왜왕 武보다 이전의 일로 생각된다. … 이 기사가 義熙 9년의 일을 전하는 것이라는 개연성이 너무나 높아진다.”(192쪽)

이와 같이 고구려 사신과 同時入貢한 점은 인정하지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왜인 포로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왜국의 정식 사신이었음을 논하였다.

그리고 아주 최근 제기한 仁藤 씨(2004년)의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南史》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永初 2년(421년) 단계에서 왜국의 畢이 朝貢한 것이 분명하다면, 《宋書》의 ‘대대로 貢職을 뒀는디’는 문언은 義熙 9년(413년) 東晉에 대한 朝貢을 전제로 한 표기일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왜왕’이나 ‘왜국왕’이라는 王호가 자칭하다가 추인된 것이 아니라 엄밀히 중국 황제의 허가를 받아 사용을 하였다고 한다면, 《梁書》倭傳에 ‘다시 卑彌呼의 宗女 臺輿를 세워 王으로 삼다. 그후 다시 男主을 세우다.

아울러 중국의 爵名[命]을 빈다. 晉 安帝 때 왜왕 賛이 있었다.'라고 실려 있는 기사는 413년(義熙9) 東晉에 朝貢할 때 讀(贊)이 ‘왜왕’으로 승인 받았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臺與 이후에 다시 즉위한 男王이란 讀(贊)을 비롯한 왜 5왕을 나타내며, 臺與와 讀을 비롯한 왜 5왕을 이어주는 《梁書》倭傳의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阿知使主 일행이 고구려에 길을 부탁하여 고구려 사람 久禮波 일행과 함께 吳(남조)에 들어갔다는 傳承(應神紀)은 雄略紀와 중복되어 나오는 등 사료 비판 문제는 있지만, 나중에는 적대하게 되는 고구려를 경유하여 吴와 오고간 기재 내용은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백제에 대한 군정권 주장은 백제와 신라가 친밀해진 적어도 元嘉 15년(438년)의 朝貢 이후에는 일관되게 나오고 있으며, 왜 5왕 단계의 遣使가 백제의 의향에 좌우되지 않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국과 고구려의 共同入貢이 양국간 일시적인 화평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상정해볼 수 있다. 왜국이 전반적으로 친백제 정책을 취하였다는 점은 틀림없으나, 한반도를 둘러싼 당시의 기본적인 대립축은 고구려와 백제의 항쟁이었으며, 왜국이 어느 쪽 진영에 참여하느냐는 처음에는 분명한 것이 아니었고 백제에서 七支刀를 보내온 것과 마찬가지로, 고구려에서도 남조에 대한 共同入貢 제안이 있었다는 점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기본 축이었던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관계에서도 끊임없는 항쟁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396년 무렵처럼 고구려가 강대해지면서 백제가 형식적으로 복속한 시기도 있어 매우 유동적이었다.”(124~126쪽)

仁藤 씨도 川本 씨와 마찬가지로, 《日本書紀》 應神 37년조와 관련된 사항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바이다.⁶⁾

또 단독 입공이라고 하는 설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도 보이고 있다. 川勝守 씨(2002년)는 구체적으로는 武田幸男설에 대한 의문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들어 단독 입공이라는 설을 주장하고 있다.

① <義熙紀居注> 기사는 “어디까지 조공은 왜국이 행하는 것 이다. 고구려는 조공 행위에 직접으로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단 담비가죽과 인삼은 왜국의 토산 품이 아니고 고구려의 특산품이다. … 왜국은 고구려와의 교역에 의해 담비가죽과 인삼을 입수하고 그것을 동진에 현상했다. 그 기사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② “왜국은 왜 자국산이 아닌 담비가죽과 인삼을 바쳤는가. … 고구려의 산물인 담

6) 이상에서 소개한 여러 說에서 고구려 사신과 왜국 사신이 함께 入貢한 사실을 표현한 말로서 ‘同時入貢’ ‘共同入貢’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원래 ‘同時’ 入貢은 ‘共同’ 入貢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각각 파견된 사신이 ‘同時’에 入貢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사신을 파견하여 의도적으로 함께 入貢시킨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말로는 ‘共同入貢’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가죽과 인삼 등은 당시 남조의 인사들이 희구하고 있던 품물이었다.” 하지만 “동진이 아무리 희구해도 구하기 어려운 산물이고 왜국이 그것을 현상한다면 그것이 방물이든 아니든 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 왜국이 고구려의 특산품을 입수하기 쉬운 교역관계의 질서가 확보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평화적 교역이 일본열도와 한반도와의 사이에 항상적으로 행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 ③ “동진 안제의 義熙 9년(413) 기사를 왜국사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 해에 왜국의 견사를 전하는 명확한 사료는 없다. 《南史》 … 에 ‘진의 安帝때 왜왕 찬의 견사와 조공이 있었다.’의 기사 정도이다.”(石井注- 앞 사료 1 《晉書》 本紀 義熙 9년조에 ‘왜국’ 입공의 기사가 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것 일까.)

이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설을 전개하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동진 안제의 義熙 9년에 고구려왕 瓒, 즉 장수왕이 … 赤白馬를 바쳤다. 貂皮와 인삼 등을 공물로 했다는 확실한 기록은 없다. 당시 남조의 인사가 희구하고 있었던 고구려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그 해의 고구려의 사신이 지참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일부러 왜국사에게 지참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남조의 동진으로서는 산지인 고구려가 貂皮와 인삼을 직접 지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보다도 왜국사가 고구려의 특산품을 남조의 동진에 현상했던 의미가 중요하다. 단 그 사료는 정사에는 재록되어 있지 않고 <義熙紀居注> 逸文에 전래하고 있는 데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123~124쪽)

요컨대 고구려사가 왜국사를 동반하여 조공했다고 한다면 일부러 왜국사에게 고구려특산의 貂皮와 인삼을 현상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왜국사 단독의 조공이고 貂皮와 인삼을 고구려와의 교역에서 왜국이 얻은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川勝 씨의 의견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 외, 위의 제 설과 약간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것이 前之闡亮一씨(2001)로 협의입공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① 왜국이 고구려특산의 貂皮와 인삼을 현상하고 있는 일은 흥미깊다. 또 紺筐을 받은 것은 倭王의 측근에 筐을 연주할 수 있는 도래인이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55쪽)

- ② 왜와 고구려가 “돌연 413년에 동진에 견사했다.”고 하는 것은 … “410년 2월에

劉裕(송의 武帝)가 이끄는 동진군이 남연을 멸망시키고 산동반도를 탈환한 것에 의해 산동 경유의 견사 루트가 열린 것에 최대의 이유가 있다.”(55쪽)

③ 그렇지만 남연 멸망 후 바로 사신이 보내지지 않고 3년이나 지나 양국이 “거의 동시에 견사”했던 것은 왜일까. 호태왕 시대의 고구려는 남연과 통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진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또 왜의 동진 입공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④ “그러나 호태왕이 412년에 죽고 장수왕이 즉위하면서 상황은 변하였다. 장수왕은 즉위 초기부터 동진과의 관계 개선에 힘썼기 때문에 왜와도 관계 개선을 꾀 하였다고 하여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산동을 탈환한 劉裕가 탈환의 포석으로서 장수왕과 왜에게 입공을 축구하는 사자를 파견한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진에의 통교를 상호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건으로 왜와 이해가 일치하고 그 때까지의 대립 관계를 일시 완화했던 것은 아닐까. 그 때문에 왜와 고구려는 같은 해에 동진에 견사하고 왜국의 사자가 고구려 특산의 貂皮와 인삼을 현상하는 것이 되었던 것일 것이다. 그 점 應神天皇 37년조의 阿智使主 등이 고구려 경유로 고구려인의 길안내로 吳에 도착하였다고 하는 기사는 주목할 만하다. 이 기사는 413년의 견사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양국이 협조하였던 일시기는 413년부터 427년의 평양천도까지의 14년간이라고 추정된다. 평양천도라고 하는 고구려의 大南進에 의하여 양국의 관계는 다시 험악하게 되었을 터이다.

또한 413년의 왜국사는 貂皮와 인삼 등을 현상하고 있는 점, 왜왕에 관작이 수여되고 있지 않은 점으로부터 정식의 왜국 사절이 아니고 고구려가 자기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포로로 한 왜인을 왜국 사신이라고 가장하였다고 하는 坂元義種 씨의 유력한 설이 있다. 그러나 川本 씨는 정식의 사자라고 보아도 좋다고 주장한다. 왜국사가 貂皮와 인삼을 현상한 것은 당시의 강남에서 이것들이 진중되고 있었던 것을 왜 왕권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다른 뜻은 없다. 북위의 태무제마저 남벌 중에 농성중인 宋將 劉義恭(劉裕의 오남)에게 貂裘를 보내고 그것에 응하여 의공은 감귤을 보내고 있다. 교전 중에 있어서도 증답의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왜국사가 고구려 특산의 貂皮와 인삼을 증답이나 교역에 의하여 입수하고 이를 현상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58쪽)

⑤ “요컨대 왜가 413년에 동진에 견사했던 것은 i 南燕 토멸에 의하여 산동 경유의 통로가 개통하였기 때문이고, ii 劉裕가 왜에 입공을 재촉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先學이 든 이유 외에, iii 호태왕의 죽음과 장수왕의 즉위가 계기로 되어 왜와 고

구려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개선되고 산동반도 경유의 해로에 있어서 고구려의 방해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59쪽)

前之園 씨는 기본적으로 왜국으로부터의 사자에 의한 단독 입공설에 서고 있는데 고구려가 “왜하고 관계개선을 꾀하고”, “동진에의 통교를 상호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왜와 이해가 일치하고 그때까지의 대립 관계를 일시 완화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거나, 왜는 貂皮와 인삼을 고구려와의 “증답이나 교역에 위하여 입수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에 의하면, 고구려·왜 양국 간에 화평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동년의 입공이 되었다고 하는 협의 입공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고구려를 경유하고 고구려사와 동행하여 오에 이르렀다고 하는 응신 37년조를 413년의 견사와 “무관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중시하고 있는 일로부터 보면 공동 입공설에 대해 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池田溫 씨 논문은 참조하고 있지 않다.) 거의 공동 입공설에 가까운 견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상, 義熙 9년의 ‘왜국’사에 관한 근래의 제설을 보아왔다.⁷⁾ 池田·坂元 양씨의 견해에 근거하여, 왜국으로부터의 정식의 사자인가, 왜인 포로인가로 해석은 엇갈리지만 양설 어느 것을 취하더라도 고구려사와 ‘왜국’사가 함께 입공했던(공동 입공) 점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해석이 거의 성립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II. 기존 諸說의 논점

한편, 熊谷 씨는 “고구려와 함께 東晉에 入朝하였다는 기록도 있지만”이라고 서술하였는데, 고구려 사신·왜국 사신이 ‘동시에 함께 入朝하였다’는 의미라면, 이와 같은 일을 명기한 기록이 있을 리가 없다. 이미 池田 씨가

“일반적으로 正史의 本紀란 연말에 한꺼번에 정리하여 某某等國入貢을 등재하는 서식으로 일년간 入貢한 여러 이민족을 편의적으로 열거하는 것에 불과하여, 여러 나라의 同時入貢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池田 씨는 이어서

7) 이 밖에 예를 들면 吉村武彦 씨(1998년)는 池田 씨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義熙 9년에는 践祚 · 改元이라는 중대사가 없어서 특별히 이민족이 한꺼번에 入貢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西南夷와 東夷가 만약 같은 시기에 와서 만났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한 만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같은 東夷인 고구려와 왜국의 경우라면 어떨까? 양자가 동시에 共同入貢하였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전해주는 자료가 거의 없고, 만약 양자가 함께 來貢하였다면 이는 이례적인 일에 속한다는 점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義熙 9년에 대해서는 일찍이 橋本增吉 씨가 양국의 共同入貢을 역설하였고, 이와 별도로 최근 今西春秋 씨도 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橋本 씨의 통찰이 옳다고 보지만, 그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貢獻한 물품과 賦與된 물품을 검토해 보는 일이 효과적인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29쪽~30쪽)

라고 서술하고, 고구려와 共同入貢하였다고 보는 견해의 주요 논거는 <義熙起居注>에 있다고 보고, 이 사료를 검토하였다. 즉, <義熙起居注>를 통해 알려진 ‘왜국 사신이 고구려의 특산물을 현상한 이유는 무엇인가?’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그 사정이 어떤 하였든, ‘고구려와 공동으로 入貢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공동 입공 · 왜인 포로 양설론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협의 입공설에 서는 前之園 씨도 똑같다. 또 단독 입공설에 서는 川勝 씨의 남조 인사가 희구하는 고구려 특산물을 왜국이 교역에 의하여 입수하여 남조의 동진에 현상하였다는 의견도 <義熙起居注> 기사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설을 취하더라도 이 <義熙起居注>의 기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셈이다.

<義熙起居注>와 관련해서는 이미 今西 씨가 제기한 ‘고구려 탈락설’이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는데, 池田 · 坂元 씨 모두 앞에서 기술한 대로 왜국의 朝貢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나 역시 今西 씨와 마찬가지 의문을 갖고 있어, <義熙起居注>의 ‘왜국’을 ‘고구려’로 보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점에 대해서 다음 節에서 살펴보자 한다.

III. <義熙起居注> 기사의 검토

1. 朝貢品 문제

한편, 정식 왜국 사신이었든, 왜인 포로를 사신으로 가장하였든, <義熙起居注>에 전해지는 그 貢物은 不可解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왜국 사신이 현상하였다고 하는

담비가죽(貂皮)·인삼에 대해서는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이 모두 고구려 내지 북방 민족의 특산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적어도 왜국의 토산품이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진짜 왜국 사신이라면, 현상할 리가 없는 물품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거기에 共同入貢說이나 倭人捕虜說이 나오는 문제의 발단이 있는 것이지만, 坂元義種 씨는 고구려의 共同入貢 사례로 肅慎의 예를 들었다.

[史料 8] 《宋書》卷6 孝武帝本紀 大明3年(459年)條

十一月己巳 高麗國遣使獻方物. 肅慎國重譯獻楛矢·石砮.

(十一月己巳, 高麗國이 사신을 보내 方物을 바쳤다. 肅慎國이 重譯해서 楛矢·石砮를 바쳤다.)

[史料 9] 《宋書》高句麗傳

大明三年 又獻肅慎氏楛矢·石砮.

(大明三年에 또 肅慎氏의 楛矢·石砮를 바쳤다.)

[史料 10] 《晉書》卷105 載記 石勒下

時高句麗·肅慎 致其楛矢 宇文屋孤竝獻名馬.

(때에 高句麗·肅慎이 그 楛矢를 보냈다. 宇文屋孤가 나란히 名馬를 바쳤다.)

이 기사들은 肅慎이 朝貢하였다는 기사인데, 실제로는 고구려가 肅慎을 대신하여 혹은 肅慎을 대리하고 와 楛矢·石砮를 현상하였다고 해야할 것으로, 義熙 9년 고구려·왜국의 예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확실히 형식면에서는 닮았다. 그렇지만, 크게 다른 점은 그 조공품이다. 아무리 고구려가 주도하여 入貢하였다고 하더라도 肅慎이 肃慎 특산품인 ‘楛矢·石砮’를 현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왜국 사신이 자국의 특산품이 아니라 ‘담비가죽(貂皮)·인삼’이라는 금방 고구려 특산물이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는 물품을 현상한 점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즉, 고구려가 의도적으로 遠夷入貢을 연출하여 중국 왕조의 정치적 환심을 살 목적—肅慎의 楛矢·石砮 현상이 황제의 德政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처럼—을 가지고 왜인 포로를 왜국 사신으로 꾸몄다면, 고구려의 특산물 이외의 물품을 가지고 나름대로 위장을 하지 않았을까?

義熙年間 당시 東晉이 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왜국에 대해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西晉의 陳壽(297년 没)가 저술한 《三國志》 <魏書> 東夷傳 倭人條, 이른바 <魏志> 倭人傳에 기재되어 있듯 왜국의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魏志> 倭人傳에는 왜국이 ‘會稽東冶의 동쪽’(현재 福建

省 福州)에 있다든가, ‘倭의 땅 온난’이라든가, ‘有無는 僮耳 · 朱崖와 같다’ 즉 특산물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海南島 것과 같다고 한 기술이 보이며, 또한 魏에 바치는 현상품으로 生口 외에 布 · 錦 · 繡의 섬유제품, 丹, 弓矢 따위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義熙 9년 당시 東晉 朝廷에는 왜국의 위치를 동남쪽이라는 이해와 특산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은 있었던 것이다.⁸⁾ 그런데 현상품이 북방 고구려의 특산품이라면, 東晉 朝廷에서는 의심을 품지 않았을까? 포로를 遠夷入貢하는 사신으로 꾸몄다면 고구려는 좀 다른 품목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今西 씨처럼 <義熙起居注> 기사를 통해 ‘고구려 탈락설’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2. 回賜品 문제

다음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東晉에서 받은 回賜品으로, 東晉이 回賜品으로 細笙 · 麝香을 선택한 이유이다. ‘細笙’과 ‘麝香’은 요컨대 악기와 향료이다. 왜 東晉은 이를 回賜品으로 고른 것일까? —물론 回賜品 중 일부이겠지만—

먼저 떠오르는 소박한 의문은 이 무렵 왜인이 ‘細笙’이나 ‘麝香’을 하사받고 과연 그 가치를 이해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중국 왕조에 入貢하는 한 가지, 그리고 커다란 목적으로 威信財 입수를 들 수 있는데, ‘細笙’이나 ‘麝香’이 가진 威信財로서의 가치를 아는 환경을 당시 왜인 사회가 조성하고 있었는지 어떤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細笙 · 麝香’은 回賜品의 일부이겠지만, 후세에 남기기 위한 내구성이라는 면을 생각하더라도 竹製品인 ‘細笙’에는 그다지 기대할 만한 것이 없지 않을까? 東晉이 이러한 물품을 왜국에 回賜品으로 골라 하사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에 반해, 回賜品이 악기와 향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조합을 고려해 보면, 즉 시 떠오르는 것은 고구려이다. 回賜하는 상대가 고구려라고 하면, 사실 東晉이 回賜品으로 이 물품들을 선택한 때에는 의미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笙과 麝香에 대해 각각 살펴보자.

A: 笙

먼저 笙은 악기인데, 笙은 竹管을 조합한 관악기 종류이다. 이러한 악기를 이용하는 歌舞 환경에 대해 살펴보면, 왜인 사회와 관련해서 문헌사료에 보이는 것은 《魏

8) 중국 新疆 위구르 자치구나 新疆省에서 西晉 · 東晉 시대의 사본으로 보이는 《三國志》 残卷이 발견되어, 이 서적이 오래 전부터 유포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杉本憲司 · 森博達 1985년).

志》倭人傳에

[史料 11] 《三國志》卷30 魏書 倭人傳

其死有棺無槨 … 壽主哭泣 他人就歌舞飲食.

(죽는 사람이 있으면 棺을 쓰는데 槨은 없다. … 壽主가 哭泣하고 他人은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신다.)

라고 葬送 의식과 관련하여 歌舞가 있었다는 기술이 있을 뿐이다. 고고학상의 유물이 라도 주로 5세기 후반 이후의 人物埴輪 등에 의해 琴이나 笛 등의 초보적인 악기의 사용이 알려지는 정도이다.⁹⁾ 前之園 씨는 “細笙을 하사한 것은 왜왕의 측근에 箏을 연주할 수 있는 도래인이 있던 것을 추측케 한다.”(55쪽)라고 하였는데, 5세기 전반 당시의 왜인 사회가 ‘笙’과 같은 고도의 악기를 사용할 정도의 가무·음악이 있는 환경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고구려 사람들이 歌舞를 즐겼다는 점은 문헌사료나 고구려 고분벽화에 잘 나타나 있다. 먼저 문헌사료 몇 가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史料 12] 《後漢書》卷85 高句麗傳

武帝滅朝鮮 以高句麗爲縣 使屬玄菟 賜鼓吹伎人. 其俗淫 皆契淨自憲 暮夜輒男女群聚爲倡樂.

(武帝가 朝鮮을 멸망시키고 高句麗로써 縣을 삼았으며, 玄菟에 속하게 하여 鼓吹伎人을 하사하였다. 그 풍속은 음란하지만, 모두 깨끗한 것을 좋아하며, 밤에는 남녀가 무리를 지어 노래를 부른다.)

[史料 13] 《三國志》卷30 魏書 高句麗傳

其民喜歌舞 國中邑落 暮夜男女群聚 相就歌戲.

(그 백성은 歌舞를 즐긴다. 國中の 邑落에는 밤이 되면 남녀가 무리를 지어 서로 노래하고 즐긴다.)

[史料 14] 《舊唐書》卷 音樂志

宋世有高麗・百濟伎樂.

(宋의 시대에 高麗와 百濟의 伎樂이 있었다.)

元封 3년(BC. 108년) 前漢 武帝가 朝鮮을 멸하고 4郡을 설치하였을 때, 고구려에

9) 岡崎晉明(1998년) 118~119쪽 참조.

鼓 · 吹와 같은 악기와 樂人¹⁰⁾을 하사한 점, 고구려 사람들이 歌舞를 즐기는 모습, 그리고 宋代(420~479년)에는 고구려의 樂이 백제의 樂과 함께 세상에 알려져 있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高麗樂은 그 후 중국 왕조의 四方樂에도 도입되었고 나아가 일본에도 전래되어 율령제하 '高麗樂'으로 정착하였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¹¹⁾

또한, 고구려에서 주로 귀족들이 歌舞를 즐기는 구체적인 모습을 고분의 벽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중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가 歌舞 장면으로, '舞踊塚 古墳'이란 이름까지 붙은 고분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벽화에는 악기도 많이 그려져 있다. 벽화에 그려진 악기에 대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고고학 연구소 편저(1982년)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지금까지 벽화에 그려진 고구려의 악기는 21종에 달하며 문헌에는 이 밖에도 15종의 악기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에는 모두 36종 이상의 악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벽화에 그린 관악기는 角笛 · 長笛 · 橫笛 · 簫 · 螺具가 있고, 문헌에는 이 밖에 義指笛 · 笙 · 菟蘆笙 · 小簫篥 · 大簫篥 · 桃皮簫篥이 기록되어 있다. ... 簫는 長短의 真竹 竹管 몇 개를 橫으로 평행하여 결합한 악기이다." (209~212쪽)

북한 황해남도 안악군에 있는 안악 3호분 벽화에는 笙과 같은 竹管樂器인 簫를 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고분에는 "永和十三年(357年) ..."이라는 墓書銘이 있어, 그 축조 연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안악 3호분을 비롯하여 대략 4세기에 축조된 고분벽화를 통해 이 무렵 고구려는 타악기 · 현악기 · 관악기 등, 적어도 20여 종이 넘는 악기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簫과 같은 竹製 관악기인 '笙'에 대해서는 현재 발견된 벽화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隋書》《舊唐書》《新唐書》音樂志 등에, 高麗樂에 사용되는 악기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왜국과 고구려의 歌舞 · 음악 사정에 대해 살펴보면, '笙'을 받을 나라로는 왜국보다 고구려가 더 어울린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까 한다.

B: 麝香

이어서 '麝香'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麝香은 향료 · 약품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池田 씨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10) [史料 12]의 '賜鼓吹伎人'에 대해서는 '鼓吹의 伎人을 내리시다'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11) <養老職員令> 雅樂寮條에 '高麗樂師四人 · 樂生二十人'이라고 보인다.

“천연 동물성 향료로서 옛부터 인기가 있어, 수컷 사향노루의 배꼽 뒤쪽 피하 생식기에 있는 사향낭 속의 샘을 건조시켜 얻은 분비물을 묽게 한 것이다. 사향노루는 히말라야 티베트에서 중국 서부·몽고·시베리아·한반도에 걸쳐 분포하는데, 중국에서는 서쪽 산지 邊州의 특산물로 바쳐졌다. 蘭麝라는 말이 향료의 대표로 여겨져, 남조의 귀족사회나 사원에서 특히 중요시되었음을 말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사향은 단독으로 사용되기도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향료와 적당하게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그 약효도 널리 알려져 있다.”(33쪽)

麝香의 용도는 다양하여, 《太平御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예를 들면 芳香을 위해 몸에 바르거나 독사에게 물리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며, 本草와 관련해서는 약초로서 그 효능이 기록되어 있다. 그 용도 가운데 향료로서 보면, 불교와 깊은 관계가 있다. 燃香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에서 香은 본래 不可缺한 것임은 經典에도 나와 있는데, “香은 피우거나 몸에 바르거나 악취를 제거하거나 하는 芳香을 생활 속에서 즐기는 인도의 오랜 풍습이 석가를 공양하는데 녹아들면서, 석가 공양의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¹²⁾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료로서는 晉代의 기록으로

[史料 15] 《晉書》杜太后傳(《太平御覽》卷981 香部1 香)

海西公之世 太后復臨朝稱制. 桓溫之廢海西公也 太后方佛屋燒香. . .

(海西公의 시대에太后가 또 조정에 임하여 稱制하였다. 桓溫의 海西公을 폐하자 太后 쪽에서 불전에 향을 피웠다.)

라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麝香’에 대해서도 《金光明最勝王經》 卷第7 大弁財天女品 第15之 1에 ‘香藥三十二味’ 가운데 하나로 나와 있다.¹³⁾

향료의 중요한 용도 중 하나가 불교와 관련된 점으로 보아, 주목되는 것은 역시 고구려이다. 義熙 9년보다 앞선 372년(소수림왕 2년)에 고구려에는 중국(前秦)을 통해 불교가 전래되어 사원이 건립되었다. 《三國遺事》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史料 16] 《三國遺事》 卷3 順道肇麗

高麗本記云 小獸林王卽位二年壬申 乃東晉咸安二年孝武帝卽位之年也. 前秦符堅遣使及僧順道 送佛像·經文. <時堅都關中 卽長安> 又四年甲戌 阿道來自晉. 明年乙亥二月 創肖門寺 以置順道. 又創弗蘭寺 以置阿道. 此高麗佛法之始.

12) 《岩波 佛教辭典》(1989년) 香의 항목

13) 有賀要延 《香と佛教》(國書刊行會, 1990년) 50~52

(高麗本記에 말하기를, “소수림왕 즉위 2년壬申, 곧 東晉 咸安 2年 孝武帝 즉위의 해이다. 前秦의 符堅이 사신과 승려 順道를 보내, 佛像과 經文을 보냈다. <그 때에 부견은 關中에 도읍하였으니, 즉 長安이다.> 또 4年 甲戌에 승려 阿道가 晉에서 왔다. 이듬해 乙亥 2월에 肖門寺를 창건하여 順道를 두고, 弗蘭寺를 창건하여 阿道를 두었다. 이것이 高麗 佛法의 시초이다.)

*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小獸林王 2年條, 4年條, 5年 春2月條 참조.

前秦에서 승려가 와 불상·경전을 전해주었고 이어서 사원도 건립되어 “高麗佛法의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다.¹⁴⁾ 다시 말해, ‘麝香’과 관련해서도 그것을 하사받을 상대국으로 불교가 전래되어 아직 얼마 지나지 않은 고구려가 훨씬 적당하다.

3. 〈義熙起居注〉 기사의 倭國은 高句麗의 잘못인가

이상에서 회赐 품목의 검토를 통해 〈義熙起居注〉에 보이는 회赐品인 ‘笙’과 ‘麝香’은 고구려에 보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하였다. 池田 씨는 “고도의 청각 및 후각 문화를 상징하는 하사품을 접한 왜인의 설레는 가슴을 상상”(39~40쪽)해 본다고 하였다. 확실히 그런 면도 부정할 수 없지만, 앞에서 논하였듯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환경이나 의의를 고려해 볼 때, 〈義熙起居注〉에 회赐品으로 기록되어 있는 악기인 ‘細笙’, 향료인 ‘麝香’은 모두 고구려에 회赐品으로 보내는 것이 더 어울리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회赐品은 당연히 ‘笙 · 麝香’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었을 테지만, 이를 기록에 남긴 것은 역시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歌舞를 즐기고 불교신앙이 싹튼 고구려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義熙起居注〉에 보이는 ‘笙’과 ‘麝香’을 받은 곳이 고구려라면, 東晉이 이 품목을 회赐品으로 선택한 이유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에歌舞가 융성하였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으나, 그뿐만 아니라 安帝는 東晉에 대한 첫 朝貢을 매우 커다란 일로 받아들여 前漢의 名君 武帝가 고구려에 ‘鼓 · 吹 · 伎人’을 하사하였다는 故事[史料 12]를 모방하여 ‘細笙’을 회赐品으로 골랐을지도 모른다. ‘笙’은 4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묘사되어 있지 않은 듯하나, 《隋書》, 《舊唐書》, 《新唐書》 音樂志 등에 高麗樂에 사용하는 악기로 정착해 있다. 혹은 義熙 9년에 하사받은 것을

14) 고구려의 불교에 대해서는, 門田誠一, 〈高句麗の初期佛教における經典と信仰の實態 -古墳壁畫と墨書の分析-〉(《朝鮮史研究會論文集》 39, 2001년) 참조.

계기로 고구려 歌舞에서 연주하기 시작한 악기 중 하나는 아니었을까? 또한 ‘麝香’과 관련해서는, 전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구려 불교에 필요한 지식을 좀 더 전할 목적으로 하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처럼 ‘笙·麝香’ 모두 그 시기로 보아 고구려에 보낸 回賜品으로 더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담비가죽(貂皮)·인삼’과 같은 貢獻品이 고구려의 특산물 일 뿐만 아니라, 回賜品 역시 고구려에 보냈을 법한 물품인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살펴볼 때, <義熙起居注> 기사는 ‘고구려’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함부로 사료의 誤脫을 말해서는 안 되지만, ‘왜국’이라는 것은 ‘고구려’의 誤記, 혹은 ‘고구려·왜국’이라고 기술한 원사료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는, 《太平御覽》 편찬 당시의 誤記, 혹은 잘못된 인용이라고 상정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러한 <義熙起居注> 고구려 탈락설 내지 誤記說에 대해서는 이미 서술하였듯이 坂元義種 씨가 부정하였다. 분명 坂元 씨가 지적하였듯이, 왜국이 아니라 고구려라고 한다면 貢獻品에 ‘赭白馬’라는 기재가 없는 것을 문제로 보아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료의 잔존이나 기록의 모습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료 하나에 모든 사실이 기록될 리가 없으며 특필해 둘 필요가 있는 일, 집필자의 관심에 따른 일이 각각 따로 따로 기록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구려 탈락 내지 誤記를 부정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義熙起居注>의 사례는 坂元 씨 자신이 지적한 《太平御覽》의 참고사료 인용 방법에 문제가 있는 예 가운데 하나로 여겨질 기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坂元 씨는 고구려 탈락 내지 誤記說을 부정하는 논거로, 그 당시 고구려왕에게는 官爵을 하사하였는데, 왜국왕에게는 官爵을 하사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것도 ‘赭白馬’의 예와 마찬가지로, 전해지는 기록의 상태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고구려왕은 東晉 咸康 2년(336년), 建元 元年(342년)에 東晉에 入貢하였는데, 《晉書》本紀에는 단지 朝貢하였다고만 전할 뿐, 고구려왕에게 官爵을 하사하였다는 기사는 없다. 그렇지만 뒤에 전개되는 경위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그 사이 적당한 시기에 官爵을 하사하였으리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상세한 내용은 본 논문의 제3장 참조). 또한 [史料 4]에 제시하였듯이, “永初二年(421년)에 詔하여 이르기를, ‘倭讛, 萬里修貢. 遠誠宜甄, 可賜除授”라는 기사가 있는데, 구체적인 除授 내용은 기록에 없다. 반드시 모든 除授 기록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따라서, 왜국왕에게 官爵을 하사한 사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정식 왜국 사신이 아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재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맺음말

이상에서 義熙 9년(413년)의 왜국 사신에 대해서, <義熙起居注> 기사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義熙起居注>에 보이는 回賜品이 왜국으로 보낸 물품이라기보다는, 고구려에 하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는 점을 서술하였고, <義熙起居注>의 ‘왜국’은 ‘고구려’의 誤記 내지 잘못된 인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만약 <義熙起居注>를 ‘고구려’와 관련 있는 기사로 보는 私見이 인정된다 고 한다면, <義熙起居注>의 ‘왜국’ 기사를 중요한 논거로 하여 “왜국 사신이 왜 고구려의 특산품을 헌상하였을까?”하는 의문에서 발생하는 고구려·왜국 共同入貢説이나 왜국 사신 倭人捕虜説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義熙起居注> 기사를 제외한 사료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광개토대왕 비문에 있는 고구려와 왜의 전쟁 상황으로 보아, 413년에 공동으로 사신을 파견할 만한 환경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똑같이 양국 간에 협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도 곤란할 것이다. 다시 말해, 義熙 9년의 왜국 사신은 일본열도의 야마토 왕권이 파견한 사신으로, 고구려와 관계없는 單獨의 遣使朝貢으로 보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266년, 왜의 여왕인 臺與가 西晉에 朝貢한 아래 단절되었던 중국 왕조와 왜의 교류는 413년 東晉에 대한 遣使朝貢으로 재개되었다고 간주된다. 이는 또한 왜 5왕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만, 《梁書》, 《南史》 등 義熙年의 遣使를 왜왕 讀이 보낸 것으로 기록한 사료에 대해서는, 坂元義種 씨가 자세하게 논하였듯이, 《宋書》 등의 사료를 통해 유추한 것을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讀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때 사신을 보낸 것이 왜왕 讀인지, 혹은 讀보다 앞선 왜왕인지—그럴 경우 倭 6왕이 되지만—하는 문제가 남지만, 적어도 일본열도의 세력이 臺與 아래 중국 왕조에 遣使를 한 것이 413년이었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에는 고구려도 入貢하였다. 390년 무렵부터 직접 전쟁을 해 온 당사자인 고구려·왜가 묘하게도 義熙 9년 같은 해에 앞서거나 뒤서거나 중국 왕조(남조)와 교류를 재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구려는 70년 만이고 왜는 대략 150년 만의 일이다. 그 배경에 양국의 동진 통교에 중요한 루트인 산동반도의 정세의 변화가 있다고 하니 지적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이고, 동진에 의한 남연 멸망의 정보가 빨리 백제로부터 왜에 전달된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된다.¹⁵⁾ 후의 왜왕 무의 상표문을 참조할

15) 前之園 씨(2001)는 “동진의 남연 토벌의 정보는 백제에 체제·주둔하고 있던 왜인이 바

것도 없이 왜는 고구려와의 대결을 중국왕조의 힘을 빌어 타개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고구려도 백제와의 항쟁을 유리하게 전개하려고 하여 북조뿐만 아니고 남조의 입궁을 행하였다고 보아도 틀림없을 것이다. 이미 백제는 372년·386년에 東晉의 冊封을 받았다. 왜도 고구려도 백제의 동향에 자극을 받아 東晉에 入貢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해 볼 만할 것이다. 이에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기로서 413년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한다.

로 알아차리게 되고 왜는 그 과정에 큰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56~57쪽)라고 서술하고 있다.

제2장 倭國王 濟의 將軍號에 대해서 －安東將軍인가 安東大將軍인가－

머리말

倭五王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濟는珍의 뒤를 이어 즉위하여宋朝에 자신의官號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에게도官號를 임명해 줄 것을 신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야마토 왕권의 지배기구가 정비된 시기로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济가 받은將軍號에 대해 安東將軍說·安東大將軍說이 있으며, 어느說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왜국왕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I.倭王濟의 將軍號에 대한 기본사료와 기존의 諸說

왜국왕济가 받은官號에 대해서, 우선 《宋書》卷97 夷蠻傳 東夷倭國條(이하倭國傳)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史料 17] 《宋書》倭國傳

(元嘉)二十年 倭國王濟遣使奉獻。復以爲安東將軍·倭國王。

二十八年 加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將軍如故。并除所上二十三人軍郡。

(元嘉 20년에倭國王济가遣使奉獻하였다. 또한安東將軍·倭國王으로 삼았다.)

28年에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를 더하였다. 安東將軍은 예전과 같이 하였다. 아울러 요청한 바의 23인을 軍郡에 제수하였다.)

즉济는元嘉 20년(443년)에安東將軍·倭國王에봉해졌으며, 이어서同 28년(451년)에‘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에도임명되었으나,將軍號는安東將軍그대로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宋書》卷5文帝本紀에는

[史料 18] 《宋書》卷5 文帝本紀
 (元嘉)二十年 是歲 河西國·高麗國·百濟國·倭國 幷遣使獻方物.
 二十八年秋七月甲辰 安東將軍倭王倭濟 進號安東大將軍.
 (元嘉 20年, 是歲에 河西國·高麗國·百濟國·倭國이 모두 사신을 보내 方物을 바쳤다.
 28년 가을 7월 甲辰에 安東將軍 倭王 倭濟를 安東大將軍으로 進號하였다.)

이라고 나와 있으며, 元嘉 28년에는 安東將軍에서 安東大將軍으로 進號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⁶⁾

즉, 元嘉 28년에 濟가 받은 官號 중, 將軍號에 대해서 倭國傳에는 “安東將軍如故”, 本紀에는 “進號安東大將軍”이라고 기록하였다. ‘安東將軍’인지 ‘安東大將軍’인지는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왜국왕의 국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말 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도 이 문제는 논점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 견해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 :倭國傳 기사가 옳고 本紀 기사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將軍號는 그대로 ‘安東將軍’이었다고 보는 설.

① 池內宏(1947년)

다면 將軍名에 대해서는 倭國傳에 ‘安東將軍如故’라고 나와 있는 기사가 옳으며, 文帝本紀에 大將軍에 올랐다고 하는 기사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98쪽)

② 宮崎市定(1983년)

그러나 文帝도 元嘉 28년에는 좀 수그러들어 왜국왕에게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將軍이라는 位號를 내렸다. 즉, 왜왕이 요구한 백제를 제외하고 가야를 더하여 숫자만 6國으로 하고 그 都督諸軍事로 삼아 安東이라는 號는 大將軍이 아니라 단순한 將軍인 점은 예전과 같다는 것이다.(218쪽)

③ 西嶋定生(1985년)

또 《宋書》本紀에는 451년인 元嘉 28년 기사에 왜왕 濟을 安東大將軍에 임명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전후 관계를 살펴보아 安東將軍의 오류로 보인다.(61쪽)

B : 本紀 기사가 옳고 倭國傳 기사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將軍號를 ‘安東將軍’에서

16) 참고로, 《冊府元龜》卷963 外臣部 封册1에는 “(宋文帝 元嘉)二十八年七月 安東將軍倭王濟 進號安東大將軍”이라는 기사가 있다.

‘安東大將軍’으로 進號받았다고 보는 설.

① 高寬敏(1995년)

둘째로, 451년에 濟가 “使持節 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에 加號·進號된 점이다.(71쪽)

② 田中俊明(2003년)

고증은 없지만, 451년 授爵 항목에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이라 기록하고 있다.(15쪽)

C : 倭國傳·本紀 모두 옳으며 시간차를 고려하여 먼저 ‘安東將軍’에 임명되었고(倭國傳), 그 뒤 얼마 있다가 ‘安東大將軍’에 進號되었다(本紀) 고 보는 설.

① 坂元義種(1978년)

文帝紀와 倭國傳 가운데 어느 한쪽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굳이 “元嘉二十八年秋七月甲辰 安東將軍倭王倭濟 進號安東大將軍”이라고 날짜와 ‘進號’까지 기록한 文帝紀가 아니라 “安東將軍如故”라고 기록한 倭國傳일 것이다. 다만 나는 두 사료를 모두 옳다고 보며 양자를 모두 활용해 가는 것이 좋을 듯싶다. 다시 말해, 양자를 元嘉 28년(451년) 같은 시기의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것이므로, 이를 倭國傳이 좀 빠른 시기에, 이어서 文帝紀에서와 같은 進號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다.

② 吉村武彥(1998년)

“451년 (元嘉 28년) 왜왕 濟가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將軍·倭國王에, 그리고 23명이 軍部에 임명되었다. 이어서 濟가 安東大將軍을 進號받았다.”(57쪽, 표 3 <五世紀の宋と遣宋使>) 단 吉村 씨는 최근에 A 설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본 논문 주 15 참조)

③ 莊木美行(1996년)

먼저, 元嘉 28년에 ‘安東將軍倭國王’ 濟의 遣使가 宋에 갔으며, 濟는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將軍倭王”에 임명되었다 … 그리고 이미 ‘倭王’에 임명된 (倭) 濟에게 같은 해 가을 7월에도 將軍號를 進號하여, (倭) 濟는 ‘安東將軍’에서 ‘安東大將軍’으로 진급하였던 것이다 ….(65쪽)

이상과 같은 3가지 견해가 있는데, 왜 5왕 연구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坂元 씨의 의견이기도 한 만큼, 오늘날 일본 학계에서는 B설 내지 C설, 즉 安東大將軍 승진설이 일반적 의견으로 자리하고 있다.¹⁷⁾ 그렇지만, 치밀한 문헌고증, 사료비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坂元 씨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증이라는 측면을 수반하고 있지 않아, 文帝紀에 “날짜와 ‘進號’까지 기록”하였으므로 신뢰할 수 있다고 한 약간 인상론에 빠진 이유를 들어 本紀를 채용해야 한다고 서술한 데 불과하다. 상식적으로는 분명 坂元 씨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증이라는 측면에서 불충분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B설 · C설에 대해 반론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한국 연구자들은 A설 (安東將軍說)을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朴鐘大(1985년)

濟는 宋朝에서 安東將軍 · 倭國王으로 책봉 받은 뒤, 元嘉 28년(451년)에는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將軍倭王”으로 책봉되었다. 《宋書》 本紀에는 安東大將軍으로 追封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착오로 보는 것 이 통설이다.(36쪽)

중국 남조가 고구려 · 백제 · 왜에 책봉한 爵號의 서열 면에서도 劉宋朝는 고구려를 처음부터 征東將軍에 책봉하고 征東大將軍 · 車騎大將軍 · 飜驥大將軍 순서로 책봉하고 있으며, 백제를 처음에 鎮東將軍에 책봉하였으나 鎮東大將軍으로 進封하였다. 왜는 처음부터 죽 서열이 낮은 安東將軍으로 책봉되었을 뿐이다.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책봉으로, 백제는 鎮東大將軍이고 왜는 서열이 낮은 安東將軍임에도 불구하고, 백제를 포함한 한반도 남부를 군사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다.(45쪽)

○ 延敏洙(1994년)

그런데, 濟가 받은 爵號가 安東大將軍이라면, 濟가 사망한 뒤 왕위를 이은 興이 大明 6년(462년)에 받은 爵號가 安東將軍이므로, 전임 왕보다 하위의 爵號를 제수받은 셈이다. 이는 중국 왕조의 授爵 관례를 살펴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후임 왕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전임 왕이 가진 爵號와 동등 내지는 상위의 爵號를 제수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列傳에 기록된 世祖 孝文帝

17) 단 최근에도 吉村武彥 씨(2003)는 “武가 ‘開府儀同三司’를 자칭한 일, 또 송의 황제로부터 처음으로 ‘안동대장군’이라는 대장군 칭호를 받은 것을 중시하고 싶다. 왜의 5왕은 珍의 때부터 안동대장군을 자칭하고 있었다. 그런데 송의 황제로부터 정식으로 안동대장군의 칭호를 수여받은 것은 5왕 중 武(와카타케루)만이고 그 의미는 크다. 한 단계 장군호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173쪽)라고 서술하고 있고, 또 仁藤 씨(2004)는 “왜왕 무가 처음으로 송으로부터 안동대장군의 칭호를 공인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128쪽)라고, 무이전의 濟는 안동대장군에 임명되어 있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條에 따르면, “왜왕의 후계자인 興은 여러 대에 걸친 왜왕의 忠義를 계승하여 外海에 宋왕실의 蕃屏을 이루어 天子의 德化를 입어 변경의 국경을 평안하게 하였고 이처럼 정중하게 朝貢을 해왔다. 지금 새롭게 변방을 수호하고 있기에 餡號를 제수하여 安東將軍·倭國王으로 삼아라.”라고 칭송하는 표현을 구사하고 있듯이, 전임 왕보다도 하위의 餡號를 내릴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 기사를 부정하지 않는 한, 元嘉 28년 왜국왕 濟의 安東大將軍說을 채택하기는 어렵다. ...

이와 같이 살펴볼 때, 왜 5왕 시대의 왜왕들이 宋朝에게서 제수받은 將軍號는 安東將軍이라는 官品이 가장 높은 餡號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왜국왕의 국제적 지위가 항상 고구려·백제왕보다 하위에 있었다는 것은 宋朝側의 국제인식으로 현실적인 외교노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120쪽)

이처럼 濟가 받은 將軍號가 安東將軍인지 安東大將軍인지지를 통해, 고구려왕·백제왕과 비교한 왜국왕의 국제적 지위와 관련해서도 커다란 견해 차이를 낸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이를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II. 《宋書》倭國傳·文帝本紀 元嘉 28年條의 문제점

1. “(倭國) 王如故”라는 기사가 없는 점

A설·B설·C설 어느 견해를 따르든, 기존 여러 설을 살펴볼 때 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倭國傳 元嘉 28年條 [史料 17] 濟의 임관기사에 보이는 ‘安東將軍如故’라는 표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기술에 따르면, 元嘉 20년에 安東將軍·倭國王에 책봉된 濟는 同 28년에 ‘使持節 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가 더해졌지만, 安東將軍은 원래대로 두며 변경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濟가 安東將軍과 함께 元嘉 20년에 받은 또 하나의 칭호인 ‘왜국왕’의 지위는 어떻게 된 것일까? 그 기술이 없는 것은 왜일까?

“(官爵號) 如故 (원래대로)”라는 표현은 종종 문헌에 나오는 표현인데, 倭國傳과 마찬가지로 《宋書》夷蠻傳에 나와 있는 고구려·백제 條 가운데에서 같은 기사를 찾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如故’ (명조체), 進號·加號(이탈릭체)로 표시)

① 고구려왕 高璉의 경우(宋永初元年)

(前官) 使持節 · 都督營州諸軍事 · 征東將軍 · 高句麗王 · 樂浪公

(新除) 征東大將軍 · 持節 · 都督 · 王 · 公如故.

② 고구려왕 高璉의 경우(大明七年)

(前官) 使持節 · 散騎常侍 · 資平營二州諸軍事 · 征東大將軍 · 高句麗王 · 樂浪公

(新除) 大將軍 · 開府儀同三司 · 持節 · 常侍 · 都督 · 王 · 公如故.

③ 백제왕 餘映의 경우(永初元年)

(前官) 使持節 · 賄百濟諸軍事 · 鎮東將軍 · 百濟王

(新除) 鎮東大將軍 · 持節 · 都督 · 王 · 公(※) 如故.

※ '公' 자는 백제왕과 관련 있는 듯이 보이지만, 고구려왕 高璉과 함께 기술되고 있으므로, 이 '公'은 고구려왕의 樂浪公과 관련된 표기이다.

①②③처럼 고구려왕 · 백제왕의 경우는 進號나 加號를 받았을 때, 이전에 받은 官爵을 계승할 경우에는 '王'號도 반드시 '如故'로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濟의 경우에는

④ 왜국왕 濟의 경우(元嘉28年)

(前官) 安東將軍 · 倭國王

(新除) 使持節 · 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 安東將軍如故.

라고 安東將軍에만 '如故'로 기록하여 왜국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고구려왕 · 백제왕의 예를 보면, 濟의 '如故'로 기록된 칭호 속에는 당연히 '(倭國)王'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같은 夷蠻傳에 나와 있는 고구려왕 · 백제왕과 비교하여 표 현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아닐까? 이것이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첫째 문제이다.

2. “安東將軍如故”라고 되어 있는 점

倭國傳 元嘉 28年條 [史料 17] 기사에서 주의해야 할 두 번째 문제는 다음 아닌 ‘安東將軍如故’라는 기사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濟와 같은 예에 대해서 《宋書》의 夷蠻傳이나 서방 이민족인 氏胡傳을 살펴보면, ‘如故’라고 하는 경우는 官爵號 전

체를 표기하지 않고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앞에서 제시한 고구려왕의 경우를 예로 들면,

使持節→持節, 散騎常侍→常侍, 都督營州諸軍事→都督, 高句麗王→王, 樂浪公→公

처럼 약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백제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濟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將軍號의 예는 高句麗傳·百濟傳에는 보이지 않으나, 예를 들면 氏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楊文度의 경우(元徽4年)

(前官)寧朔將軍·略陽太守·武都王
(新除)加督北秦州諸軍事·平羌校尉·北秦州刺史 將軍如故.

여기 ‘將軍如故’의 將軍은 ‘寧朔將軍’을 가리키고 있다. 또한 濟가 元嘉 28년에 임명을 요청한 기사 [史料 17]에 ‘除…軍·郡’이라고 있는데, 이는 將軍號·郡太守號의 약칭이다.¹⁸⁾

이러한 예를 통해, ‘○○將軍’號가 ‘如故’로 기록되는 경우는 ‘○○將軍如故’가 아니라 ‘將軍如故’ 혹은 ‘軍如故’로 구체적 이름을 생략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즉, 문제가 되는 濟의 경우, 원래 약칭을 사용하여야 할 곳에 굳이 ‘安東將軍如故’라고 구체적인 전체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오히려 문제점을 느낀다. 이것이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두 번째 문제이다.

이상, 倭國傳 元嘉 28年條 기사에 대해서 (1) '(倭國) 王如故'라는 기사가 없다는 점, (2) 「安東」將軍如故라는 기사가 있다는 점, 이 두 가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이 두 가지 모두 적어도 夷蠻傳에서 이례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III. 倭國傳 元嘉 28年條의 해석

그러면 倭國傳 元嘉 28年條에 있는 이례적인 官號 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

18) 坂元義種 (1978년B) 547쪽~553쪽 참조

까? 같은 夷蠻傳에 나와 있는 고구려왕·백제왕에 대한 표기와 비교하여 이 기사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앞에서 倭國傳과 本紀 기사의 차이에 대한 3가지 해석을 소개하였는데, 그 가운데 倭國傳과 本紀의 기사 모두가 옳다고 본 C해석은 元嘉 28년 7월 이전에 安東將軍 임명, 이어서 安東大將軍 進號가 있었다고 보고 있어 시간적으로 고려할 때 무리가 있는 해석으로 보인다. 따라서 《宋書》 本紀나 倭國傳 중 어느 한쪽은 잘못 표기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文帝本紀에는 날짜와 ‘安東大將軍에 進號’한 것까지 기록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다는 상식적 이해를 바탕으로, 倭國傳에 있는 이례적인 표기를 주목하면, 倭國傳 元嘉 28年條의 원문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닐까? 특히 ‘安東將軍如故’ 기술에 주목하면, 원래 ‘二十八年 加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進號安東大將軍. 王如故.’라고 기록하여야 할 기사가 어느 시기인지 알 수 없으나 誤脫이 생겨 지금과 같은 ‘二十八年 加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將軍如故.’라는 기사로 전해진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물론 안이하게 사료 원문의 오탈을 주장하는 일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탈을 상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宋書》 夷蠻傳은 일찍부터 여기 저기 흘어져 있다가 훨씬 시대가 내려온 宋代(趙氏)에 들어와 보강되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¹⁹⁾ 이에 《宋書》 夷蠻傳에 대한 書誌的 검토를 좀 더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맺음말

이상에서, 元嘉 28年에 왜국왕 濟가 받은 官號에 대해 좀 더 고찰을 해보았고, ‘安東將軍如故’라는 기사를 싣고 있는 《宋書》 倭國傳 元嘉 28年條에 사료 원문에 오탈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억측도 해보았으며, 元嘉 28년에 濟가 받은 將軍號는 本紀에서 전하듯이 ‘安東大將軍’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따라서 고구려왕·백제왕이 모두 征東大將軍號·鎮東大將軍號를 얻었는데 반해, 왜국왕은 安東將軍號에 그치고 있어, 이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 견해에는 따를 수가 없다.

19) 湯淺幸孫 (1988년) 참조

제3장 征東將軍(고구려왕), 鎮東將軍(백제왕), 安東將軍(왜국왕)의 서열에 대해서

머리말

5세기를 통해 東晉·宋에서 고구려왕은 征東(大)將軍, 백제왕은 鎮東(大) 將軍, 왜국왕은 安東(大)將軍에 각각 임명하였다. 이를 將軍號에 대해서 당시 중국의 관직제도에 서열이 존재하였고 그 관직에 임명할 때에는 3국에 대한 중요도를 반영하였다고 한다. 이는 왜 5왕 시대의 국제관계를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 지금부터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I. 將軍號를 통해 본 3국의 서열에 대한 통설

東晉·宋 시대, 고구려·백제·왜 3국에 대한 구체적 官爵을 明記한 첫 기사는 다음과 같다.

百濟 : “咸安二年(372)…六月 遣使拜百濟王餘句 爲鎮東將軍領樂浪太守.”(《晉書》簡文帝紀)

高句麗 : “晉安帝義熙九年(413) 遣長史高翼 奉表獻赭白馬. 以璽爲使持節·都督營州諸軍事·征東將軍·高句麗王·樂浪公.”(《宋書》夷蠻傳)

倭 : “元嘉十五年(438)夏四月己巳 以倭國王珍爲安東將軍.”(《宋書》夷蠻傳)

※ 단, 이보다 앞서 “高祖永初二年(421) 詔曰 倭讚 萬里修貢 遠誠宜甄. 可賜除授.”(《宋書》夷蠻傳)라는 기사가 있어, 除授된 내용은 전해져 있지 않으나, ‘安東將軍·倭國王’을 除授 받았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들 3국의 王이 받은 將軍號에 대한 기준 연구 – 坂元義種 씨의 연구 – 는 다음과 같다.

征東·鎮東·安東 3 將軍號는 《宋書》百官志에 따르면, 모두 제3품에 해당하며

정원은 1명이다. 그리고 3 將軍號와 관련한 四安(安東·安西·安南·安北) 將軍·四鎮將軍·四征將軍 임관에 관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四安將軍→四鎮將軍→四征將軍으로 승진한다는 점에서 서열은 높은 쪽부터 征東將軍→鎮東將軍→安東將軍의 순서였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宋에서 본 서열은 고구려왕(征東將軍)→백제왕(鎮東將軍)→왜국왕(安東將軍)이었고, 왜국왕의 지위는 백제왕보다 하위이며 3국 가운데 가장 하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坂元 씨의 견해가 통설이 되었다.²⁰⁾

II. 통설에 대한 의문 —왜국왕의 ‘都督百濟諸軍事’號 요구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통설에 따라 이해를 할 때 풀리지 않는 의문은 왜국왕이 ‘都督百濟諸軍事號’를 요구한 기사이다. 왜국왕은 438년 珍의 통치 아래, 使持節·安東(大)將軍·倭國王 외에 ‘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를 자칭하며 宋에 임명을 요청하였으나, 마지막까지 ‘都督諸軍事’號에 백제를 넣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都督諸軍事號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군사적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이 칭호가 바로 그 영역의 實效支配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²¹⁾

이러한 왜국왕의 요구에 대해, 예를 들면 江畑武 씨(1968년)는

20) 坂元義種 (1978년B) 제6장 참조

21) 최근 일본의 都督諸軍事號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예로, 熊谷公男 씨(2001년)가 기술한 내용을 여기에 인용하고자 한다.

“왜왕은 왜 본국 이외에 이곳 秦韓·慕韓에 任那(이는 왜왕으로서는 金官國 하나만의 뜻이 아니라 加耶 지역 전체를 가리켰다는 생각이었으리라), 거기에 백제·신라까지 포함한 지역의 군정권 승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니 이들 지역을 합하면 고구려 지배영역 이외의 한반도 남부 전체에 해당하는 셈이다. 왜왕은 고구려의 영역을 제외한 한반도 대부분 지역에 대한 군정권 승인을 宋왕조에 요청한 것이다.”

다만, 이는 왜국이 실제로 이 지역을 지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시기의 백제나 신라는 분명 독립국이었으며, 가야 소국들도 결코 왜의 지배 하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坂元義種 씨가 지적하였듯이, 이와 같은 칭호는 현실적으로 지배권을 확립하지 않았어도 자칭할 수 있었으며 임명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왜왕의 官爵을 통해 왜왕이 한반도 남부를 군사 지배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솔한 생각이다.”(72쪽)

“당시 일본보다 먼저 宋朝와 冊封 관계를 맺었고 將軍號 역시 일본보다 상위인 ‘鎮東將軍’을 받은 백제에 대해 일본은 그 諸軍事權을 요구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다.”(48쪽)

고 서술하였고, 또한 坂元義種 씨(1981년)는

“왜국왕의 칭호는 통솔하는 영역을 고려할 때 분명 왜국왕이 上級軍政官이어야 하는데, 핵심인 ‘將軍’號는 통솔하는 영역 내에 있는 ‘백제왕’보다 낮았던 것이다. …어쨌든, 왜국왕이 자칭한 칭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221쪽)

고 서술하였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朴鐘大 씨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冊封에서 백제는 鎮東大將軍이었고, 왜는 서열이 낮은 安東將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를 포함한 한반도 남부를 군사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라고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모두 將軍號의 서열에서 백제왕보다 낮은 왜국왕이 백제에 대한 군사적 지배권을 의미하는 ‘都督百濟諸軍事’號를 요구한다는 것은 논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평가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통설에 대한 소박한 의문이 생긴다. 본래 왜국왕은 백제왕보다도 하위인 將軍號를 가지고 있으면서 ‘백제’의 군사적 지배권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 宋이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鎮東(大)將軍인 백제왕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군사적 지배권을 安東(大)將軍인 왜국왕은 집요하게 계속 요구를 하였다. 宋의 책봉을 받고 스스로 희망하는 官爵을 자칭하며 임명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부하에게도 宋의 將軍號를 임시로 내린 뒤 임명을 요청한 왜국왕이 宋의 官爵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백제에 대한 군사적 지배권을 주장한 왜국왕은 ‘安東(大)將軍’의 지위라도 충분히 ‘都督百濟諸軍事’號를 요구할 수 있다고 여긴 것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본래 鎮東將軍과 安東將軍 사이에 상하우열 관계가 있었는지, 또는 적어도 왜국왕은 자신의 지위가 열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과 생각을 갖게 된다. 이하, 왜국왕의 ‘都督百濟諸軍事’號 요구문제를 통해 將軍號를 실마리로 한 3국의 서열평가에 대해 재검토하고자 한다.

III. 왜국왕의 ‘都督百濟諸軍事’號를 宋이 인정하지 않은 사정에 대해 – 坂元說 소개

宋이 거듭된 왜국왕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都督百濟諸軍事’號를 인정하지 않은 정황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논한 연구자는 坂元義種 씨이다(1981년). 坂元 씨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坂元 씨는 먼저 기존의 여러 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a) 백제의 對中 교섭이 왜보다 빨랐으며, 또한 (b) 그 교섭 횟수도 많았다는 점, 그리고 (c) 백제의 對中 교섭이 독립국의 교섭이었다는 점. 혹은 (d) 백제왕이 왜왕보다도 일찍 官爵號를 받았다는 점, (e) 이미 백제왕에게 ‘都督百濟諸軍事’를 인정한 점, 게다가 (f) 백제왕의 將軍號가 상위였다는 점. 이러한 점들은 모두 사실이며 각각 설득력도 가지고 있다.”(174~175쪽)

이와 같이 정리한 다음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왜국왕이 ‘都督百濟諸軍事’를 인정받지 못한 직접적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고 하며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建元元年(479년), 南齊에 사신을 파견한 가라국왕은 輔國將軍·加羅國王에 임명되었는데, 그 때 南齊는 前王朝인 宋이 왜왕에게 준 ‘都督加羅諸軍事’를 그대로 왜왕에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삭제한 혼적은 없다. 이는 독립외교, 나아가 독립왕국의 승인이 그 지역의 軍權을 타자에게 맡기는 것과 모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175쪽)

즉, ‘都督百濟諸軍事’號가 이미 백제왕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반해, ‘加羅’의 예를 통해 ‘都督百濟諸軍事’를 중복하여 왜국왕에게 내렸을 가능성도 宋의 제도상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1지역 2군권’이라고 부르며 서쪽의 河西王과 관련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다시 말해, 宋이 왜국왕에게 ‘都督百濟諸軍事’號를 주려고 맘만 먹으면 아무리 이미 백제왕에게 준 상태라 하여도 왜국왕에게 줄 수 있었으며, 宋이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았던 것은 宋의

北魏 봉쇄정책에 따라 백제를 중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즉, 중국 남조가 왜국왕에게 ‘都督百濟諸軍事’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백제왕에게 ‘都督百濟諸軍事’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이유에서가 아니었다. 그 이유는 남조가 막강한 적대국인 北魏를 옥죄기 위한 국제적 봉쇄고리 속에 백제를 확실하게 편입시켜 이 고리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남조의 국제정책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왜국왕이 백제의 군정권을 인정받지 못한 기본적 요인으로 宋朝의 국제정책을 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현상 하나가 宋朝의 여러 국왕에 대한 국제적 평가일 것이다. 국제적 평가란 구체적으로는 왜국왕이나 백제왕의 국제적 지위이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將軍號이다. 말하자면, 將軍號는 여러 국왕의 국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인 셈이다.

이 점을 근거로 하면, 왜국왕이 宋朝에 백제의 군정권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백제왕이 왜국왕보다 ‘席次’가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든가, 백제왕의 將軍號가 왜국왕보다 상위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本末顛倒한 주장일지도 모른다. 왜나하면, 宋朝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왜국왕의 軍號를 높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宋朝가 왜국왕의 국제적 역할을 백제왕을 평가하는 만큼 평가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며, 그 결과가 두 왕의 軍號 차이로 나타났던 것이다.

내 견해를 바탕으로 여러 설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백제의 對中 교섭이 빨랐다는 점, 교섭 횟수가 많았다는 점, 거기에 임관 시기가 빨랐다는 점은 그 나름대로 백제에 대한 宋朝의 국제적 평가를 높이는 테 도움을 주었고 백제의 지리적 상황과도 맞아 떨어져 백제왕의 국제적 지위는 왜국왕보다도 상위에 자리하게 되었다. 백제왕의 將軍號가 왜국왕의 將軍號보다 높은 것도 이를 반영한 한 현상이며 왜국왕이 백제의 군정권 —‘都督百濟諸軍事’의 加號— 을 요구하여 인정받지 못한 것도 또한 백제왕을 중시하는 한 현상이었다. 그 때 ‘都督百濟諸軍事’가 이미 국제적 평가가 높은 백제의 加號였다는 점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되풀이해 말하지만, 백제의 군정권이 이미 백제왕에게 있었다는 점만을 강조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1지역 2군권의 예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만약 왜국왕이 백제왕 이상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이미 ‘都督百濟諸軍事’가 백제왕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왜국왕의 요청은 별문제 없이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1지역 2군권 현상이 백제에도 있었을 것이다.”(~180쪽)

그리고, 將軍號와 ‘都督百濟諸軍事’ 요구의 관계를 논하며

“왜국왕의 칭호는 통솔하는 영역을 고려할 때 분명 왜국왕이 上級軍政官이어야 하는데, 핵심인 ‘將軍’號는 통솔하는 영역 내에 있는 ‘백제왕’보다 낮았던 것이다. … 어쨌든, 왜국왕이 자칭한 칭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216~217쪽)”

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IV. 坂元說의 검토 – 1지역 2군권설에 대해서 –

좀더 구체적으로 坂元 義種 씨의 견해를 소개하였는데, 요컨대 坂元 씨의 주장은 다음과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① 1지역 2군체의 존재를 통해 볼 때, 宋이 ‘都督百濟諸軍事’號를 왜국왕에게 인정하는 것은 제도상 가능하였다.
-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宋이 왜국왕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北魏 봉쇄라는 국제정책상 백제를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 ③ 將軍號도 宋의 국제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坂元 씨의 견해가 가진 기본은 ① 宋이 ‘都督百濟諸軍事’號를 왜국왕에게 인정하는 것은 제도상 가능하였다는 점에 있다. 坂元 씨는 “중국 남조는 동일 지역의 군사·행정권을 複數의 외국 왕들에게 인정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고 보고, 백제도 1지역 2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서술하였는데, 그 중요한 논거는 다음에 제시하는 사료이다.

[史料 19] 《南齊書》卷58 蟲傳

加羅國 三韓種也。建元元年 國王荷知使來獻。詔曰 量廣始登 延夷治化。加羅王荷知款關海外 奉贊東遐。可授輔國將軍・本國王。

倭國 … 建元元年 進新除使持節 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王武號爲鎮東大將軍。

(加羅國은 三韓의 種이다. 建元 元년에 國王 荷知의 사신이 와서 獻하였다. 詔를 내려 말하기를, “量廣始登 延夷治化. 加羅王荷知款關海外 奉贊東遐. 輔國將軍・本國王을 제수 합이 마땅하다.”

倭國 … 建元元年 新除使持節 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王 武의 號를 높여서 鎮東大將軍으로 삼았다.)

이 기사를 통해 ‘加羅國王’이 임명되어도 왜국왕이 가진 都督諸軍事號 속에서 ‘加羅’를 삭제한 흔적이 없으므로, ‘加羅’에 대한 군사권은 가라국왕과 왜국왕에게 동시에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는 建元元年에 가라국왕 冊封과 왜왕 進號의 朝貢 선후관계가 불분명하고, 왜왕의 進號가 먼저 있었을 가능성은 부정하

지 못한 채, 1지역 2군권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논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河西王의 중복 사례를 백제왕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百濟領까지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河南王 이외의 자들에게 ‘都督河南諸軍事’나 隣右王 이외의 자에게 ‘都督隣右諸軍事’를 수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그 영역의 일부는 분명 중복되어 있으나 왕이 지배하는 전 영역에 이르는 군사권을 다른 자에게 준 것은 아니다. 왜국왕이 요청한 ‘都督百濟諸軍事’란 전혀 그 성질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사실 坂元 씨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河南王과 宕昌王의 예를 포함하여 여러 국왕의 경우, 군정·민정을 불문하고 양자가 모두 중복되거나 한 쪽이 다른 쪽을 삼켜버린 예는 없다는 점이다. 河南王 拾寅의 군정 영역은 ‘西秦·河·沙’ 3주, 宕昌王 梁彌機는 ‘河·涼’ 2주. 다시 말해 양자 모두 겹치는 곳이 있으나 전자가 후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행정 영역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河南王은 ‘西秦·河’ 2주이며, 宕昌王은 ‘河·涼’ 2주이다. 또한 이 밖에 양자에게는 분명 왕의 이름으로 표시된 영역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국왕과 백제왕의 경우에는 백제왕의 군사 영역이 모두 왜국왕의 군사 영역으로 흡수당하게 되므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왜국왕과 백제왕의 칭호 관계는 상하 통솔 관계로 보기에도 왜국왕의 將軍號에 문제가 있으며, 여러 국왕 사이의 같은 영역에 대한 중복관계로 보기에는 백제왕의 영역이 왜국왕의 군사 영역에 포함되어 버린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228쪽~229쪽)

이처럼 왜국왕이 요구한 ‘都督百濟諸軍事’號는 1지역 2군사권의 대상으로, 제도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宋이 왜국왕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宋이 이미 백제왕에게 ‘都督百濟諸軍事’號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검토를 바탕으로, 다시 將軍號의 서열과 ‘都督百濟諸軍事’ 요구 문제를 살펴보면,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본래 왜국왕은 백제왕보다 하위의 將軍號이면서 ‘백제’의 군사적 지배권을 계속 요구하였던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라는 통설에 대한 소박한 의문이 생긴다. 만약 왜국왕이 자신의 ‘安東(大)將軍’號가 백제왕의 ‘鎮東(大)將軍’號보다 하위이고 ‘都督百濟諸軍事’ 요구가 부당한 요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백제왕과 동등한 鎮東(大)將軍 또는 더 상위인 征東(大)將軍을 자칭하여 그 임명을 요청하였을 것이다. 인정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칭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구려와 대결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한 왜국왕 武는 ‘開府儀三司’라는 고구려왕과 동등한 대우까지 자칭하여 임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將軍號는 일관되게 ‘安東(大)將軍’인 채로, 결코 ‘鎮東(大)將軍’ ‘征東(大)將軍’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왜 그랬던 것일까? 적어도 왜국왕은 백제의 군사적 지배권을 요구하는 데에 ‘安東(大)將軍’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고구려·백제·왜 3국의 국왕이 받은 將軍號에 서열이 있었다는 해석에 의문을 갖게 되며, 3국의 국왕이 받은 將軍號에 상하 관계가 있었고 이는 宋의 국제정책에 기초한 3국을 중시하는 정도를 반영한 것이라는 견해에도 재고 할 여지를 남긴다.

V. 征東(大)將軍 · 鎮東(大)將軍 ·

安東(大)將軍號의 서열

3국의 將軍號 서열에 관한 통설을 대표하는 예로, 거듭 坂元義種 씨(1981년)의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義熙 9년(413년), 東晉은 수십 년 만에 사신을 보낸 고구려왕에게 征東將軍을 내렸는데, 이 將軍號는 백제왕의 鎮東將軍보다 상위였다. 더구나 이 사이 咸安 2년(372년)에 백제왕인 餘句, 太元 11년(386년)에 백제왕인 餘暉가 각각 鎮東將軍에 임명되었고 咸安 2년·太元 9년에 朝貢도 있었다. 이는 對中 交涉 시기나 交涉 횟수의 많고 적음 또는 임관 시기의 선후가 반드시 임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임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중국 왕조의 국제정책이나 여러 국가에 대한 국제적 평가였을 것이다.”(175쪽)

즉, 백제왕이 鎮東將軍에 임명되고 40년 후, 고구려왕에게 백제왕보다 상위인 征東將軍을 제수하였다는 점을 중시하여, 임관 시기의 선후가 반드시 임관 내용(즉 將軍號의 상하)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하고 있다. 최근에는 仁藤敦史 씨(2004년)도 이와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고구려는 백제보다 늦게 朝貢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413년 - 石井)의 朝貢으로 백제왕의 鎮東將軍보다 지위가 높은 征東將軍을 제수 받았다는 점[坂元 씨 1978년], 《宋書》倭國傳의 위치 기재가 前代와 달리, ‘왜국은 高麗東南海中에 있다’고 달라진 점은 5세기의 고구려 우위라는 국제적 정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126쪽)

고 서술하고 있다. 확실히 고구려왕이 중국 왕조(남조)에서 將軍號를 제수받았다는 기사를 전해주는 첫 사료는 宋의 義熙 9년(413년)의 기사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고구려왕 釗(고국원왕)가 355년(前燕 元璽 4년)에 前燕에 遣使貢獻하여 ‘征東大將軍’號를 받았다는 점을 먼저 주목하고 싶다. 다만, 前燕은 이른바 5胡 16國에 속하므로 남조의 東晉·宋과는 같은 반열에 놓고 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남조와의 관계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고구려왕이 咸康 2년(336년)·建元元年(343년)에 남조의 東晉에 遣使朝貢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의 고구려왕은 모두 고국원왕으로, 《晉書》에는

[史料 20] 《晉書》卷7 成帝本紀

咸康二年(336)二月庚申 … 高句驪遣使貢方物.

(咸康 2年(336) 2月 庚申 … 高句驪가 遣使하여 方物을 바쳤다.)

[史料 21] 《晉書》卷7 康帝本紀

建元元年(343)十二月 … 高句驪遣使朝獻.

(建元 元年(343) 12月 … 高句驪가 遣使하여 朝獻하였다.)

라고 기록하였다. 遣使朝貢을 전해주는 기사뿐으로, 冊封 유무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같은 왕(고국원왕) 때 두 번에 걸친 朝貢으로, 적어도 두 번째 遣使朝貢 때에 東晉에서 어떤 將軍號를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고구려왕의 입장에서도 朝貢을 하면서 그 반대급부라고 할 만한 官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구려가 아무리 강국이라고 하더라도, 東晉·宋이 언제 朝貢해 올지 모르는 고구려를 위해서 東方將軍號 가운데 가장 상위인 征東將軍號를 비워둔 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구려보다 먼저 朝貢해 온 백제에게 征東將軍號를 주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백제왕에게 鎮東將軍을 주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고구려왕에게 征東將軍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372년에 백제왕이 鎮東將軍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336년 내지 343년 朝貢해 왔을 때 고구려왕에게 ‘征東將軍’號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중국 남조가 백제왕·고구려왕에게 將軍號를 수여하였다는 명확한 기사와 관련해서는 분명 백제왕(372년) 쪽이 빨랐지만, 사실에서는 고구려왕 쪽이 먼저였을 가능성은 높아, 336년 내지 343년의 入貢 때 東晉에서 ‘征東將軍’號를 받았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먼저 入貢한 백제왕(鎮東將軍)보다 나중에 入貢한 고구려왕(征東將軍) 쪽이 上位의 將軍號를 받았다고 하는 이해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생각한다. 이 문제는 坂元說의 중요한 논점인 만큼, 충분히 주의하여 두고자 한다.

먼저 入貢한 백제왕(鎮東將軍)보다 나중에 入貢한 고구려왕(征東將軍)이 상위의 將軍號를 받았다는 해석에 근거하면, 宋의 평가와 중시 정도를 반영한다는 견해가 나올 수 있지만, 앞에서 서술한 내 견해가 성립한다면, 이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즉, 3국과 중국 왕조의 관계에서 將軍號 수여 선후 관계에서 보면, 고구려→백제→왜 순서로, 고구려에 征東, 백제에 鎮東, 그리고 가장 늦은 왜에 安東이라는 將軍號를 수여한 셈이다. 각각 정원이 1명이고 좀 더 일찍 朝貢을 해 온 왕부터 순서대로 상위 將軍號를 수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일까? 다시 말해, 고구려·백제·왜 3국의 왕에게 수여한 東方將軍號는 3국의 對 중국 왕조 교섭 시작 순서대로 상위 將軍號를 수여한 것으로, 3국 국력의 강약이나 중국 왕조의 중시 정도 평가를 통해 서열을 나누어 제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확실히 고구려는 이 당시 최강국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 뿐 아니라 사실 관계에서 入貢이 빨랐다는 사실이 征東將軍號 수여로 이어졌음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

四征·四鎮·四安將軍號와 관련해서는, 坂元 씨가 밝혔듯이, 일반적으로 서열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왕·백제왕·왜왕이라는 東方 여러 국왕에게 수여한 征東·鎮東·安東將軍號와 관련해서는 각각 고유한 칭호로 기능을 하면서 계승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이해를 받아들인다면, 고구려왕·백제왕·왜국왕이 받은 征東·鎮東·安東將軍號에는 상하우열 관계가 없어 宋代에 3국 국왕 사이에 커다란 신분 차이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왜국왕이 ‘安東(大)將軍’이면서 ‘都督百濟諸軍事’號를 요구한 것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었던 것이다. 宋이 왜국왕에게 마지막까지 ‘都督百濟諸軍事’號를 주지 않았던 것은 이미 백제왕에게 ‘都督百濟諸軍事’號를 주었기 때문이지, 왜국왕의 將軍號가 白제왕의 將軍號보다 낮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맺음말

이상에서 安東(大)將軍인 왜국왕이 ‘都督百濟諸軍事’를 요구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왜국왕이 ‘安東大將軍’을 자칭하는데 그친 것은 그 칭호로도 충분히 ‘都督百濟諸軍事’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安東(大)將軍號가 鎮東(大)將軍號보다 낮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고구려왕=征東(大)將

軍 · 백제왕 = 鎮東(大)將軍 · 왜국왕 = 安東(大)將軍에는 언뜻 서열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남조(東晉 · 宋)에 入貢한 순서에 따라 東方將軍號 가운데 상위 將軍號부터 수여한 것으로, 남조측에서 格을 매기거나 국제적 평가에 의한 것도 아니며 상하우열 관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왜에 대한 평가가 고구려 · 백제보다 낮아 安東(大)將軍號로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5세기 일한 관계에 대해서, 왜 5왕 및 고구려왕 · 백제왕이 중국 왕조에서 받은 官爵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밖에도 논해야 할 문제는 많지만, 이번 테마와 관련하여 언급하면, 왜국왕이 ‘都督高句麗諸軍事’ 號를 요구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다시 말해, 왜국왕이 가진 염원에는 현실성이 있어, 고구려를 제외한 지역은 자신의 군사 지배권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왜국왕의 현황 인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가 하는 문제의 해명을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결 언

이상으로, 3장에 걸쳐 5세기 일한 관계에 대해서, 왜 5왕에 관한 여러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먼저 제1장에서는 東晉 義熙 9년(413년)에 入貢한 왜국 사신과 관련해서 고구려 共同入貢說 또는 倭人捕虜說은 성립하지 않고 일본열도의 왜 왕권이 파견한 사신으로 보아야 한다고 논하였다. 그 해에는 고구려도 약 70년만에 남조에 入貢을 하였고 직전까지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반복하던 왜·고구려 양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태를 타개하려고 도모하는 모습에 다시 한 번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통감한다. 다음으로 제2장에서는 왜국왕이 宋에서 받은 官爵 가운데 將軍號에 대해 이미 濟가 安東大將軍에 임명된 점을 서술하고 고구려왕의 征東大將軍, 백제왕의 鎮東大將軍과 비교하여 ‘大’將軍이라는 점에서는 손색이 없다는 점을 서술하였으며, 아울러 《宋書》의 倭國傳을 포함한 夷蠻傳에 대한 書誌的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고구려왕·백제왕·왜국왕이 받은 將軍號에는 서열이 있어 중국 왕조의 국제적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통설로 되어 있으나, 그 당시에는 중국 왕조에 入貢해 온 순서대로 東方將軍號 중 上位부터 내려준 것으로, 반드시 중국 왕조가 3국을 비교해 우월을 따져 내려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사건의 가부를 떠나, 기본적인 문헌사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는데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관련 사료, 특히 기사 내용은 풍부하지만 사료적으로 문제가 있는 《日本書紀》나 《三國史記》의 관련 기사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²²⁾ 또한 본론에서는 고고학의 성과를 거의 다루지 못하였지만, 문헌사료가 빈약한 5세기사의 연구에서는 특히 고고학의 성과를 포함한 종합적인 고찰이 중요해진다. 그 중에서도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분을 둘러싼 문제는 피장자 혹은 관련 있는 인물이 활약하던 시대가 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왜국왕이 요구한 ‘都督百濟 … 諸軍事’號의 배경에 있는 사정을 해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 향후, 지금까지 공동 연구를 통해 배운 성과를 기초로, 더욱 풍성한 고대 일한 관계사상을 그리는 노력을 지속해 가고자 한다.

22)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는 듯하며, 앞의 <주4>에 소개하였듯이 아주 최근의 성과로, 金鉉球 씨 외의 《日本書紀韓國關係記事研究》 I · II · III(한국一志社, 2002년·2003년·2004년)이 간행되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는 다음 기회에 미루고자 하지만, 본 논문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略年表와 문현 목록을 만들었으므로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

【文獻一覽】

- 池内宏, 1947 『日本上代史の一研究』 (초판 1947년. 인용은 中央公論美術出版, 1970年)
- 池田温, 1977 <義熙九年倭國獻方物をめぐって> (『江上波夫教授吉稀記念論集 歴史編』 山川出版社, 인용은 池田温 『東アジアの文化交流史』 吉川弘文館, 2002年 再録本)
- 莉木美行, 1996 <倭の五王に關する一考察> (『ヒストリア』 第153號)
- 今西春秋, 1972 <MANJU雜記 5> (『朝鮮學報』 63輯)
- 江畑武, 1968 <四~六世紀の朝鮮三國と日本>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輯)
- 岡崎晋明, 1998 <古代人の樂器と樂舞> (『考古學による日本歴史 12 藝術・學藝とあそび』)
- 川勝守, 2002 『聖德太子と東アジア世界』 吉川弘文館
- 川本芳昭, 1988 <倭の五王による劉宋遣使の開始とその終焉 -海上通行ルートからみた一試見-> (『東方學』 76)
- 川本芳昭, 1992 <四,五世紀の中國と朝鮮・日本>コラム <倭國の四一三年東晉遣使> (田村晃一 외 편 『新版 古代の日本2 アジアからみた古代日本』 角川書店)
- 熊谷公男, 2001 『日本の歴史03 大王から天皇へ』 (講談社)
- 高寛敏, 1995 <倭の五王と朝鮮> (『東アジア史研究』 第8號, 大阪經濟法科大學 アジア研究所)
- 坂元義種, 1978A <東アジアの世界 中國文獻よりみた古代日本の探求> (『日本史の謎と發見(1)』 每日新聞社)
- 坂元義種, 1978B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 坂元義種, 1981 <倭の五王 -空白の五世紀-』 (教育社)
- 杉本憲司・森博達, 1985 <『魏志』倭人傳を通讀する> (森浩一編 『日本の古代1』 中央公論社)
- 鈴木靖民, 2002 <倭國と東アジア> (同編 『倭國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 田中俊明, 2003 <倭の五王と朝鮮> (姜徳相先生古希・退職記念論文集刊行委員會 『日朝關係史論集』, 新幹社)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 社會科學院 考古學研究所, 1982 (呂南喆 외 譯) 『高句麗の文化』 제6장 <音樂・舞踊・曲藝> (同朋舍出版)
- 西嶋定生, 1985 『日本歴史の國際環境』 (東京大學出版會)
- 仁藤敦史, 2004 <ヤマト王權の成立> (歴史學研究會・日本史研究會編 『日本史講座 第1卷 東アジアにおける國家の形成』 東京大學出版會)
- 橋本增吉, 1956 『東洋史上より見たる 日本上古史研究』 (東洋文庫)
- 朴鐘大, 1985 <倭の五王上表文と韓日古代史の問題點> (『慶南史學』 2號)
- 前之園亮一, 2001 <倭の五王の通宋の開始と終焉について -辛酉革命説・戊午革命説から見た

- 場合-> (黛弘道編 『古代國家の政治と外交』 吉川弘文館)
- 宮崎市定, 1983 『謎の七支刀 五世紀の東アジアと日本』(中公新書)
- 湯淺幸孫, 1988 <倭の五王と日本國王 -書紀と中國史料> (『日本歴史』第483號)
- 吉村武彦, 1998 『古代天皇の誕生』(角川選書)
- 吉村武彦, 2003 <ワカタケル王と杖刀人首ヲワケ> (小川良祐 외 編 『ワカタケル大王とその時代』 山川出版社)
- 延敏洙, 1994 『古代韓日關係史』(본문 初出 1994年. 인용은 1998년 저서)

【年表】

4~5世紀 日韓關係略年表

石井正敏 作成

*凡例:

1. 本年表는, 論文 <5世紀의 日韓關係 – 倭의 五王과 高句麗·百濟>의 이해에 도움되기 위하여 작성한 高句麗·百濟·新羅·倭와 中國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略年表이다.
2. 5世紀의 日韓關係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4世紀 이후의 동아시아 정세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4世紀代부터 기술을 시작하였다.
3. 西曆에 이어 干支, 中國王朝의 元號, 高句麗·百濟·新羅의 王代를 기록하였다.
 ① 中國王朝의 元號는, 번거로움을 피해 東晉·宋 이외는 필요에 따라 소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年表에 등장하는 소위 五胡十六國~南北朝時代의 王朝의 興亡은 다음과 같다.

東晉(317~420) 宋(420~479) 齊(479~502)

前燕(337~370) 前秦(351~394) 後燕(384~409) 南燕(398~410)

北燕(409~436) 北涼(397~439) 北魏(386~534)

- ② 高句麗·百濟·新羅의 王代는 원칙으로서 『三國史記』 本紀에 의거하였는데 異說이 있는 경우는 [] 내에 표시하였다.
4. 『日本書紀』의 기사에 대해서는 紀年 등에 諸說 있기 때문에 別記하기로 하였다.
5. 史料에 보이는 内容을 기사로 한 것으로 물론 전부를 사실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記述에는 史料에 보이는 표현을 될 수 있는 한 존중하였다.
6. 주요 參考文獻은 다음과 같다.

佐伯有清, 1988 『三國史記倭人傳 他六篇』 (岩波文庫)

朝鮮史編修會, 1932·1933 『朝鮮史』 第1編 第1卷 『朝鮮史料』(1932年), 第2卷 『日本史料』(1932年), 第3卷 『支那史料』(1933年)

日本史料集成編纂會編, 1978 『中國·朝鮮の史籍における 日本史料集成』 (國書刊行會) 『三國高麗之部』

7. 出典에는 略稱을 사용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 | |
|-----------------|------------------------------------|
| 《遺事》 | →《三國遺事》 |
| 《遺事》 前百濟 | →《三國遺事》 卷2 南扶餘前百濟 |
| 《遺事》 順道肇麗 | →《三國遺事》 卷3 順道肇麗 |
| 《遺事》 難陀闢濟 | →《三國遺事》 卷3 難陀闢濟 |
| 《翰苑》 高麗 | →《翰苑》 卷30 高麗 |
| 《魏書》 封懿傳 | →《魏書》 卷32 封懿傳 |
| 《魏書》 程駿傳 | →《魏書》 卷60 程駿傳 |
| 《魏書》 房亮傳 | →《魏書》 卷72 房亮傳 |
| 《魏書》 馮跋傳 | →《魏書》 卷97 馮跋傳 |
| 《魏書》 高句麗傳 | →《魏書》 卷100 高句麗傳 |
| 《魏書》 禮志4-3 | →《魏書》 卷108 禮志4之3 |
| 《御覽》 攻具上 | →《太平御覽》 卷336 兵部67 攻具上條 |
| 《御覽》 障泥條 | →《太平御覽》 卷359 兵部90 障泥條所引
<三十國春秋> |
| 《御覽》 所引 <義熙起居注> | →《太平御覽》 卷981 香部 麝條所引
<義熙起居注> |
| 《元龜》 封冊1 | →《冊府元龜》 卷963 外臣部 封冊1 |
| 《元龜》 朝貢1 | →《冊府元龜》 卷968 外臣部 朝貢1 |
| 《高僧傳》 釋順道 | →《海東高僧傳》 卷1 流通 釋順道 |
| 《高僧傳》 釋摩羅難陀 | →《海東高僧傳》 卷1 流通 釋摩羅難陀 |
| 《史記》 | →《三國史記》 |
| 《史記》 地理志4 | →《三國史記》 卷37 地理志4 |
| 《書紀》 | →《日本書紀》 |
| 《晉書》 石勒下 | →《晉書》 卷105 輽記 石勒下 |
| 《晉書》 慕容皝 | →《晉書》 卷109 輽記 慕容皝 |
| 《晉書》 慕容儁 | →《晉書》 卷110 輽記 慕容儁 |
| 《晉書》 慕容盛 | →《晉書》 卷124 輽記 慕容盛 |
| 《晉書》 慕容熙 | →《晉書》 卷124 輽記 慕容熙 |
| 《晉書》 馮跋 | →《晉書》 卷125 輽記 馮跋 |
| 《宋書》 符瑞志下 | →《宋書》 卷29 符瑞志下 |
| 《宋書》 高句驪傳 | →《宋書》 卷97 夷蠻傳 高句驪 |
| 《宋書》 百濟傳 | →《宋書》 卷97 夷蠻傳 百濟 |

《宋書》 倭國傳	→《宋書》 卷97 夷蠻傳 倭國
《通鑑》	→《資治通鑑》
《南齊書》 百濟傳	→《南齊書》 卷58 東南夷傳 百濟(前欠)
《南齊書》 加羅國傳	→《南齊書》 卷58 東南夷傳 加羅國
《南齊書》 倭國傳	→《南齊書》 卷58 東南夷傳 倭國
《梁書》 百濟傳	→《梁書》 卷54 諸夷傳 百濟
《梁書》 高句麗傳	→《梁書》 卷54 諸夷傳 高句麗
《梁書》 倭傳	→《梁書》 卷54 諸夷傳 倭

[年表本文]

302年壬戌 晉永寧2(太安元) · 高句麗美川王3

9月, 高句麗王이 3만의 군을 이끌고 玄菟郡에 侵入, 8千人을 捕虜로 하여 平壤에 옮겼다(《史記》 高句麗本紀).

304年甲子 晉永安元(永興元) · 高句麗美川王5 · 百濟汾西王7(比流王元)

10月, 百濟 汾西王이 樂浪太守가 과격한 자객에 살해되다(《史記》 百濟本紀).

311年辛未 晉永嘉5 · 高句麗美川王12 · 百濟比流王8 · 新羅訖解尼師今2

8月, 高句麗가 遼東 西安平을 습격하여 취하다(《史記》 高句麗本紀).

312年壬申 晉永嘉6 · 高句麗美川王13 · 百濟比流王9 · 新羅訖解尼師今3

3月, 倭國王이 新羅에 遣使하여, 王子를 위해 혼인을 求하였다. 阿湗 急利의 딸을 이에 보내었다(《史記》 新羅本紀).

313年癸酉 東晉永嘉7(建興元) · 高句麗美川王14 · 百濟比流王10 · 新羅 訖解尼師今4

이 무렵 遼東의 張統이 樂浪·帶方2郡을 거점으로 高句麗와 싸우기를 數年에 이르렀다. 이해 統이 그 民 千餘家를 이끌고 慕容廆에 귀부하였다(《通鑑》 卷88).

10月, 高句麗가 樂浪郡을 침범하여 男女 2千餘人을 捕虜로 하다(《史記》 高句麗本紀).

314年甲戌 東晉建興2 · 高句麗美川王15 · 百濟比流王11 · 新羅訖解尼師今5

9月, 高句麗가 帶方郡에 침범하다(《史記》 高句麗本紀).

315年乙亥 東晉建興3·高句麗美川王16·百濟比流王12·新羅訖解尼師今6

2月, 高句麗가 玄菟郡을 공격하여 격파하였다(《史記》 高句麗本紀).

319年己卯 東晉太興2·高句麗美川王20·百濟比流王16·新羅訖解尼師今10

12月, 東晉의 平州刺史가 高句麗에 來奔하였다. 이 무렵 高句麗가 종종 遼東에 入寇하였다. 慕容廆가 兵을 보내어 高句麗를 쳤다. 高句麗王이 盟을 求하였기에, 慕容廆의 軍이 돌아갔다(《史記》 高句麗本紀).

330年庚寅 東晉咸和5·高句麗美川王31·百濟比流王27·新羅訖解尼師今21

이해, 高句麗·肅慎이 東晉에 楷矢를 바쳤다(《晉書》 石勒下).

336年丙申 東晉咸康2·高句麗故國原王6·百濟比流王33·新羅訖解尼師今27

正月, 慕容皝에 쫓긴 修壽 등이 高句麗에 도망하였다(《通鑑》 卷91).

2月, 高句麗가 東晉에 遣使하여 方物을 바쳤다(《晉書》 帝紀. 《史記》 高句麗本紀는 3月이라고 되어 있다).

337年丁酉 東晉咸康3·高句麗故國原王7·百濟比流王34·新羅訖解尼師今28

2月, 新羅가 百濟에 使者를 보내었다(《史記》 新羅本紀·百濟本紀)

339年己亥 東晉咸康5·前燕慕容皝3·高句麗故國原王9·百濟比流王36·新羅訖解尼師今30

이해, 前燕王 慕容皝이 高句麗를 쳤다. 高句麗王이 盟을 봉었다(《晉書》 慕容皝, 《通鑑》 卷96, 《史記》 高句麗本紀).

340年庚子 東晉咸康6·前燕慕容皝4·高句麗故國原王10·百濟比流王37·新羅訖解尼師今31

이해, 高句麗王이 世子를 보내어 前燕에 入朝하게 하였다(《晉書》 慕容皝, 《史記》 高句麗本紀).

341年辛丑 東晉咸康7·前燕慕容皝5·高句麗故國原王11·百濟比流王38·新羅訖解尼師今32

10月, 前燕의 渡遼將軍 慕容恪이 종종 高句麗를 격파하였다(《通鑑》 卷96).

342年壬寅 東晉咸康8·前燕慕容皝6·高句麗故國原王12·百濟比流王39·新羅訖解尼師今33

8月, 高句麗가 都를 丸都城으로 옮겼다(《史記》 高句麗本紀, 《遺事》 王曆).

이해, 前燕王 皝이 南北 2路로부터 高句麗를 쳤다. 前燕軍이 丸都에 들어가 高句麗王의 아비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母와 妻 및 珍寶를 빼앗아 돌아왔다(《晉書》 慕容皝, 《通鑑》 卷97, 《翰苑》 高麗).

343年癸卯 東晉建元元·前燕慕容皝7·高句麗故國原王13·百濟比流王40·新羅訖解尼師今34

2月, 高句麗王이 그 동생을 前燕에 보내었다. 臣을 칭하며 入朝하여 父王의 시신을 돌려줄 것을 請하였다. 前燕王이 이것을 허락하였는데 다만 그 母는 남게 하여 質로 삼았다(《晉書》 慕容皝, 《通鑑》 卷97, 《史記》 高句麗本紀).

7月, 高句麗가 居를 平壤 東黃城으로 옮겼다(《史記》 高句麗本紀·地理志4).

12月, 高句麗가 東晉에 遣使 朝獻하였다(《史記》 高句麗本紀).

344年甲辰 東晉建元2·高句麗故國原王14·百濟比流王41·新羅訖解尼師今35

2月, 倭國이 新羅에 遣使하여 혼인을 請하였다. 新羅가 여식이 이미 出嫁하였다 고 하여 거절하였다(《史記》 新羅本紀)

345年乙巳東晉永和元·前燕慕容皝9·高句麗故國原王15·百濟契王2·新羅訖解尼師今36

2月, 倭王이 新羅에 移書하여 관계를 끊었다(《史記》 新羅本紀).

10月, 前燕軍이 高句麗의 南蘇城을 공격하여 이기고, 戍을 두고 돌아왔다(《晉書》 慕容皝, 《通鑑》 卷97, 《翰苑》 高麗, 《史記》 高句麗本紀).

346年丙午 東晉永和2·高句麗故國原王16·百濟契王3(近肖古王元)·新羅訖解尼師今37

이해, 倭兵이 갑자기 新羅의 風島에 이르러 邊戶를抄掠하였다. 또 나아가 金城을 애위했다. 심하게 공격하였지만 食料가 떨어져 脫각하려고 할 즈음, 新羅軍이 追擊하여 이들을 패주시켰다(《史記》 新羅本紀).

349年己酉 東晉永和5·前燕燕元元·高句麗故國原王19·百濟近肖古王4·新羅訖解尼師今40

이해, 高句麗王이 亡命해 온 前東夷護軍 宋晃을 前燕에 보내었다(《通鑑》 卷9

8·99[永和10年條], 《史記》 高句麗本紀)

355年乙卯 東晉永和11·前燕元璽4·高句麗故國原王25·百濟近肖古王10·新羅訖解尼師今46

12月, 高句麗王이 前燕에 遣使하여 貢獻하고 質을 바쳤다. 그리고 그 모친의 송환을 請하였다. 前燕이 이것을 허락하여 使者를 보내어 그 모친을 돌려보내면서, 王으로 하여금 營州諸軍事·征東大將軍·營州刺史로 삼고 樂浪公에 봉하였다. 王(의 칭호)은 원래대로 두었다(《晉書》 慕容儁, 《通鑑》 卷100, 《史記》 高句麗本紀).

364年甲子東晉興寧2·高句麗故國原王34·百濟近肖古王19·新羅奈勿尼師今9

4月, 倭兵이 大舉 新羅에 이르렀다. 王이 이것을 듣고 풀로 偶人 數千을 만들어 옷을 입히고 무기를 갖게 하여 吐含山 아래에 열을 지워 세워두고는, 勇士 1千으로 하여금 斧峴의 동쪽 평원(東原)에 잠복하여 기다리게 하였다. 倭人이 (병사의) 수를 믿고 곧바로 나아갔다. 매복한 勇士를 동원하여 습격하여 크게 이기고 패주하는 웨인을 추격하여 大半을 죽였다(《史記》 新羅本紀).

※《書紀》 神功皇后攝政46年條 參照.

366年丙寅東晉太和元·高句麗故國原王36·百濟近肖古王21·新羅奈勿尼師今11

※《書紀》 神功皇后攝政46年條 參照

367年丁卯東晉太和2·高句麗故國原王37·百濟近肖古王22·新羅奈勿尼師今12

※《書紀》 神功皇后攝政47年條 參照

369年己巳東晉太和4·高句麗故國原王39·百濟近肖古王24·新羅奈勿尼師今14

이해, 百濟王이 '七支刀'를 만들다(?)(石上神宮所藏 '七支刀' 銘文)

※《書紀》 神功皇后攝政49年條 參照

370年庚午東晉太和5·前秦建元6·高句麗故國原王40·百濟近肖古王25·新羅奈勿尼師今15

이해, 高句麗王이 前秦에 쫓겨 도망해 온 前燕의 大傅 慕容評을 잡아 前秦에 돌려보내었다(《史記》 高句麗本紀).

※《書紀》 神功皇后攝政50年條 參照

371年辛未 東晉太和6(咸安元) · 高句麗故國原王41(小獸林王元) · 百濟近肖古王26 · 新羅奈勿尼師今16

10月, 百濟가 高句麗를 공격하여 高句麗왕을 죽였다(《史記》 高句麗本紀 · 百濟本紀).

이해, 百濟가 都를 漢山으로 옮겼다(《史記》 百濟本紀 · 地理志4, 《遺事》 王曆 · 前百濟).

※《書紀》 神功皇后攝政51年條 參照

372年壬申 東晉咸安2 · 前秦建元8 · 高句麗小獸林王2 · 百濟近肖古王27 · 新羅奈勿尼師今17

正月, 百濟가 東晉에 遣使하여 朝獻하였다(《晉書》 帝紀, 《元龜》 封冊1, 《史記》 百濟本紀).

6月, 東晉이 遣使하여 百濟왕 餘句(近肖古王)를 鎮東將軍領樂浪太守로 삼았다(《晉書》 帝紀, 《元龜》 封冊1)

同, 前秦이 使者 및 浮屠 順道 등을 高句麗에 보내어, 佛像 · 經文을 보내주었다.
佛教가 비로소 朝鮮에 전해졌다. 高句麗王이 遣使하여 감사하고 方物을 바쳤다
(《史記》 高句麗本紀, 《遺事》 卷3 · 順道肇麗, 《高僧傳》 卷1).

※《書紀》 神功皇后攝政52年條 參照

373年癸酉 東晉寧興元 · 高句麗小獸林王3 · 百濟近肖古王28 · 新羅奈勿尼師今18

2月, 百濟가 東晉에 遣使 朝貢하였다(《史記》 百濟本紀).

374年甲戌 東晉寧興2 · 高句麗小獸林王4 · 百濟近肖古王29 · 新羅奈勿尼師今19

이해, 東晉의 僧 阿道가 高句麗에 이르렀다(《史記》 高句麗本紀).

375年乙亥 東晉寧興3 · 高句麗小獸林王5 · 百濟近肖古王30(近仇首王元) · 新羅奈勿尼師今20

2月, 高句麗가 肖門寺(省門寺)를 창건하여 順道를 살게 하였다. 또 弗蘭寺를 창건하여 阿道를 살게 하였다(《史記》 高句麗本紀, 《遺事》 順道肇麗, 《高僧傳》 釋順道).

※《書紀》 神功皇后攝政55年條 參照

376年丙子東晉太元元 · 高句麗小獸林王6 · 百濟近仇首王2 · 新羅奈勿尼師今21

※《書紀》 神功皇后攝政56年條 參照

377年丁丑 東晉太元2·前秦建元13·高句麗小獸林王7·百濟近仇首王3·新羅奈勿尼師今22

春, 高句麗·新羅가 前秦에 遣使 入貢하였다(《通鑑》 卷104, 《史記》 高句麗本紀).

379年己卯 東晉太元4·高句麗小獸林王9·百濟近仇首王5·新羅奈勿尼師今24

3月, 百濟가 東晉에 遣使하였는데 海上에서 惡風을 만나 이르지 못하고 되돌아 왔다(《史記》 百濟本紀).

381年辛巳 東晉太元6·前秦建元17·高句麗小獸林王11·百濟近仇首王7·新羅奈勿尼師今26

2月, 東夷의 諸國이 前秦에 入貢하였다(《資治通鑑》 卷104).

이해, 新羅가 前秦에 遣使하여 方物을 바쳤다(《三國史記》 新羅本紀).

※年次는 檢討가 필요하다.

382年壬午 東晉太元7·前秦建元18·高句麗小獸林王12·百濟近仇首王8·新羅奈勿尼師今27

9月, 東夷의 5國이 東晉에 遣使 朝貢하였다. (《晉書》 帝紀)

이해, 新羅王 樓寒(奈勿王?)이 使者를 前秦에 보내었다.

※《書紀》 神功皇后攝政62年條 參照

384年甲申 東晉太元9·高句麗小獸林王14(故國壤王元)·百濟近仇首王10(忱流王元)·新羅奈勿尼師今29

7月, 百濟가 東晉에 遣使 朝貢하였다. (《晉書》 帝紀, 《梁書》 百濟傳, 《史記》 百濟本紀)

9月, 胡僧 摩羅難陀가 東晉에서 百濟에 이르렀다. 百濟의 佛法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史記》 百濟本紀, 《遺事》 難陀闡濟, 《高僧傳》 釋摩羅難陀)

※《書紀》 神功皇后攝政64年條 參照

385年乙酉 東晉太元10·高句麗故國壤王2·忱流王2(辰斯王元)·新羅奈勿尼師今30

6月, 高句麗가 遼東·玄菟 2郡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11月, 後燕이 高句麗를 쳐서, 2郡을 회복시켰다. (《梁書》 高句麗傳, 《通鑑》 卷106, 《史記》 高句麗本紀)
※《書紀》 神功皇后攝政65年條 參照

386年丙戌 東晉太元11·高句麗故國壤王3·辰斯王2·新羅奈勿尼師今31

4月, 東晉이 百濟 王世子 餘暉(辰斯王, 一說에는 阿莘王)로 하여금 使持節·都督·鎮東將軍·百濟王으로 삼았다(《晉書》 帝紀, 《元龜》 封冊1).
8月, 高句麗가 百濟를 공격하였다(《史記》 高句麗本紀·百濟本紀).

389年己丑 東晉太元14·高句麗故國壤王6·辰斯王5·新羅奈勿尼師今34

9月, 百濟가 高句麗의 南邊을 침략하였다(《史記》 百濟本紀·高句麗本紀).

390年庚寅 東晉太元15·高句麗故國壤王7·百濟辰斯王6·新羅奈勿尼師今35

9月, 百濟가 高句麗를 공격하여, 都坤城을 攻略하였다(《史記》 百濟本紀·高句麗本紀).

이해, 倭王의 使者가 新羅에 이르러 王子의 과견을 요구하였다. 奈勿王이 第三子 美海(未叱喜)를 보내었다. 倭王은 美海를 머무르게 하여 돌려보내지 않은 지 30년이 되었다. 美海가 金堤上의 책략에 의해 도망쳐 돌아왔다(《三國遺事》 紀異第一, 奈勿王, 金堤上條)

※本文에는 “那密王卽位三十六年庚寅”으로 되어 있다.

391年辛卯 東晉太元16·高句麗故國壤王8(廣開土王元)·百濟辰斯王7·新羅奈勿尼師今

36

이해, “倭以辛卯來渡海破百殘□□新羅以爲臣民...” (《廣開土王碑文》)

392年壬辰 東晉太元17·高句麗故國壤王9(廣開土王元[2])·百濟辰斯王8(阿莘王元)·新羅奈勿尼師今37

正月, 高句麗가 新羅에 遣使하여 修好하였다. 新羅王이 高句麗의 강성함에 따라 王의 姪 實聖을 質로 삼아 보내었다(《史記》 高句麗本紀·新羅本紀).

3月, 高句麗가 佛法의 崇信을 명하고 國社를 세우고 宗廟를 수조하였다(《史記》 高句麗本紀)

7月, 高句麗 廣開土王이 兵4萬을 이끌고 百濟를 쳐서, 石峴城 등 10餘城을 함락시키고, 10月, 百濟 北邊의 요충지(襟要)인 關彌城을 공략하였다(《史記》 高句

麗本紀·百濟本紀).

※《書紀》 應神天皇3年條 參照

393年癸巳 東晉太元18·高句麗廣開土王2(3)·百濟阿莘王2·新羅奈勿尼師今38

5月, 倭人이 와서 金城을 애워쌌는데 5일이 되어도 풀지 않았다. 將士가 城에서 나와 싸울 것을 請하였다. 王이 말하기를, “지금 적은 배를 버리고 깊이 들어와 死地에 있다. 부딪쳐 싸워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城門을 닫았다. 賊은 功이 없이 퇴각하였다. 王이 먼저 勇騎 二百을 보내어, 그 歸路를 차단하게 하고 또 步卒 一千을 보내어 獨山으로 추격하게 하였다. 挾擊하여 크게 이겼다 (《史記》 新羅本紀).

8月, 百濟가 關彌城의 탈환을 도모하였지만 실패하였다(《史記》 百濟本紀·高句麗本紀).

이해, 高句麗가 平壤에 9寺를 建立하였다(《史記》 高句麗本紀).

394年癸巳 東晉太元19·高句麗廣開土王3(4)·百濟阿莘王3·新羅奈勿尼師今39

7月, 百濟가 高句麗를 공격하여 水谷城 아래에서 싸웠지만 擊退되었다(《史記》 百濟本紀·高句麗本紀).

8月, 高句麗가 百濟의 侵攻에 대비하여 國南에 7城을 구축하였다(《史記》 高句麗本紀).

395年乙未 東晉太元20·後燕建興10·高句麗廣開土王4(5)·百濟阿莘王4·新羅奈勿尼師今40

8月, 百濟가 高句麗를 공격하였는데, 湟水에서 王이 이끄는 高句麗軍에 大敗하였다(《史記》 百濟本紀·高句麗本紀).

이해, 後燕이 高句麗王을 平州牧으로 삼고 遼東·帶方 二國王에 봉하였다. 高句麗王이 비로소 長史·司馬·參軍의 官을 두었다(《梁書》 高句麗傳).

396年丙申 東晉太元21·高句麗廣開土王5(6)·百濟阿莘王5·新羅奈勿尼師今41

이해, 高句麗王이 스스로 水軍을 이끌고 百濟를 쳐서 격파하였다. 百濟王이 男女 生口 1000人 등을 바치고 王에게 귀복하여 영원히 奴客이 될 것을 맹세하였다. 高句麗王이 百濟王弟·大臣 등을 데리고 개선하였다(《好太王碑文》).

397年丁酉 東晉隆安元·高句麗廣開土王6(7)·百濟阿莘王6·新羅奈勿尼師今42

5月, 百濟王이 倭國과 우호를 맺고 太子 膽支로서 質로 삼았다(《史記》 百濟

本紀).

398年戊戌 東晉隆安2·高句麗廣開土王7(8)·百濟阿莘王7·新羅奈勿尼師今43
8月, 百濟가 高句麗 遠征을 기도하였다가 중지하였다(《史記》 百濟本紀).

399年己亥 東晉隆安3·後燕建平2(長樂元)·高句麗廣開土王8(9)·百濟阿莘王8·新羅奈勿尼師今44

8月, 百濟가 高句麗 遠征을 도모하여 징병하였는데 民의 다수가 新羅로 도망하였다(《史記》 百濟本紀).

이해, 百殘(百濟)이 高句麗와의 誓約을 어기고, 倭와 和通하였다. 新羅使가 高句麗王에게 이르러 “倭人이 國境에 가득 차 있고, 城池를 파괴하며‘奴客’을倭의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新羅王은 高句麗王에게 귀복하여, 命을 請합니다.”라고 전하였다(《廣開土王碑文》).

이 무렵(長樂中), 高句麗, 後燕에 遣使 朝貢하였다(《晉書》 慕容盛).

400年庚子 東晉隆安4·後燕長樂2·高句麗廣開土王9(10)·百濟阿莘王9·新羅奈勿尼師今45

正月, 高句麗이 後燕에 遣使 朝貢하였다(《史記》 高句麗本紀).

2月, 後燕王이 高句麗王의 오만한 자세에 스스로 병사를 이끌고 高句麗를 습격하여 新城·南蘇를 공략하고 귀환하였다(《晉書》 慕容盛, 《通鑑》 卷111, 《史記》 高句麗本紀).

이해, 高句麗王이 步騎 5萬을 보내어 新羅를 구원하였다. 男居城부터 新羅城에 이르기까지,倭가 그 속에 가득 차 있었다. 高句麗兵이 이르자마자倭賊이 물려났다(《廣開土王碑文》).

401年辛丑 東晉隆安5·高句麗廣開土王10(9)·百濟阿莘王10·新羅奈勿尼師今46

7月, 高句麗의 質이 되어 있던 實聖이 新羅로 돌아갔다(《史記》 新羅本紀).

402年壬寅 東晉元興元·後燕光始2·高句麗廣開土王11(12)·百濟阿莘王11·新羅奈勿尼師今47(實聖尼師今元)

2月, 新羅가倭國과 通好하고 王子 未斯欣을 質로 하였다(《史記》 新羅本紀·朴堤上傳).

5月, 高句麗가 後燕의 宿軍城을 공격하였다(《通鑑》 卷112).

同, 百濟가 倭國에 遣使하여 大珠를 구하였다(《史記》百濟本紀).

403年癸卯 東晉元興2·高句麗廣開土王12(13)·百濟阿莘王12·新羅實聖尼師今2
 2月, 倭國의 使者가 百濟에 이르렀다. 百濟왕이 두텁게 맞이하였다(《史記》百濟本紀).
 7月, 百濟가 新羅의 邊境에 侵入하였다(《史記》新羅本紀·百濟本紀).

404年甲辰 東晉元興3·後燕光始4·高句麗廣開土王13(14)·百濟阿莘王13·新羅實聖尼師今3
 이해, 高句麗가 後燕에 侵入하였다(《通鑑》卷113. 《史記》高句麗本紀, 11月로 되어 있다).
 이해, 倭가 不軌하게도 高句麗 帶方界에 侵入하였다. 倭寇가 폐배하여 慘殺되는 자가 무수히 많았다(《廣開土王碑文》).

405年乙巳 東晉義熙元·後燕光始5·高句麗廣開土王14(15)·百濟阿莘王14(腆支王元)·新羅實聖尼師今4
 正月, 後燕, 高句麗를 치고, 遼東城을 공격하였다(《通鑑》卷114, 《御覽》攻具上條, 《史記》高句麗本紀)
 4月, 倭兵이 明活城을 공격하였는데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王이 騎兵을 이끌고, 獨山의 남쪽에서 倭兵을 폐배시키고 300餘級을 죽였다(《史記》新羅本紀).
 이해, 百濟왕이 薦하였다. 王의 仲弟인 訓海가 政을 장악하고 倭에 滯在하는 太子 腆支의 歸國을 기다렸다. 季弟인 碟禮, 訓海를 죽이고 스스로 王이 되었다. 腆支가 計報를 듣고 읍소하며 귀국을 청하였다. 倭王이 兵士 百人으로써 호송하게 하였다. 한참 지나 國界에 이르렀다. 漢城 사람 解忠이 와서 고하여 말하기를 “大王이 세상을 버렸습니다, 王弟 碟禮가 兄을 죽이고 스스로 즉위하였습니다. 頗하건대 太子는 경솔하게 들어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腆支가 倭人을 머무르게 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며, 海島에 의거하며 이에 기다렸다. 國人이 碟禮를 죽이고 腆支를 맞이하여 즉위하게 하였다(《史記》百濟本紀).

406年丙午 東晉義熙2·後燕光始6·高句麗廣開土王15(16)·百濟腆支王2·新羅實聖尼師今5
 正月, 後燕이 高句麗를 쳐서, 木底城을 공격하였지만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晉書》慕容熙, 《通鑑》卷114, 《史記》高句麗本紀).

2月, 百濟가 東晉에 遣使하여 朝貢하였다(《史記》 百濟本紀).

407年丁未 東晉義熙3·高句麗廣開土王16(17)·百濟腆支王3·新羅實聖尼師今6

3月, 倭人이 新羅의 東邊을 침범하였다(《史記》 新羅本紀).

6月, 倭人이 또 新羅의 南邊을 침입하고 百人을 약탈하였다(《史記》 新羅本紀).

이해, 高句麗王이 步騎 5萬을 파견하였다. [倭 혹은 백제와?] 교전하여 대승을 거두고 甲冑 1萬領 및 多數의 武器·武具를 수습하였다(《好太王碑文》).

408年戊申 東晉義熙4·高句麗廣開土王17(18)·百濟腆支王4·新羅實聖尼師今7

2月, 新羅王은 倭人이 對馬島에 营所를 두고 兵革資糧을 비축하여 新羅를 습격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먼저 精兵을 뽑아 兵儲를 격파하려고 하였다. 舒弗那未資品이 防御에 힘써야 할 것을 말하였는데, 王이 이에 따랐다(《史記》 新羅本紀).

3月, 高句麗가 北燕에 遣使하여 宗族에 叙位되었다(《通鑑》 卷114, 《史記》 高句麗本紀).

409年己酉 東晉義熙5·高句麗廣開土王18(19)·百濟腆支王5·新羅實聖尼師今8

이해, 倭國이 百濟에 遣使하여 夜明珠를 보내었다. 百濟王이 優禮로서 이것을 기다렸다(《史記》 百濟本紀).

410年庚戌 東晉義熙6·高句麗廣開土王19(20)·百濟腆支王6·新羅實聖尼師今9

2月, 東晉의 劉裕(뒤에 宋의 武帝)가 山東半島에 있는 南燕을 멸망시켰다. 이보다 이전에, 高句麗가 南燕에 千里馬·生羆皮의 障泥를 바쳤다. 南燕王 慕容超(在位 405~410)가 크게 기뻐하며 水牛·能言鳥로써 보답하였다(《御覽》 障泥條).

412年壬子 東晉義熙8·高句麗廣開土王21(22)·百濟腆支王8·新羅實聖尼師今11

이해, 新羅가 高句麗의 요구에 응하여 奈勿王의 아들(未斯欣의 동생)卜好를 質로 하여 보내었다(《史記》 朴堤上傳·新羅本紀)

413年癸丑 東晉義熙9·高句麗廣開土王22(23), 長壽王元·百濟腆支王9·新羅實聖尼師今12

이해, 高句麗王 瑞(長壽王)이 東晉에 長史를 파견하여 처음으로 表를 바치며 朝

貢하였다. 東晉이 瑕을 使持節·都督營州諸軍事·征東將軍·高句麗王·樂浪公으로 삼았다(《晉書》帝紀, 《宋書》高句麗傳, 《梁書》高句麗傳, 《元龜》封冊1, 《史記》高句麗本紀,).

同, 倭國이 東晉에 方物을 바쳤다(《晉書》帝紀, 《御覽》所引 <義熙起居注>).

※ <義熙起居注>에 대해서는 本論 第1章을 參照.

415年乙卯 東晉義熙11·高句麗長壽王3·百濟腆支王11·新羅實聖尼師今14

8月, 新羅가 風島에서 倭人과 싸워 이겼다(《史記》新羅本紀).

416年丙辰 東晉義熙12·高句麗長壽王4·百濟腆支王12·新羅實聖尼師今15

이해, 東晉이 百濟王 餘映(腆支王)을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將軍·百濟王으로 하였다(《宋書》百濟傳, 《元龜》封冊1. 《史記》百濟本紀에 “東晉安帝王이 遣使하여…”라고 나오고, 《梁書》百濟傳에 “義熙中, 王餘映이 生口를 바쳤다”라고 보인다).

418年戊午 東晉義熙14·高句麗長壽王6·百濟腆支王14·新羅訥祇麻立干2

夏, 百濟가 倭國에 遣使하여, 白綿 10匹을 보내었다(《史記》百濟本紀).

秋, 新羅王의 동생 未資欣, 倭國으로부터 도망쳐 돌아오다(《史記》新羅本紀·朴堤上傳, 《遺事》金堤上傳).

※《書紀》神功攝政5年3月己酉條 參照.

420年庚申 宋永初元·高句麗長壽王8·百濟腆支王16(久爾辛王元)·新羅訥祇麻立干4

6月, 東晉이 滅亡하고 宋이 建國되었다.

7月, 宋이 征東將軍 高句麗王 高璗을 征東大將軍에, 鎮東將軍 百濟王 扶餘映을 鎮東大將軍으로 進號하였다(《宋書》本紀. 《元龜》封冊1-다면 高句麗王 이 야기는 보이지 않는다).

421年辛酉 宋永初2·高句麗長壽王9·百濟久爾辛王2·新羅訥祇麻立干5

이해, 宋帝가 詔를 내려 “倭讚이 萬里修貢 …除授를 내려주어야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422年壬戌 宋永初3·高句麗長壽王10·百濟久爾辛王3·新羅訥祇麻立干6

이해, 宋이 高句麗王에게 散騎常侍를 더하여 주고, 督平州諸軍事를 더하여 주었

다(《宋書》 高句麗傳).

423年癸亥 宋景平元·高句麗長壽王11·百濟久爾辛王4·新羅訥祇麻立干7

3月, 高句麗가 宋에 遣使 朝貢하였다(《宋書》 本紀, 《元龜》 朝貢1).

424年甲子 宋景平2(元嘉元)·高句麗長壽王12·百濟久爾辛王5·新羅訥祇麻立干8

正月, 高句麗王이 宋에게 長史 馬婁 등을 보내어 貢獻하였다. 宋 皇帝가 遣使하여 慰勞詔書를 내려주었다(《宋書》 本紀·高句麗傳, 《元龜》 朝貢1).

2月, 新羅가 高句麗에 遣使 修聘하였다(《史記》 新羅本紀·高句麗本紀).

이해, 百濟王이 宋에 長史 張威를 과견하여 貢獻하였다(《宋書》 百濟傳).

425年乙丑 宋元嘉2·北魏始光2·高句麗長壽王13·百濟久爾辛王6·新羅訥祇麻立干9

이해, 宋皇帝가 遣使하여 百濟王에게 慰勞詔書를 내려주었다(《宋書》 百濟傳).

同,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 朝貢하였다(《史記》 高句麗本紀).

同, 倭王 蔽이 宋에 司馬 曹達을 보내어 表를 바치고 方物을 바쳤다(《宋書》 倭國傳, 《元龜》 封冊1).

427年丁卯 宋元嘉4·高句麗長壽王15·百濟久爾辛王8(毗有王元)·新羅訥祇麻立干11

이해, 高句麗가 都를 平壤으로 옮겼다(《史記》 高句麗本紀, 《遺事》 王曆).

428年戊辰 宋元嘉5·高句麗長壽王16·百濟毗有王2·新羅訥祇麻立干12

2月, 倭國 사신이 百濟에 이르렀다. 從者는 50人이었다(《三國史記》 百濟本紀).

429年己巳 宋元嘉6·高句麗長壽王17·百濟毗有王3·新羅訥祇麻立干13

7月, 百濟王이 宋에 遣使하여 方物을 바쳤다(《宋書》 本紀, 《史記》 百濟本紀).

430年庚午 宋元嘉7·高句麗長壽王18·百濟毗有王4·新羅訥祇麻立干14

正月, 倭國王이 宋에 遣使하여 方物을 바쳤다(《宋書》 本紀, 《元龜》 朝貢1).

이해, 百濟王 餘毗(毗有王)가 또다시 貢職을 담았다. 宋이 餘毗에게 前王 餘映의 爵號를 수여하여 주었다

(《宋書》 百濟傳, 《元龜》 封冊1. 《史記》 百濟本紀는 4月로 되어 있다).

※『魏書』 百濟傳 “元嘉中，王餘毗遣獻生口。”

431年辛未 宋元嘉8·高句麗長壽王19·百濟毗有王5·新羅訥祇麻立干15

4月, 倭兵이 新羅의 東邊을 침입하여, 明活城을 애워쌌다. 功 없이 물러갔다(『史記』 新羅本紀).

433年癸酉 宋元嘉10·高句麗長壽王21·百濟毗有王7·新羅訥祇麻立干17

7月, 百濟가 新羅에 遣使하여 和를 請하였다(『史記』 百濟本紀·新羅本紀).

434年庚戌 宋元嘉11·高句麗長壽王22·百濟毗有王8·新羅訥祇麻立干18

2月, 百濟가 新羅에 遣使하여 良馬를 보내었다(『史記』 百濟本紀·新羅本紀).

9月, 百濟가 新羅에 白鷹을 보내었다(『史記』 百濟本紀·新羅本紀).

10月, 新羅가 百濟에 보답으로 黃金明珠를 보내었다(『史記』 新羅本紀·百濟本紀).

435年乙亥 宋元嘉12·北魏太延元·高句麗長壽王23·百濟毗有王9·新羅訥祇麻立干19

6月, 高句麗王이 비로소 北魏에 遣使하여 表를 바치고 方物을 바쳤다. 아울러 國諱를 請하였다. 北魏의 世祖가 詔를 내려, 帝系 名諱를 高句麗에 주고, 使者를 과견하여, 璇을 都督·遼海諸軍事·征東將軍·領護東夷中郎將·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으로 삼았다(『魏書』 帝紀·高句麗傳, 『資治通鑑』 卷122, 『史記』 高句麗本紀).

11月, 이보다 앞서, 北魏가 종종 北燕을 쳤다. 이 달, 北燕王 馮弘이 몰래 사인을 高句麗에 보내어 망명하면 받아줄 것을 請하였다(『資治通鑑』 卷122, 『史記』 高句麗本紀).

436年丙子 宋元嘉13·北魏太延2·高句麗長壽王24·百濟毗有王10·新羅訥祇麻立干20

2月, 北魏, 使者 10餘人을 高句麗 및 東夷 諸國에 보내고, 詔喻하게 하였다(『魏書』 帝紀).

5月, 北魏가 北燕을 공격하였다. 北燕王 馮弘, 高句麗로 도망하였다. 北魏가 馮弘의 送還을 요구하였지만, 高句麗가 따르지 않았다. 北魏가 高句麗 征伐을 도모하였지만 중지하였다(『魏書』 帝紀·高句麗傳, 『通鑑』 卷123, 『史記』 高句麗本紀).

6月, 高句麗가 宋에 遣使하여 方物을 바쳤다(『宋書』 本紀, 『元龜』 朝貢1).

437年丁丑 宋元嘉14·北魏太延3·高句麗長壽王25·百濟毗有王11·新羅訥祇麻立干21
2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 朝獻하였다(《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438年戊寅 宋元嘉15·高句麗長壽王26·百濟毗有王12·新羅訥祇麻立干22
3月, 高句麗가 北燕王 馮弘을 죽였다(《魏書》 本紀·馮跋傳, 《晉書》 馮跋, 《通鑑》 卷123, 《史記》 高句麗本紀)
4月, 倭國王 讀의 동생 珍이 宋에 遣使 貢獻하였다.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을 自稱하며 除正을 요구하였다. 宋이 安東將軍·倭國王에 제수하였다. 珍이 또한 倭隋 등 13人을 平西·征虜·輔國將軍 등에 除正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詔를 내려 모두 허락하였다(《宋書》 本紀·倭國傳, 《元龜》 朝貢1·封冊1).
이해, 高句麗가 宋에 遣使하여 方物을 바쳤다(《宋書》 本紀, 《元龜》 朝貢1).

439年己卯 宋元嘉16·北魏太延5·高句麗長壽王27·百濟毗有王13·新羅訥祇麻立干23
9月, 北魏가 北涼을 멸망시키고 華北을 통일하였다. 南北朝時代가 시작되었다.
11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 朝獻하였다(《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이해, 宋이 北魏 征討를 위해, 高句麗에게 말을 요청하였다. 高句麗가 馬 800頭를
바쳤다(《宋書》 本紀·高句驪傳).
同,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 朝獻하였다(《魏書》 本紀).
同, 高句麗가 宋에 遣使하여 方物을 바쳤다(《元龜》 朝貢1).

440年庚辰 宋元嘉17·高句麗長壽王28·百濟毗有王14·新羅訥祇麻立干24
某月, 倭人이 新羅의 南邊을 침입하여, 生口를 약탈하고 사라졌다(《史記》 新羅本紀).
6月, 倭人이 또 東邊을 침입하였다(《史記》 新羅本紀).
이해, 百濟가 宋에 遣使하여 方物을 바쳤다(《宋書》 本紀, 《元龜》 朝貢1. 《史記》 百濟本紀는 10月로 되어 있다).

441年辛巳 宋元嘉18·高句麗長壽王29·百濟毗有王15·新羅訥祇麻立干25
이해, 高句麗가 宋에 遣使하여 方物을 바쳤다(《宋書》 本紀).

443年癸未 宋元嘉20·高句麗長壽王31·百濟毗有王17·新羅訥祇麻立干27
이해, 高句麗·百濟·倭가 宋에 遣使하여 方物을 바쳤다(《宋書》 本紀, 《元龜》

朝貢1). 倭國王 濟를 다시 安東將軍·倭國王으로 하였다(《宋書》倭國傳, 《元龜》封冊1).

444年甲申 宋元嘉21·高句麗長壽王32·百濟毗有王18·新羅訥祇麻立干28

4月, 倭兵이 新羅의 金城을 포위하였다. 열흘 있다가 식량이 떨어져 이에 돌아갔다. 王이 兵을 내어 이들을 추격하게 하였다. 左右의 사람이 죽지 말 것을 諫하였지만, 王이 듣지 않았다. 數千餘騎를 이끌고 추격하여 獨山의 동쪽에서 싸웠다. 賊에게 패하여, 將士 중에 죽은 자가 반을 넘었다. 王이 馬를 버리고 산에 올라갔다. 賊이 이를 몇 겹으로 포위하였다. 갑자기 昏霧가 있어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賊이 陰助가 있다고 말하고, 兵을 거두어 돌아갔다(《史記》新羅本紀).

450年庚寅 宋元嘉27·高句麗長壽王38·百濟毗有王24·新羅訥祇麻立干34

正月, 百濟王이 사직으로 臺使 馮野夫를 西河太守를 假하여 宋에 보내어, 上表하여 《易林式占》·腰弩를 구하였다. 宋이 이것을 주었다(《宋書》本紀·百濟傳, 《元龜》朝貢1).

7月, 新羅 何瑟羅城主가 悉直之原에서 高句麗의 邊將을 죽였다. 高句麗王이 노하여 兵을 일으켜 新羅의 西邊에 侵入하였으나, 新羅王이 遣使하여 謝罪하므로, 兵을 거두었다(《史記》新羅本紀·高句麗本紀).

451年辛卯 宋元嘉28·高句麗長壽王39·百濟毗有王25·新羅訥祇麻立干35

10月, 高句麗가 宋에 遣使 朝貢. (《宋書》本紀)

이해, 宋이 安東將軍·倭國王 濟에게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를 더하여 주고, 安東將軍[本紀‘安東大將軍’]으로 올렸다. 또 濟의 요청에 의해, 그 부하 23人을 軍·郡에 제수하였다(《宋書》本紀·倭國傳, 《元龜》封冊1은 7月로 함)

453年癸巳 宋元嘉30·高句麗長壽王41·百濟毗有王27·新羅訥祇麻立干37

11月, 高句麗가 宋에 遣使하여 方物을 바쳤다(《宋書》本紀).

454年甲午 宋元嘉31(孝建元)·高句麗長壽王42·百濟毗有王28·新羅訥祇麻立干38

8月, 高句麗가 新羅의 北邊에 侵入(《史記》高句麗本紀·新羅本紀).

455年乙未 宋孝建2·高句麗長壽王43·百濟毗有王29(蓋鹵王元)·新羅訥祇麻立干39

10月, 高句麗가 百濟에 侵入. 新羅, 百濟에 救援의 兵을 보내었다(《史記》 高句麗本紀·新羅本紀).

11月, 高句麗王이 宋에 長史를 보내어, 表를 바치며 國哀再周(文帝의 周忌)를 위문하고, 方物을 바쳤다(《宋書》 本紀·高句麗傳, 《史記》 高句麗本紀).

457年丁酉 宋大明元·高句麗長壽王45·百濟蓋鹵王3·新羅訥祇麻立干41

10月, 百濟王 餘의 아들 慶(蓋鹵王)이 宋에 遣使하여 除授를 요청하였다. 宋이 鎮東大將軍으로 하였다(《宋書》 本紀·百濟傳, 《元龜》 封冊1).

458年戊戌 宋大明2·高句麗長壽王46·百濟蓋鹵王4·新羅慈悲麻立干42(慈悲麻立干元)

10月, 高句麗가 宋에 遣使하여 方物을 바쳤다(《宋書》 本紀).

이해, 百濟王 慶이 宋에 遣使 上表하여, 그 臣 餘紀 등 11인의 除正을 요구하였다. 宋이 冠軍將軍 等에 제수하였다(《宋書》 百濟傳).

459年己亥 宋大明3·高句麗長壽王47·百濟蓋鹵王5·新羅慈悲麻立干2

4月, 倭人이 兵船 百餘艘로 新羅 東邊을 습격하여 나아가 月城을 포위하였다. 四面의 矢石이 비오는 듯하였다. 王城을 치웠다. 賊이 장차 물러가려고 할 때, 兵을 내어 쳐서 이들을 격퇴하고 다시 北으로 추격하여 海口에 이르렀다. 賊 溺死하는 자가 반이 넘었다(《史記》 新羅本紀).

11月, 高句麗가 宋에 遣使하여 方物을 바쳤다. 肅慎國이 重譯하여 楷矢·石弩를 바쳤다(《宋書》 本紀·符瑞志下·高句麗傳, 《元龜》 朝貢1).

460年庚子 宋大明4·高句麗長壽王48·百濟蓋鹵王6·新羅慈悲麻立干3

12月, 倭國이 宋에 遣使하여 方物을 바쳤다(《宋書》 本紀, 《元龜》 朝貢1).

461年辛丑 宋大明5·高句麗長壽王49·百濟蓋鹵王7·新羅慈悲麻立干4

7月, 高句麗가 遣使하여 方物을 바쳤다. (《宋書》 本紀)

※《書紀》 參照

462年壬寅 宋大明6·北魏和平3·高句麗長壽王50·百濟蓋鹵王8·新羅慈悲麻立干5

3月, 高句麗, 北魏에 遣使 朝獻하였다(《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5月, 倭人이 新羅를 습격하였다. 活開城을 치부수고 1000人을 捕虜로 하여 돌아

갔다(《史記》 新羅本紀).

이해, 倭王世子 興이 宋에 朝貢. 宋, 興을 安東將軍 ·倭國王으로 하였다(《宋書》倭國傳. 《元龜》 封冊1은 冊封을 3月로 기록하고 있다).

이해, 倭國王 興의 동생 武가 使持節 ·都督倭 ·百濟 ·新羅 ·任那 ·加羅 ·秦韓 ·慕韓 七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을 自稱하여 宋에 통교하였다(《宋書》 倭國傳).

463年癸卯 宋大明7 ·北魏和平4 ·高句麗長壽王51 ·百濟蓋鹵王9 ·新羅慈悲麻立干6

2月, 倭人이 新羅의 欽良城을 침범하여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王이 伐智 ·德智에 명하여, 매복하여 크게 이들을 쳐부수었다. 王은 倭人이 종종 疆場을 侵入하기에 緣邊에 城 두 개를 축조하게 하였다(《史記》 新羅本紀).

6月, 高句麗가 宋에 遣使하여 方物을 바쳤다(《宋書》 本紀).

7月, 宋이 使持節 ·散騎常侍 ·督平營二州諸軍事 ·征東大將軍 ·高句麗王 ·樂浪公 緞을 車騎大將軍 ·開府儀同三司로 하였다. 持節 ·常侍 ·都督 ·王 ·公은, 이 전 그대로 하였다(《宋書》 本紀 ·高句麗傳, 《元龜》 封冊1)

465年乙巳 宋泰始元 ·北魏和平6 ·高句麗長壽王53 ·百濟蓋鹵王11 ·新羅慈悲麻立干8

2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 朝獻(《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466年丙午 宋泰始2 ·北魏天安元 ·高句麗長壽王54 ·百濟蓋鹵王12 ·新羅慈悲麻立干9

3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 朝獻(《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467年丁未 宋泰始3 ·北魏皇興元 ·高句麗長壽王55 ·百濟蓋鹵王13 ·新羅慈悲麻立干10

2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貢(《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9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獻(《魏書》 本紀).

11月, 高句麗 ·百濟가 宋에 遣使하여 方物을 바쳤다(《宋書》 本紀).

468年戊申 宋泰始4 ·北魏皇興2 ·高句麗長壽王56 ·百濟蓋鹵王14 ·新羅慈悲麻立干11

2月, 高句麗가 鞍鞚兵을 派遣하여 新羅의 北邊을 습격하여 悉直城을 攻取하였다(《史記》 高句麗本紀 ·新羅本紀).

4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獻(《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469年己酉 宋泰始5 ·北魏皇興3 ·高句麗長壽王57 ·百濟蓋鹵王15 ·新羅慈悲麻立干12

2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獻(《魏書》 本紀,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8月, 百濟가 高句麗의 南邊에 侵入(《史記》 百濟本紀 · 高句麗本紀).

10月, 百濟가 雙峴城을 쌓고, 大棚을 青木峰에 설치하여, 北漢山城의 士卒을 나누어 보내어 지키게 하였다(《史記》 百濟本紀).

470年庚戌 宋泰始6 · 北魏皇興4 · 高句麗長壽王58 · 百濟蓋鹵王16 · 新羅慈悲麻立干13

2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獻(《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11月, 高句麗이 宋에 遣使하여 方物을 바쳤다(《宋書》 本紀).

(皇興中)高句麗王 磬이 딸을 北魏의 按庭(後宮)에 들일 것을 요청하였다. 北魏의 顯祖가 이를 허락하여, 使者를 보내어 여자를 맞이하게 하였다. 使者가 平壤에 도착하자, 磬이 方便을 들어 거절하였다. 마침 顯祖가 사망하여 이에 중지되었다(《魏書》 高句麗傳 · 程駿傳, 《史記》 高句麗本紀 · 長壽王54年條).

471年辛亥 宋泰始7 · 北魏延興元 · 高句麗長壽王59 · 百濟蓋鹵王17 · 新羅慈悲麻立干14

9月, 高句麗의 백성 奴久 등이 北魏에 도망하여 투항하였다(《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10月, 百濟가 宋에 遣使하여 方物을 바쳤다(《宋書》 本紀).

472年壬子 宋泰豫元 · 北魏延興2 · 高句麗長壽王60 · 百濟王蓋鹵王18 · 新羅慈悲麻立干15

2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貢(《魏書》 本紀).

7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貢. 이로부터 이후 貢獻하는 것이 전보다 倍로 되었다. 그 報賜도 또한 좀 더 늘어났다(《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8月, 百濟王 餘慶이 北魏에 遣使 上表하여, 高句麗征討를 요청하였다. 北魏가 허락하지 않았다. 百濟王이 이를 원망하여, 朝貢을 끊었다(《魏書》 百濟傳, 《史記》 百濟本紀).

11月, 高句麗가 宋에 遣使하여 方物을 바쳤다(《宋書》 本紀).

473年癸丑 宋元徽元 · 北魏延興3 · 高句麗長壽王61 · 百濟蓋鹵王19 · 新羅慈悲麻立干16

2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貢(《魏書》 本紀).

8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獻(《魏書》 本紀,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474年甲寅 宋元徽2 · 北魏延興4 · 高句麗長壽王62 · 百濟蓋鹵王20 · 新羅慈悲麻立干17

3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貢(《魏書》 本紀).

7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獻(《魏書》本紀). 또한 宋에 遣使朝貢(《史記》高句麗本紀).

475年乙卯 宋元徽3·北魏延興5·高句麗長壽王63·百濟蓋國王21(文周王元)·新羅慈悲麻立干18

正月, 新羅王이 거처를 明活城으로 옮겼다(《史記》新羅本紀).

2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獻(《魏書》本紀).

8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獻(《魏書》本紀), 《史記》高句麗本紀)

9月, 高句麗王이 3만의 軍을 이끌고 百濟의 王都 漢城을 공격하여 百濟왕을 죽이고, 男女8千人을 捕虜로 하여 돌아갔다. 百濟의 王子가 新羅에 救援을 요청하였지만 때를 맞추지 못하였다(《史記》高句麗本紀·百濟本紀).

10月, 百濟가 都를 熊津으로 옮겼다(《史記》百濟本紀).

同, 高句麗가 宋에 遣使하여 方物을 바쳤다(《宋書》本紀, 《元龜》朝貢1).

이해, 北魏가 使者를 百濟에 보내었지만, 逆風을 만나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魏書》百濟傳).

476年丙辰 宋元徽4·北魏承明元·高句麗長壽王64·百濟文周王2·新羅慈悲麻立干19

2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貢(《魏書》本紀, 《史記》高句麗本紀).

3月, 百濟가 宋에 遣使하였는데, 高句麗에 길을 막혀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史記》百濟本紀).

4月, 欺羅國이 百濟에 方物을 바쳤다(《史記》百濟本紀).

6月, 倭人이 新羅의 東邊을 침입하였다. 王이 將軍 德智에 명하여 치개 하여 이를 쳐부수었다. 죽어거나 포로로 한 사람이 200餘人이었다(《史記》新羅本紀).

7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貢(《史記》高句麗本紀).

9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獻(《魏書》本紀, 《史記》高句麗本紀).

477年丁巳 宋昇明元·北魏太和元·高句麗長壽王65·百濟文周王3(三斤王元)·新羅慈悲麻立干20

2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獻(《魏書》本紀, 《史記》高句麗本紀).

5月, 倭人이 五街道로부터 新羅에 侵入하였지만, 功을 세우지 못하고 돌아갔다(《史記》新羅本紀).

9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貢(《魏書》本紀, 《史記》高句麗本紀).

11月, 倭國이 宋에 遣使하여 方物을 바쳤다(《宋書》本紀, 《元龜》朝貢1).

478年戊午 宋昇明2·高句麗長壽王66·百濟三斤王2·新羅慈悲麻立干21

5月, 倭國王 武가 宋에 遣使 上表하여, 高句麗 征討를 요청하였다. 武가 스스로 開府儀同三司를 가칭하고, 部下에게도 官號를 假授하여 除正을 요청하였다. 宋, 武를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에 제수하였다(《宋書》本紀·倭國傳, 《元龜》朝貢1·封冊1).

12月, 高句麗가 宋에 遣使하여 方物을 바쳤다(《宋書》本紀, 《史記》高句麗本紀, 《元龜》朝貢1).

479年己未 齊建元元·北魏太和3·高句麗長壽王67·百濟三斤王3(東城王元)·新羅慈悲麻立干22(炤知麻立干元)

3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獻(《魏書》本紀, 《史記》高句麗本紀).

4月, 宋이 滅亡. 齊가 建國.

5月, 加羅國王 荷知가 齊에 遣使朝獻(《元龜》朝貢1). 齊가 荷知에게 輔國將軍·本國王을 수여하였다(《南齊書》加羅國傳).

9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獻(《魏書》本紀, 《史記》高句麗本紀).

이해, 齊가 使持節·散騎常侍·都督營平二州諸軍事·車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高句麗王·樂浪公 高璉을 驃騎大將軍으로 進號시켰다(《南齊書》高句麗傳).

同, 齊가 또 새롭게 제수하기를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武를 鐏東大將軍으로 하였다(《南齊書》倭國傳, 《梁書》倭傳).

同, 加羅國王 荷知가 齊에 遣使朝獻. 齊가 荷知에게 輔國將軍·本國王을 수여하였다(《南齊書》加羅國傳).

同, 倭國의 병사가 新羅에 侵入. 처음으로 明活城을 쌓고, 倭兵을 막았다. 倭兵이 梁州의 二城을 포위하였지만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遺事》王曆).

480年庚申 齊建元2·北魏太和4·高句麗長壽王68·百濟東城王2·新羅炤知麻立干2

3月, 百濟가 齊에 遣使朝貢. 齊, 百濟王 牟都를 鐏東大將軍으로 하였다(《南齊書》本紀, 《南史》本紀, 朝貢1·封冊1). 【注】

4月, 齊가 高句麗王을 驃騎大將軍으로 하였다(《南齊書》本紀, 《南史》本紀, 《元龜》封冊1, 《史記》高句麗本紀).

同, 高句麗王이 齊에 遣使하였는데, 使者가 도중에 魏에 잡혔다. 魏의 高祖는 高句麗王이 齊에 통교하는 것을 책망하는 詔를 내고, 使者를 돌려보내었다(《史

記》 高句麗本紀).

481年辛酉 齊建元3·高句麗長壽王69·百濟東城王3·新羅昭知麻立干3

3月, 高句麗가 鞍鞚과 함께 新羅 北邊에 侵入. 新羅, 百濟·加耶의 援兵을 요청 하며 맞서 싸웠다(《史記》 新羅本紀).

12月, 高句麗가 齊에 遣使朝貢(《南齊書》 本紀, 《南史》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元龜》 朝貢).

482年壬戌 齊建元4·高句麗長壽王70·百濟東城王4·新羅昭知麻立干4

5月, 倭人이 新羅의 邊境을 침입하였다(《史記》 新羅本紀).

484年甲子 齊永明2·北魏太和8·高句麗長壽王72·百濟東城王6·新羅昭知麻立干6

2月, 百濟王이 齊가 高句麗王을 驃騎大將軍에 임명한 것을 알고, 遣使 上表하여 內屬을 칭하였다. 허락되었다. (《史記》 百濟本紀).

7月, 高句麗가 新羅 北邊에 侵入. 新羅軍이 百濟의 援兵과 함께 맞서 싸웠다(《史記》 新羅本紀).

同, 百濟가 齊에 朝貢使를 派遣하였는데, 高句麗 병사에 막혀 나아가지 못하였다(《史記》 百濟本紀).

10月, 高句麗가 魏에 遣使朝貢. 北魏 사람이 高句麗使에게, “高句麗는 強勢하기에, 諸國使邸를 둘에 齊使를 第一로 하고, 高句麗使는 그 다음이다.”라고 말하였다(《魏書》 本紀, 《通鑑》 卷136, 《史記》 高句麗本紀).

485年乙丑 齊永明3·北魏太和9·高句麗長壽王73·百濟東城王7·新羅昭知麻立干7

5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貢(《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同, 百濟가 新羅에 使者를 보내었다(《史記》 百濟本紀).

10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貢(《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12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貢(《魏書》 本紀).

486年丙寅 齊永明4·北魏太和10·高句麗長壽王74·百濟東城王8·新羅昭知麻立干8

3月, 百濟가 齊에 遣使朝貢(《史記》 百濟本紀).

4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貢(《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同, 倭人이 新羅 변경을 침범하였다(《史記》 新羅本紀).

487年丁卯 齊永明5·北魏太和11·高句麗長壽王75·百濟東城王9·新羅昭知麻立干9
5月, 高句麗가 北魏에 朝貢(《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488年戊辰 齊永明6·北魏太和12·高句麗長壽王76·百濟東城王10·新羅昭知麻立干10
2月, 高句麗가 北魏에 朝貢(《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4月, 高句麗가 北魏에 朝貢(《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閏9月, 高句麗가 北魏에 朝貢(《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이해, 北魏가 百濟를 쳤지만 패하였다(《通鑑》 卷136, 《史記》 百濟本紀).

489年己巳 齊永明7·北魏太和13·高句麗長壽王77·百濟東城王11·新羅昭知麻立干11
2月, 高句麗가 北魏에 朝貢(《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6月, 高句麗가 北魏에 朝貢(《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9月, 高句麗가 新羅 北邊에 침입하여 孤山城을 함락시켰다(《史記》 高句麗本紀·新羅本紀).
10月, 高句麗가 北魏에 朝貢(《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490年庚午 齊永明8·北魏太和14·高句麗長壽王78·百濟東城王12·新羅昭知麻立干12
正月, 齊가 行百濟王泰昱 鐮東大將軍·百濟王으로 하였다(《南史》 齊本紀·百濟傳, 《元龜》 封冊1)
7月, 高句麗가 北魏에 朝貢(《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9月, 高句麗가 北魏에 朝貢(《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491年辛未 齊永明9·北魏太和15·高句麗長壽王79·百濟東城王13·新羅昭知麻立干13
5月, 高句麗가 北魏에 朝貢(《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9月, 高句麗가 北魏에 朝貢(《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12月, 高句麗王 巨連이 薦하였다. 長壽王이라고 이름하였다. 北魏帝가 城東行宮에서 舉哀하였다. 또 使者를 보내어, 車騎大將軍·太傅·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을 추증하고 康이라고 謂하였다(《魏書》 本紀·禮志4-3, 《通鑑》 卷137, 《史記》 高句麗本紀).

492年壬申 齊永明10·北魏太和16·高句麗文睿明王元·百濟東城王14·新羅昭知麻立干
14
3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貢. 北魏가 遣使하여, 高句麗王을 使持節·都督

遼海諸軍事·征東將軍·領護東夷中郎將·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에 제수하였다. 이 때, 高句麗王이 北面하여 詔를 받았다. 高句麗王이 北魏의 요구에 따라, 王族을 보내어 入朝하게 하였다(《魏書》本紀·封懿傳·房亮傳·高句麗傳, 《通鑑》卷137, 《史記》高句麗本紀).

6月, 高句麗가 北魏에 朝貢(《魏書》本紀, 《史記》高句麗本紀).

8月, 高句麗가 北魏에 朝貢(《魏書》本紀, 《史記》高句麗本紀).

10月, 高句麗가 北魏에 朝貢(《魏書》本紀, 《史記》高句麗本紀).

493年癸酉 齊永明11·北魏太和17·高句麗文咨明王2·百濟東城王15·新羅炤知麻立干
15

3月, 百濟王이 新羅에 婚姻을 요구하였다. 新羅王이 伊伐渙 比智의 딸을 보내었다(《史記》百濟本紀·新羅本紀).

6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貢(《魏書》本紀).

7月, 新羅가 倭賊에 대비하여 臨海·長嶺의 두 鎮을 설치하였다(《史記》新羅本紀).

494年甲戌 齊建武元(隆昌元·延興元)·北魏太和18·高句麗文咨明王3·百濟東城王16·
新羅炤知麻立干16

正月, 高句麗가 北魏에 朝貢(《魏書》本紀, 《史記》高句麗本紀).

2月, 扶餘王이 國을 들어 高句麗에 투항하였다(《史記》高句麗本紀).

7月, 高句麗가 北魏에 朝貢(《魏書》本紀, 《史記》高句麗本紀).

同, 高句麗軍이 新羅 邊境에 침입하여 城을 포위하였다. 百濟의 援軍이 到來하였기에, 高句麗軍이 退却하였다(《史記》高句麗本紀·新羅本紀).

이해, 齊가 高句麗王을 使持節·散騎常侍·都督營平二州·征東大將軍·樂浪公에 제수하였다(《南齊書》高麗傳, 《梁書》高句麗傳, 《元龜》朝貢1).

495年乙亥 齊建武2·北魏太和19·高句麗文咨明王4·百濟東城王17·新羅炤知麻立干17

2月, 高句麗가 北魏에 朝貢(《魏書》本紀, 《史記》高句麗本紀).

5月, 高句麗가 北魏에 朝貢. (《魏書》本紀, 《史記》高句麗本紀).

8月, 高句麗軍이 百濟에 침입하여 城을 애위했다. 新羅의 援軍이 到來하여 高句麗軍이 退却하였다. 百濟王이 新羅에 遣使하여 감사하였다(《史記》高句麗本紀·新羅本紀).

이해, 百濟王이 齊에 遣使 上表. 部下를 將軍 등에 제수해 줄 것을 요청하여 허락되었다(《南齊書》百濟傳).

496年丙子 齊建武3·高句麗文咨明王5·百濟東城王18·新羅昭知麻立干18

2月, 加耶國이 新羅에 白雉를 보내었다(《史記》 新羅本紀).

이해, 齊가 高句麗王을 車騎將軍으로 올렸다(《史記》 高句麗本紀).

이해, 高句麗王이 齊에 朝貢(《元龜》 朝貢1).

497年丁丑 齊建武4·高句麗文咨明王6·百濟東城王19·新羅昭知麻立干19

4月, 倭人이 新羅의 邊境을 침범하였다(《史記》 新羅本紀).

8月, 高句麗가 新羅의 牛山白을 攻取하였다(《史記》 高句麗本紀·新羅本紀).

498年戊寅 齊永泰元·北魏太和22·高句麗文咨明王7·百濟東城王20·新羅昭知麻立干

20

8月, 高句麗가 北魏에 朝貢(《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同, 百濟王이 殇羅가 貢賦를 납지 않기 때문에, 親征하여 武珍州에 이르렀다. 殇羅가 이것을 듣고 遣使하여 謝罪하였다(《史記》 百濟本紀).

499年己卯 齊永元元·北魏太和23·高句麗文咨明王8·百濟東城王21·新羅昭知麻立干

21

5月,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貢(《魏書》 本紀).

이해, 高句麗가 北魏에 遣使朝貢(《魏書》 本紀).

500年庚辰 齊永元2·北魏景明元·高句麗文咨明王9·百濟東城王22·新羅昭知麻立干22

4月, 倭人이 新羅의 長峯鎮을 공격하여 합락시켰다(《史記》 新羅本紀).

8月, 高句麗가 北魏에 朝貢(《魏書》 本紀, 《史記》 高句麗本紀).

[注] 480年 3月조 - ‘百濟王牟都’로 되어 있는데,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의하면 이 해의 百濟王은 東城王으로, 그 諱는 ‘牟大’이다. 그래서 《三國史記》는 牟都의記事를 採用하지 않고, 東城王條 末尾의 文注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冊府元龜云, 南濟[齊]津[建]元二年, 百濟王牟都遣使貢獻. 詔曰… 又永明八年 百濟王牟大遣使上表. …策命大襲亡祖父牟都爲百濟王曰, … 而三韓古記無牟都爲王之事. 又按牟大蓋齒王之孫, 蓋齒王第二子昆支之子, 不言其祖牟都. 則齊書所載不可不疑.”

이 무렵의 사정에 대해서는, 坂元義種氏가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百濟史の研究》 城書房 · 1978年).

한편 이것과는 역으로, 484年 2月의 “百濟王은 齊가 高句麗王을 駃騎大將軍에 임명한 것을 알고, 遣使 上表하여 內屬을 청하여 허락되었다.”고 하는記事는 《史記》百濟本紀에만 보이며(原文은 “王, 聞南齊祖道成冊高句麗巨璉爲驃騎大將軍, 遣使上表請內屬, 許之.”), 中國史料에는 없다. 이것도 牟都·牟大 관계의 不明確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 檢討가 필요한 기사이다.

《日本書紀》 朝鮮關係記事年表

- 仲哀 ~ 雄略 -

*凡例 :

1. 《日本書紀》의 紀年과 干支를 기재하고, 必要에 따라 () 안에 干支 2運을 인하한 修正 紀年을 참고로 하여 계재하였다.
2. 史料에 보이는 内容을 記事로 한 것으로, 물론 전부를 史實로 理解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記述에는 史料에 보이는 表現을 될 수 있는 한 존중하였다.
3. 現在의 研究에서는, 國號로서의 '日本', 君主號로서의 '天皇'은 모두 7世紀 後半에 성립하였다고 하는 견해가 우세한데, 本年表에서는 便宜的으로 日本 · 天皇 호칭을 사용하였다.
4. 주된 參考文獻은 다음과 같다.

朝鮮史編修會, 1932 《朝鮮史》 第1編 第2卷 <日本史料>

三品彰英, 196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証》 上下卷(上卷吉川弘文館 · 1962年
[第2版天山舍 · 2002年], 下卷天山舍 · 2002年)

金鉉球 외, 2002 · 2003 《日本書紀韓國關係記事研究》 I II (一志社)

[年表本文]

○仲哀天皇9年庚辰200

2月, 天皇이 没하였다.

9月, 諸國에 명하여 兵士 · 船舶을 정비하였다.

10月, 神功皇后가 和珥津(對馬)을 出發하여 新羅에 이르렀다. 新羅王 波沙寐錦이 降伏하였으며, 微叱己知波珍干岐를 質로 하여, 많은 金銀財寶를 80艘의 배에 쌓아 복종하였다. 이에 高麗 · 百濟王도 와서 “지금부터는 영원히 西蕃을 칭하며 朝貢을 끊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神功皇后攝政5年乙酉 205

3月, 新羅王이 使者를 보내어 朝貢하였다. 質인 微叱己知波珍干岐를 데리고 가려고 꾀

하였다. 微叱已知波珍干岐가 一時 歸國을 청하였다. 皇太后가 葛城襲津彥을 붙여 보내었다. 途中に 對馬에 이르렀는데, 新羅使 등이 꾀하여 微叱已知波珍干岐를 도망가게 하였다. 襲津彥이 新羅의 使者를 죽이고 게다가 新羅에 이르러 草羅城을 함락시키고 돌아왔다.

○神功皇后攝政44年甲子244(364)

7月, 百濟使 久氏 등이 卓淳國에 이르러 日本으로 길 안내를 구하였다. 卓淳國王은 아직 日本에 통한 적이 없고 길도 모른다. 다만 大船으로 통할 수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久氏 등이 大船을 준비하기 위해 歸國하였는데, 만약 日本에서 使者가 온다면 반드시 百濟에 알려주도록 전하고 돌아갔다. (神功攝政46年條)

○神功皇后攝政46年丙寅246(366)

3月, 斯麻宿禰를 卓淳國에 보내었다. 卓淳國王이 작년에 있었던 百濟使 久氏 등의 일을 전하였다. 斯麻宿禰가 使者를 百濟에 보내어 그 王을 위로하게 하였다. 百濟 초고왕이 깊이 기뻐하며 후하게 대접하였다. 五色의 絲絹, 角으로 된 弓箭, 아울러 鐵鍊을 使者에게 주었다. 또 寶藏을 열어 진기한 물건을 보여주며 “日本에 바치려고 해도 길을 몰라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지금 使者에 의탁하여貢獻한다.”고 말하였다. 使者가 志摩宿禰에게 告하였다. 이어 志摩宿禰 등이 卓淳에서 歸國하였다.

○神功皇后攝政47年丁卯247(368)

4月, 百濟王이 久氏 등을 보내어 일본에 朝貢하였다. 新羅의 調使도 함께 왔다. 兩國의 공물을 조사해보매, 新羅의 貢物은 진기한 것이 많고, 百濟의 貢物은 적었다. 久氏 등이 말하기를, “길을 헤매어 新羅에 이르렀다. 新羅人은 百濟王이 日本에 보내는 貢物을 빼앗아 자신의 貢物로 하고, 百濟使에게는 新羅의 천박한 물건을 貢物로 하여 주며, 日本에 가져가게 하였다.” 운운하였다. 皇太后(神功)등은 新羅使를 책망하며, 千熊長彥을 新羅에 보내었다.

○神功皇后攝政49年己巳249(369)

3月, 日本이 荒田別·鹿我別을 將軍으로 하여, 久氏 등과 함께 軍을 정비하여 卓淳國에 派遣하였다. 新羅를 습격하기 위해 增兵을 求하였다. 이에 百濟의 장군 木羅斤資·沙沙奴跪에 명하여, 精兵을 이끌고 派遣하였다. 卓淳國에 모여, 新羅를 쳐서 부수었다. 因하여 比自舛·南加羅·喙國·安羅·多羅·卓淳·加羅 7國을 平定하였다. 게다가 南蠻 忖彌多禮를 빼앗아, 百濟에 하사하였다. 여기에 百濟王 肖古와 王子 貴須가 軍을 이끌고 來會하였다. 比利·辟中·布彌支·半古 4邑이 자연히 항복하였다. 이에 百濟王 父子와 荒田別·

木羅斤資 등이 意流村에서 만났다. 서로 기뻐하며 歡送하였다. 千熊長彥과 百濟王은 百濟國의 辟支山에 올라 盟을 하였다. 百濟王이 “지금부터 千秋萬歲에 끊임없이, 막히는 일도 없이, 항상 西蕃을 칭하며 春秋로 朝貢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千熊長彥 등을 都에서 대접하고 久氏 등에게 (일본으로) 보내게 하였다.

○神功皇后攝政50年庚午250(370)

2月, 荒田別 등이 日本에 歸國하였다.

5月, 千熊長彥 · 久氏 등이 日本에 歸着하였다. 百濟王의 지극한 정성을 치하하고, 多沙城을 하사하여 往還하는 길의 驛으로 하게 하였다.

○神功皇后攝政51年辛未251(371)

3月, 百濟王이 다시 久氏 등을 파견하여 朝貢하였다. 久氏 등의 歸國에 불여 千熊長彥을 百濟에 보내었다.

○神功皇后攝政52年壬申252(372)

9月, 百濟使 久氏 등이 千熊長彥과 함께 이르렀다. 이에 七枝刀 · 七子鏡 및 여러 가지 重寶를 바쳤다.

○神功皇后攝政55年乙亥255(375)

이해, 百濟 肖古王이 没하였다.

○神功皇后攝政56年丙子256(376)

이해, 百濟 王子 貴須가 王이 되었다.

○神功皇后攝政62年壬午262(382)

이해, 新羅가 日本에 朝貢하지 않았다. 日本이 襲津彥을 보내어 新羅를 치게 하였다. 百濟記에 말하기를, “沙至比跪가 新羅의 美女를 받아, 도리어 加羅國을 쳤다. 加羅國王이 人民을 이끌고 百濟에 도망하였다. 百濟가 후하게 대접하였다. 加羅國王이 妹를 大倭(日本)에 보내어, 沙至比跪의 일을 보고하였다. 天皇이 크게 화를 내어, 木羅斤資를 보내어, 軍을 이끌고 加羅에 보내 社稷을 회복하게 하였다. 一說에, 沙至比跪가 몰래 日本에 돌아왔지만, 結局 石穴에 들어가 죽었다고 한다.”고 하였다.

○神功皇后攝政64年甲申264(384)

이해, 百濟 貴須王이 没하였다. 王子 忱流王이 王이 되었다.

○神功皇后攝政65年乙酉265(385)

이해, 百濟의 忱流王이 薦하였다. 王子 阿花가 연소하였기에 叔父 辰斯가 자리를 빼앗아 왕이 되었다.

○應神天皇3年壬辰272(392)

이해, 百濟 辰斯王이 日本에 대하여 無禮하였다. 紀角宿禰 등을 보내어 無禮함을 책망하였다. 이로써, 百濟國이 辰斯王을 죽이고 사죄하였다. 紀角宿禰 등이 阿花를 왕으로 하고 歸國하였다.

○應神天皇7年丙申276

9月, 高麗人 · 百濟人 · 任那人 · 新羅人이 나란히 來朝하였다. 연못을 만들게 하였다. 이로 인해 그 연못을 韓人池라고 이름 지었다.

○應神天皇8年丁酉277

3月, 百濟人이 來朝하였다. 百濟記에 말하기를, “阿花王이 즉위하였다, 貴國(日本)에 無禮함이 있었다. 故로 枕彌多禮 등의 땅을 빼앗았다. 이로써 王子 直支를 보내어 先王의 우호를 닦았다.”라고 하였다.

○應神天皇14年癸卯283

2月, 百濟王이 縫衣工女를 바쳤다.

이해, 弓月君이 百濟로부터 來歸하여, 자신의 國의 120縣의 領民을 이끌고 日本에 歸化하려고 하였는데 新羅에 저지당하여, 加羅國에 滯留하고 있다고 告하였다. 葛城襲津彥을 加羅國에 보내었는데, 3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應神天皇15年甲辰284

8月, 百濟王이 阿直伎를 보내어 良馬 2匹을 바쳤다. 阿直伎를 太子 菴道稚郎子의 스승으로 하였다. 이어 百濟에 使者를 보내어, 阿直伎가 추천한 대로 博士 王仁을 초빙하였다.

○應神天皇16年乙巳 285

2月, 王仁이 來日하였다. 太子 菴道稚郎子의 스승으로 하였다.

이해, 百濟 阿花王이 薦하였다. 天皇이 直支를 불러, 國에 돌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을

말하였다. 이로써 東韓의 땅을 하사하여, 百濟에 보내었다.

8月, 葛城襲津彥이 오래도록 歸國하지 않았기 때문에, 平群木菟宿禰 등을 加羅에 보내었다. 平群木菟宿禰 등이 精兵을 이끌고 新羅 國境에 이르자, 新羅王이 놀라 그 罪에 服하였다. 이로써 弓月의 人夫를 이끌고 襲津彥과 함께 歸國하였다.

○應神天皇20年己酉 289

9月, 阿知使主가 黨類 17縣을 이끌고 來歸하였다.

○應神天皇25年甲寅 294

이해, 百濟 直支王이 喪하였다. 子 久爾辛을 세워 王으로 하였다. 王이 어렸으므로, 木滿致가 國政을 장악하고 王母와 密通하며, 無禮한 행동이 많았다. 天皇이 이것을 듣고, 木滿致를 불렀다. 百濟記에 말하기를, “木滿致는 木羅斤資가 新羅를 쳤을 때, 그 國의 婦人을 娶하여 낳았다. 그 父의 功績 때문에 任那에서 專權을 행사하였다. 百濟에 와서, 日本과 往還하면서 天皇의 命令을 받고 있다고 하며, 百濟의 國政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 權力은 實로 君主였다. 그러나 日本 朝廷은 그 횡포함을 듣고 本國으로 불러들였다.”라고 하였다.

○應神天皇28年丁巳 297

9月, 高麗王이 遣使朝貢. 그 上表에, ‘高麗王敎日本國’이라고 되어 있었기에, 太子 菴道稚郎子는 表狀이 無禮하다고 하여 高麗使를 책망하고, 表를 찢어버렸다.

○應神天皇31年庚申 300

8月, 武庫에 滯在하고 있는 新羅調使의 宿所에서 불이 났다. 武庫의 水門에 정박 중인 500艘의 배가 불탔다. 新羅王이 이것을 듣고, 名匠을 바쳤다. 이것이 木工을 專業으로 하는 猪名部 등의 始祖이다.

○應神天皇37年丙寅 306

2月, 阿知使主 등을 吳에 보내어, 縫工女를 구하게 하였다. 阿知使主 등이 우선 高麗에 도착하여, 길 안내를 요청하였다. 高麗王이 久禮波 등을 붙여 吳까지 가게 하였다. 吳王이 工女兒媛 · 弟媛, 吳織 · 穴織 4人の 婦女를 주었다.

○應神天皇39年戊辰 308

2月, 百濟 直支王이 그 妹 新齊都媛에게 7人の 婦女를 붙여 日本에 보내어, 天皇을 섬

기도록 하였다.

○應神天皇41年庚午 310

2月, 阿知使主 등이 吳로부터 筑紫에 歸着하였다.

이해, 韓國에 파견되어 있던 倭直吾子籠이 倭屯田 · 屯倉의 管掌을 둘러싼 事情 聽取를 위해 소환되었다.

○仁德天皇11年癸未 323

이해, 新羅人이 朝貢하였다. 荊田堤 造營하는 勞役에 종사시켰다.

○仁德天皇12年甲申 324

7月, 高麗國이 鐵盾 · 鐵的을 바쳤다.

8月, 高麗客에게 잔치를 열었다. 群臣에게 高麗가 獻上한 鐵盾과 과녁을 쏘게 하였다.

○仁德天皇17年己丑 329

9月, 新羅의 朝貢이 없기 때문에, 使者를 보내어 이유를 묻게 하였다. 新羅人이 두려워하여 調絹 및 여러 가지 雜物을 합쳐 80艘分을 貢上하였다.

○仁德天皇41年癸丑 353

3月, 紀角宿禰를 百濟에 보내어 처음으로 國郡의 境界를 나누고, 土產品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 때 百濟王族 酒君이 무례하였다. 그래서 紀角宿禰가 百濟王을 책망하였다. 百濟王이 酒君을 뚫어, 襲津彥에 부쳐 일본에 보내었다. 天皇이 그 죄를 용서하였다.

○仁德天皇53年乙丑 365

5月, 新羅의 朝貢이 없기 때문에, 使者를 보내어 이유를 묻게 하였다. 新羅가 軍을 내어 使者를 막았다. 戰鬪 끝에 數百人을 죽이고, 4邑의 人民을 포로로 하여 歸國하였다.

○仁德天皇58年庚午 370

10月, 吳國 · 高麗國이 나란히 朝貢하였다.

○允恭天皇3年甲寅 414

正月, 新羅에 遣使하여 良醫를 구하였다. 新羅의 醫師가 來日하여 天皇의 병을 고쳤다. 醫師에게 포상을 하고 귀국시켰다.

○允恭天皇42年癸巳 453

正月, 天皇이 죽었다. 新羅王이 天皇의 서거를 듣고, 調船 80艘과 여러 종류의 樂人 80人을 貢上하였다. 新羅使가 入京하여, 殯宮에 參會한 후, 11月에 歸國. 이 때 新羅使는 采女와 密通한 것으로 의심받은 것을 원망하여, 以後 貢上品의 종류와 배의 수를 줄였다.

○雄略天皇2年戊戌 458

7月, 百濟의 池津媛을 密通의 혐의로 죽였다. <百濟新撰>에 말하기를, “己巳年(429)에, 蓋鹵王(毗有王?)即位. 天皇, 遣使하여 女郎을 求하였다. 百濟가 慕尼夫人의 딸을 잘 꾸며, 適稽女郎이라고 칭하며 天皇에게 貢上하였다.”고 하였다.

○雄略天皇5年辛丑 461

4月, 百濟 蓋鹵王(加須利君)은 池津媛이 살해되었다는 것을 듣고, “今後, 여자를 바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동생인 軍君(昆支)에게 日本에 가서 天皇을 섬길 것을 명하였다. 軍君이 出發에 앞서, 王의 妃를 내려줄 것을 청하였다. 王은 임신 중이었던 妃를 軍君과 結婚시킨 다음, “만약 道中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곧장 母子를 돌려보내도록 하라.”고 말하고 日本으로 출발시켰다.

6月朔日, 妃가 筑紫의 各羅島에서 아이를 낳았다. ‘島君’이라고 이름 짓고, 百濟로 돌려보내었다. 이가 武寧王이다. 百濟人은 이 섬을 ‘主島’라고 불렀다.

7月, 軍君이 入京. <百濟新撰>에 말하기를, “辛丑年(461), 蓋鹵王이 王弟인 琏支君을 보내어, 大倭로 향하게 하였다. 先王의 우호이다.”라고 하였다.

○雄略天皇6年壬寅 462

4月, 吳國이 遣使貢獻하였다.

○雄略天皇7年癸卯 463

이해, 天皇, 吉備上道臣田狹의 妻 稚媛을 女御로 삼으려고 하여, 田狹을 任那國司에 임명하였다. 얼마 뒤에, 天皇이 稚媛을 불렀다. 田狹이 임지에서 이것을 듣고, 新羅에 援助를 求하였다. 이 때 新羅가 日本에 朝貢하지 않았다. 天皇이 田狹의 아들 弟君 등에게 新羅征討를 명하였다. 弟君이 百濟를 거쳐 新羅에 도착하였는데 길이 멀다고 듣고 치지 않고 되돌아왔다. 百濟가 貢上한 今來才伎와 함께 계속 滯留하였다. 田狹이 몰래 使者를 弟君에게 보내어, “너는 百濟를 거점으로 하고 나는 任那를 거점으로 하여, 日本에는 통하지 말라.”고 전하였다. 弟君의 妻 樺媛은 이 謀叛을 싫어하여 남편을 죽이고 才伎 등을 이끌고 大島에 도착하였다.

○雄略天皇8年甲辰 464

2月, 身狹村主 青 등을 吳國에 보내었다. 天皇 卽位以來 8年, 新羅가 朝貢하지 않았다. 日本을 두려워하여 高麗와 우호를 맺었다. 高麗王이 兵을 보내어 新羅를 지켰다. 그러나 高麗의 친의가 新羅 侵略에 있음을 안 新羅는, 國內의 高麗兵을 모두 죽였다. 한 사람도 망하여 돌아온 병사에게서 (사정을) 들은 高麗王은 즉시 遠征軍을 派遣. 新羅王이 任那에 遣使하여 救援을 ‘日本府行軍元帥等’에 구하였다. 任那王이 謄臣班鳩 등에게 권하여 新羅를 救援하게 하였다. 謄臣班鳩 등이 高麗軍을 쳐 격파하고, 新羅王에게 “今後 日本에 등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雄略天皇9年乙巳 465

3月, 天皇이 新羅親征을 기도하였지만, 臣下의 反對로 그만두었다. 紀小弓宿禰 등에게 詔를 내려, 卽位 以來로부터 新羅의 無禮를 말하고 討伐를 명하였다. 紀小弓宿禰 등이 新羅에 도착하여, 進軍하여 喧 땅을 占領하지만, 將兵 중에 죽은 사람이 많고, 紀小弓宿禰는 병으로 죽었다.

5月, 紀小弓宿禰의 아들 大磐宿禰가 新羅로 향하여 가, 指揮權을 빼앗아 잡았다. 이 때문에 日本軍에 内紛이 일어났다.

○雄略天皇10年丙午 466

9月, 身狹村主 青이 吳가 獻上하는 2마리의 鶩鳥를 가지고 筑紫에 彷着하였다.

○雄略天皇11年丁未 467

7月, 百濟에서 貴信이 化來하였다. 貴信은 吳國 사람이라고 한다.

○雄略天皇12年戊申 468

4月, 身狹村主 青 등을 吳에 보내었다.

○雄略天皇14年庚戌 470

正月, 身狹村主 青 등이 吳國使 및 吳가 獻上하는 손재주 있는 사람(手末才伎) 漢織 · 吳織과 衣縫兄媛 · 弟媛 등을 데리고 住吉津에 도착하였다.

3月, 吳人을 檜隈野에 安置시켰다. 因하여 同地를 吳原이라고 이름지었다.

○雄略天皇20年丙辰 476

冬, 高麗王이 百濟를 멸하였다. <百濟記>에 말하기를, “蓋幽王 乙卯年 겨울에, 狄의

大軍이 와서, …王城을 함락당하고, 마침내 尉禮國을 잃어버렸다. 王과 大后 · 王子等 이 모두 적의 손에 죽었다.”라고 하였다.

○雄略天皇21年丁巳 477

3月, 天皇은 百濟가 高麗에 멸망된다고 듣고, 久麻那利를 汶洲王(文周王)에게 주어, 그 나라를 復興시켰다.

○雄略天皇23年己未 479

4月, 百濟의 三斤王이 죽었다. 天皇이 昆支王의 다섯 아들 중에서 젊고 총명한 末多王 을 불러 百濟의 王이 되게 하였다. 이에 兵器를 주고 筑紫國의 軍士 500人을 붙여 百濟에 보내었다. 이가 東城王이다.

이해, 百濟의 調賦가 例年보다 많았다. 筑紫의 安致臣 등이 船師를 이끌고 高麗를 쳤다.

8月, 天皇이 죽었다. 이 무렵 征新羅將軍 吉備尾代가 蝦夷를 이끌고 出征하였는데 途中 에 吉備에서 天皇의 죽음을 안 蝦夷가 反亂을 일으켰다.

*付記：本年表는, 拙論 <5世紀의 日韓關係－倭의 五王과 高句麗·百濟>의 一部(付錄)로서 작성한 것이다.

【文獻目錄】

‘倭의 五王’ 研究文獻目錄

–1973年이후–

*凡例

1. 倭의 五王과 中國·한국에 直接 관련된 文獻으로 한정하였다.
2. 1972年까지의 성과에 대해서는, 笠井倭人氏 『研究史 倭の五王』(吉川弘文館·1973年)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1973年 이후의 文獻을 대상으로 하여, 編年順으로 배열하였다.
3. 著書는 『』, 論文은 <>로 표시하고, 內容의 理解를 돋기 위하여 目次 등을 기재하였다.
4. 韓國語·中國語 文獻은 冒頭에 ※ 표시를 붙였다.
5. 卷末에 筆者名索引를 付記하였다.

[1973年]

○笠井倭人 『研究史 倭の五王』(吉川弘文館) 1月

머리말 1.五王關係史書의 渡來 2.草創期의 五王研究 3.國學者들의 發言 4.明治初年 異邦人の 研究 5.紀年論과 五王 6.修史局學派의 研究 7.明治期의 傍流的研究 8.쓸쓸했던 大正期의 研究 9.昭和 前半期의 研究 10.不可解한 時政으로부터의 開放과 新說 繢出期 11.東아시아史 속의 五王

○湊 哲夫 <倭王世子興沒年代考> (『日本史論叢』 2號) 2月

緒言 1.宋書百官志의 將軍에 대하여 2.車騎將軍의 定員에 대하여 3.征西將軍의 定員에 대하여 4.撫軍將軍의 定員에 대하여 5.宋의 將軍의 定員에 대하여 6.蕭道成政權의 成立過程에 대하여 7.南齊의 將軍의 定員에 대하여 8.安東將軍의 在號者에 대하여 結語

[1975年]

○佐伯有清 <倭の五王はどのような意圖で遣使したか> (『海外交渉史の視點』 1·日本書籍) 10月

爵號를 求하다 倭王의 바램 또 하나의 바램

○武田幸男 <平西將軍·倭隋の解釋 -五世紀の倭國政權にふれて-> (『朝鮮學報』 77輯) 10月

1.머리말 2.平西將軍號의 方位性 3.王을 중심으로 한 方位將軍號 4.倭國의 中心地 5.倭隋

의 性格 6.倭國의 地方統制 -맺음말에 대신하여-

[1976年]

○坂元義種 <倭の五王 -中國正史外國傳の研究から見た-> (『歴史公論』3, 뒤에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1978年) 2月

머리말 1.『南史』倭國傳의 ‘倭の五王’關係記事의 分量 2.『南史』와 『梁史』의 所傳의 차이 -‘倭의 五王’의 系譜 3.『南史』와 『宋書』의 所傳의 차이 -‘職’과 ‘軍郡’4.『南史』와 『南齊書』 -除正要請을 중심으로 5.다시 『南史』와 『宋書』 -‘軍郡’과 ‘職’을 둘러싸고 맺음말

[1977年]

○坂元義種 <五王の世紀 -とくに倭國王の南朝外交の終焉を中心に-> (上田正昭編 『日本史(1)古代』 3章 有斐閣新書) 1月

머리말 1.『梁職貢圖』의 倭國使臣圖(荊州刺史蕭繹의 『梁職貢圖』 鄧至國과 宕昌國 『梁職貢圖』의 倭國使는 진짜 倭國王의 使者인가 倭國使臣圖와 魏志倭人傳 『梁書』에 나타나는 諸國의 對梁交涉 使臣圖의 모델은 과연 現實의 朝貢使인가 使臣圖의 다수는 蕭繹의 想像圖) 2.倭國王의 南朝外交의 終焉(中國南朝에 대한 동경 百濟國使의 통곡 山海 멀다 하지 않고 諸國王의 上表文 上表文의 内容 倭國王의 自稱과 除正 倭國王의 僚屬에 대한 除正要請 倭國王의 外交目的 倭國王과 百濟王의 外交目的의 일치 百濟, 北魏와의 交涉을 끊다 南朝의 北魏 봉쇄 政策 倭國王, 南朝와의 交涉을 끊다)

○池田 溫 <義熙九年倭國獻方物をめぐって> (『江上波夫教授古希記念論集』 歴史編, 山川出版社. 뒤에 『東アジアの文化交流史』 吉川弘文館・2002年) 5月

서문 1.義熙九年 高句麗・倭國의 入貢 2.貢物과 賦物 3.高句麗・倭國入貢의 背景結言

[1978年] 9月, 稲荷山鐵劍銘文의 解讀된다.

○鈴木靖民 <倭五王의 位置> (『歴史研究』 208~210號. 뒤에 『古代國家史研究の歩み 邪馬台國から大和政權まで』 (新人物往来社・1980年) 5~7月

倭의 五王과 政權(五王의 比定 比定論의 展開 平西將軍倭隋의 存在 -야마토 政權과 地方-) 倭의 五王의 國際的 位置(倭王의 稱號 倭國王의 位置 職貢圖의 倭國使)

○坂元義種 <東アジアの世界 -中國文獻よりみた古代日本の探求-> (『日本史の謎と發見 ①日本人の先祖』) 8月

머리말 『太平御覽』의 東夷諸國과 그 出典 『太平御覽』 所引의 『南史』倭國傳 『太平御覽』 □條所引의 <魏志>에 대하여 四世紀, 倭國은 高句麗와 共同入貢한 것일까 -

『太平御覽』所引의 <晉義熙起居注>를 둘러싸고 中國文獻 最古의 倭 關係記事 -『太平御覽』所引의 <南海經>에 대하여 中國最古의 倭人畫像 -『梁職貢圖』의 倭國使에 대하여 맷음말

○坂元義種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吉川弘文館) 12月

第1章 古代東아시아의 國際關係 -和親·封冊·使節에서 보다

第2章 五世紀의 ‘百濟大’과 그 王·侯

第3章 古代東아시아의 ‘大王’에 대하여 -百濟大王考補論-

第4章 古代東아시아의 日本과 朝鮮 -大王의 成立을 둘러싸고-

第5章 五世紀의 日本과 한국의 國際的 環境 -中國南朝와 河南王·河西王·宕昌王·武都王-

머리말 1.吐谷渾(河南)王에 대하여 2.河西王에 대하여 3.宕昌王에 대하여 4.武都王에 대하여 맷음말에 대신하여 -吐谷渾의 國際的地位-

第6章 五世紀의 日本과 朝鮮 -中國南朝의 封冊과 관련하여-

머리말 1.日本의 國際的 地位 -高橋善太郎 論文을 중심으로- 2.國際的 地位와 ‘將軍’號 -‘將軍’號의 有効性을 둘러싸고- 3.‘王’의 封冊과 ‘行○○王’ 4.‘承制假授’와 ‘除正’ 要請 5.倭國王과 ‘都督百濟諸軍事’ 맷음말

第7章 五世紀의 倭國王의 稱號에 대하여 -특히 “持節·都督諸軍事”를 둘러싸고-

머리말 1.珍의 自稱과 授爵의 關係 2.濟의 加號와 進號 問題 3.‘使持節·都督’에 대하여 맷음말

第8章 卑彌呼 -그 遣使와 授爵을 둘러싸고-

第9章 倭의 五王 -그 遣使와 授爵를 둘러싸고-

머리말 1.讚 2.珍 3.濟 4.興 5.武 맷음말

第10章 倭の五王の外交 -司馬曹達を中心니-

머리말 1.諸國의 使節團 編成 2.百濟의 外交使節 3.百濟外交와 府官制 4.長官으로서의 司馬 맷음말

付 篇 第1. 摄津職에 대하여 第2. 五世紀의 日本과 한국 第3. 中國史書對倭關係記事의 檢討 -藤間生大 『倭の五王』을 통하여- 第4. 三世紀의 日本과 한국 -藤間生大 『埋もれた金印 第二版』을 통하여- 第5. 五世紀의 倭國王 -그 稱號를 중심으로- 第6. 倭國王의 國際的 地位 -五世紀의 南朝를 중심으로- 第7. 倭의 五王 -中國正史外國傳의 研究에 서 보다-

맺음말

[1979年]

- 坂元義種 <倭の五王の時代 -東アジアと古代日本 -付 『宋書』 倭國傳読み下し文>
(『歴史と人物』 89-8) 1月
倭國의 登場 讀의 國際的 地位 珍·濟·興의 國際的 地位 倭國의 地位 向上 倭國의 退場 과연 獲加多支鹵는 武인가
- 坂元義種 <倭王武とその時代 -武の上表文を中心として-> (『歴史公論』 5-5) 5月
머리말 1.倭王武의 系譜 2.祖禿, 領域을 擴大하다 3.倭王, 累葉朝宗하다 4.武의 外交 目的 맺음말 -高句麗 德興里古墳 墓誌와 관련하여

[1980年]

- 坂元義種 <倭の五王の爵號問題 -武の自稱稱號を中心に-> (上田正昭 외 『ゼミナール 日本古代史』 下, 光文社) 1月
머리말 倭國王武, 封冊되다 冊封體制에 參加 自稱대로 稱號를 인정받지 못하다 開府儀同三司 都督百濟諸軍事 맺음말에 대신하여 -中國南朝와의 訣別-
- 坂元義種 <『宋書』倭國傳史料的性格 -とくに武の上表文をめぐって-> (上田正昭 외 『ゼミナール 日本古代史』 下, 光文社) 1月
머리말 『宋書』 夷蠻傳의 構成 『宋書』 夷蠻傳의 內容 上表文의 作成者は 누구인가 西南夷 諸國王의 上表文의 首尾 西南夷 諸國王의 上表文의 比較 西南夷 諸國王의 上表文의 構成 武의 上表文 맺음말
- 吉田 修 『倭の五王と繼體天皇』 (講談社) 6月
- 井上光貞 <雄略朝における王權と東アジア -五世紀末葉・六世紀前半における倭國とその王權 第一部->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4』 學生社. 뒤에 『井上光貞著作集』 5) 9月
머리말 1.雄略朝의 成立과 宋書의 記載 2.二王 이야기의 考察 3.倭王武 上表文과 稲荷山 鐵劍銘文 4.雄略紀의 倭와 新羅의 關係 5.倭王權과 吉備의 關係
- 横山貞裕 <倭の五王について -宋書に記載された倭の六王-> (『國士館大學 教養論集』 9號) 9月
1.머리말 2.宋書 編集의 經緯와 그 特異性 3.宋皇帝8代·倭王6代의 60年間 4.宋倭兩國 間의 冊封體制 5.倭王武의 上表文 6.記紀의 年紀의 연장에 관하여 7.結語
- 横山貞裕 <倭王武の上表文について> (『日本歴史』 389號) 10月

[1981年]

- 笠井倭人 <五王研究のあゆみ> (『季刊 邪馬台國』 7號) 1月

1.江戸時代까지의 행보 2.明治期의 행보 3.大正·昭和 初期의 행보 4.戰後의 행보(一) 5.戰後의 행보(二)

○安本美典 <倭王讚=應神天皇說の發展> (《季刊 邪馬台國》 7號) 1月

青白의 빛줄기 前田氏의 生涯 倭의 五王 關係記事 最初의 研究者, 松下見林 那珂通世氏의 研究 第二次大戰以前의 研究 前田直典氏의 新說 倭의 五王 考察의 단서 前田直典說의 意味 古代天皇의 平均在位年數는 約十年 倭王武의 年代는 雄略天皇의 年代와 일치한다 倭王讚의 年代는 應神天皇의 年代와 일치한다 倭王讚의 年代는 仁德, 履中天皇의 年代와 차이가 난다 倭王讚='應神天皇說'을 支持하는 근거 應神以下 七帝의 活躍 時期 倭王은 中國으로부터 稱號를 받고 있다 倭의 五王의 系譜 二人의 武王說 九州王朝說에 대하여

○坂元義種 <倭の五王の基礎的考察 -大明四年の倭國王を中心とする-> (《季刊 邪馬台國》 7號) 1月

머리말 1.《宋書》 <本紀>와 <倭國傳> 2.戰前의 研究 3.새로운 研究의 개막 4.末松保和氏의 史料 整理와 그 影響 5.志水正司 論文의 登場 -‘濟’說의 復權 -6.‘興’說의 通說化 7.井上光貞說과 그 問題點 8.‘興’說이 갖는 問題點 맷음말

○藤間生大 <鐵劍銘文と倭王武> (《季刊 邪馬台國》 7號) 1月

I. ‘原帝紀’ II. ‘오와케노오미’는 어디 사람인가 III.白髮武와 幼武 IV.東아시아 諸國에 서의 系譜 만들기

○いき一郎 <倭國の五王と扶桑國の時代> (《季刊 邪馬台國》 7號) 1月

五王時代의 常識에서 1.倭國의 五王 2.五王은 어디에 있었는가 3.關西, 北陸, 東國의 情報 4.倭韓의 中小古墳地帶 5.對中國關係 6.倭國과 扶桑國 五王의 뒤에

○筑紫 豊 <倭の五王’の初代 應神天皇にまつわる話> (《季刊 邪馬台國》 7號) 1月

머리말 胎中天皇傳說 任那興亡史를 읽다 大和朝廷의 主軸 半島, 大陸과의 文化交流 應神朝는 外交 交渉의 시작

○寺田勝年 <宋書本紀·列傳と倭の六王說> (《季刊 邪馬台國》 7號) 1月

序論 本論 -宋書·南齊書·梁書 宋書 本紀와 宋書 列傳 (宋書의 要約記事) 宋書 記事의 性格 倭王의 遣使와 隨[?]의 任官 隋의 遣使와 倭의 六王說 宋書의 記事와 沈約의 잘못 倭의 六王說과 人名·系譜 倭王의 崩年과 天皇의 崩年干支 結論

○湯淺幸孫 <倭國王武の上表文について> (《史林》 64卷1號) 1月

○坂元義種 <南北朝諸文獻に見える朝鮮三國と倭國 -とくに外交記事を中心に->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3. 學生社) 3月

머리말 1.南北朝諸文獻의 外交記事 -한반도 三國과 倭國- 2.外交記事의 脫漏에 대하여 -특히 朝貢記事를 중심으로- 3.한반도 三國 및 倭國과 中國 南北朝의 交渉 -특히 朝貢

을 중심으로- 맷음말

- 坂元義種『倭の五王 -空白の五世紀』(教育社) 9月

序章 四~五世紀의 東아시아 第1章 東晉交涉의 수수께끼(四一三年의 朝貢은 讚의 것인가 『義熙起居注』를 둘러싼 問題 高句麗의 '倭國' 朝貢 謀略) 第2章 倭國王 讚의 外交(倭五王의 最初의 使者는 언제인가 倭五王의 最初의 任官 外交使節인 司馬曹達 430년의 '倭國王'에 대하여) 第3章 倭國王의 稱號(倭國王 珍의 朝貢과 自稱稱號 '使持節' · '都督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 第4章 對中外交의 限界(倭國王의 國際的 地位 珍의 讚의 稱號 繼承 倭國王이 宋朝로부터 수여받은 것 倭國王의 任官 要請과 高句麗)

[1982年]

- 川口勝康 <倭の五王を再検討する -五王の比定と遣使の意味について-> (『別冊歴史讀本』新人物往来社) 4月

『宋書』が 根本史料이다 <記紀>에 의거한 比定을 批判한다 <記紀> 系譜의 構造란? 遣使의 事實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는가

- 井上秀雄 <史料より見た倭の五王> (『東アジアの古代文化』32号) 7月

1.中國正史의 史料價值 2.『史記』『漢書』의 東夷觀 3.『三國志』의 東夷觀 4.『後漢書』의 東夷觀 5.『宋書』의 東夷記事 6.國書記事의 史料的價值 7.六國諸軍事와 安東將軍 8.맺으면서

- 本位田菊士 <三輪王權の性格> (『東アジアの古代文化』32号) 7月

- 關 和彥 <宋書倭國傳の再検討> (『東アジアの古代文化』32号) 7月

1.머리말 2.讚의 再檢討 3.珍과 濟에 대하여 4.맺으면서

- 奥田 尚 <“倭の五王”的“倭”について> (『追手門學院大學文學部紀要』16号) 12月

[1983年]

- 稻田晃 <五世紀の倭王たちの實年代について(前篇)> (『宇都宮大學教育學部紀要』33-1) 6月

序章 이 논문의 내용의 개요(1.記紀가 말하는 倭王의 系譜와 年代는 信用할 수 없는 것 2.論文의 논의의 前半 -書紀 曆日과 中國曆의 符合 事實을 이용하여 5世紀 前半의 倭王의 實年代를 추출한 論考 3.論文의 논의의 後半 -中國史書를 材料로 하여 5世紀 後半에 實際 王이었던 사람과 그 實年代를 추출한 論考 4.5世紀의 倭王들의 實年代와 그들이 傳承한 古墳의 出土 墓輪의 相對年代와 比較) 第1章 4世紀, 5世紀의 中國曆(1.古代中國의 太陰太陽曆 2.4,5世紀의 中國曆 … (下略))

- 原島禮二 <倭の五王の在位年代と名> (藤澤一夫先生古稀記念 『古文化論叢』古代を

考る會) 7月

- 1.《宋書》本紀와 倭國傳 2.《宋書》夷蠻傳과 本紀 3.《宋書》本紀와 鮮卑·氐胡傳 4.倭五王의 在位年代 5.倭五王의 이름

○大山誠一 <五世紀の外交-朝鮮關係を中心として-> (《東アジアの古代文化》 37. 뒤에 『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 吉川弘文館・1999年) 9月

- 머리말 1.五世紀 初頭 以前의 大和朝廷의 外交 2.五世紀 中葉의 外交 -倭五王의 時代- 3.五世紀 後半의 外交

[1984年] 姜仁求 『三國時代墳丘墓研究』 刊行

○稻田 晃 <五世紀の倭王たちの實年代について(繼篇)> (《宇都宮大學教育學部紀要》 35-1) 12月

○稻田 晃 <五世紀の倭王たちの實年代について(後篇)> (《宇都宮大學教育學部紀要》 35-1) 12月

[1985年]

○鈴木英夫 <倭の五王と高句麗-高句麗征討計畫の再検討のために-> (《韓國文化》 6月號) 6月

- 머리말 倭五王의 研究史 軍權·‘高句麗征討計畫’을 둘러싼 諸說 福泉洞古墳群과 <中原高句麗碑>

○鈴木靖民 <倭の五王の外交と内政-府官制的秩序の形成-> (林陸朗還暦記念會 『日本古代の政治と制度』 繕群書類從完成會) 11月

- 머리말 1.倭의 對宋外交와 한국 2.倭의 國際關係와 國內支配 3.武(雄略)의 時代의 歷史的位置 맷음말

○内田 清 <百濟·倭上表文の原典について> (《古代文化を考える》 13號) 12月
※朴鍾大<倭の五王の上表文と韓日古代史の問題點-南朝の對倭冊封政策を中心に-> (《慶南史學》 2)

序言 南朝와 對倭冊封政策 南朝와 麗濟의 外交政策 南朝의 冊封政策 分析 結言

[1986年]

○稻田 晃 <五世紀の倭王たちの實年代について(續編前篇)> (《宇都宮大學教育學部紀要》 36-1) 2月

○栗原 薫 <書紀(倭五王時代)の史實性 井上光貞氏説批判(大化前代の紀年VI)> (《北海道教育大學紀要》 第一部B社會科學編36-2) 3月

- 序 1.辛酉起點半年一年紀年에 대하여 2.辛酉起點半年一年干支의 생성 3.《書紀》(倭五王時代)의 史實性 4.《書紀》의 史實性
- 坂元義種 <大明四年の倭國王> (山田英雄先生退官記念會編《政治社會史論叢》近藤出版社) 3月
머리말 1.《宋書》의 <本紀>와 <倭國傳> 2.戰前의 研究 3.새로운 研究의 개막 4.末松保和氏의 史料整理와 그 影響 5.志水正司 論文의 登場 -‘濟’說의 復權- 6.‘興’說의 通說化 7.井上光貞說과 그 問題點 8.‘興’說이 갖는 問題點 맷음말
- 湯淺幸孫 <倭國王武の上表文について> (《史林》64卷1號) 1月
- 笠井倭人 <倭王武の上表文> (土田直鎮 외 《海外視點 日本の歴史》 2, ぎょうせい. 뒤에 《古代の日朝關係と日本書紀》 吉川弘文館 · 2000年) 4月
武王 上表 高句麗 無道 武王 願望의 爵號 倭五王과 宋朝 五王 중의 武王 武王에 대한 除正 爵號 倭五王의 國際的 位置 武王과 雄略天皇

[1987年]

- 稻田 晃 <五世紀の倭王たちの實年代について(續編後篇)> (《宇都宮大學教育學部紀要》 37-1) 2月
○鈴木英夫 <高句麗南下と對宋外交 -倭の五王-> (《歴史讀本 臨時增刊》 32-24) 12月
한반도의 動向 高句麗의 남하와 新羅·加耶 倭王武 上表文 倭王의 爵號와 ‘對高句麗戰’
○稻田 晃 《暦と倭五王の年代》 (私家版)?
※沈 仁安 <倭國王武の上表文考> (《世界歴史》 6期, 뒤에 《中國からみた日本の古代 -新しい古代史像を探る-》 ミネルヴァ書房 · 2003年11月))
1.《宋書》 倭國傳과 《冊府元龜》의 上表文 2.倭國 統一의 時期 3.‘毛人’ ‘衆夷’의 解釋
4.倭國王 武의 上表文의 原因

[1988年]

- 川本芳昭 <倭の五王による劉宋遣使の開始とその終焉 -海上通行ルートからみた一試見-> (《東方學》 76輯) 7月
머리말 1.倭五王 遣使의 開始와 海上·內陸河川 루트 2.北魏에 의한 北燕討伐 이후의 東아시아 政治史의 推移 3.東아시아의 政治 狀況과 倭五王 遣使의 終焉 結語
○鈴木靖民 <倭の五王 -雄略朝前史-> (佐伯有清編 《古代を考える 雄略天皇とその時代》 吉川弘文館) 2月
1.倭王의 外交와 한국(宋과의) 外交 東아시아의 情勢와의 連動 稱號의 要請 한반도의 情勢 高句麗의 外交戰術 百濟와倭의 連携 百濟·高句麗와의 關係倭의 한반도 情勢에

- 關與) 2. 國際關係와 國內支配(中國·高句麗의 府官 中國官制의 摄取 百濟에서의 官號 百濟王에 의한 官爵授與 中央의 王族과 豪族層 倭의 府官制 繼受 周邊諸國의 府官 假授制의 成立 ‘軍郡’의 意義 政治組織의 模索 府官制와 國家形成으로의 길)
- 鈴木靖民 <武(雄略)の王權と東アジア> (佐伯有清編 『古代を考える 雄略天皇とその時代』 吉川弘文館) 2月
- 1.倭의 五王과 外交策(五王과 記紀의 天皇 『宋書』의 史料的 價值 두 개의 王統 外交策의 特徵 記紀와의 符合 外交策의 連續性) 2.武(雄略)의 時代의 歷史의 位置(王權과 地方의 首長 同盟과 連合 貢納과 奉仕 王權의 軍事的 性格 高句麗王에 대한 意識 <雄略紀> 新羅關係記事 토모=部制의 原型 內廷의 토모의 編成 理由 枊刀人과 典曹人) 3.武(雄略)王權과 한반도 三國의 體制(武 王權의 畫期性 ‘中國의天下’에서 ‘倭의 天下’로 한반도 三國의 體制와倭의 體制 가바네의 稱號의 成立)
- 坂元義種 <倭の五王> (武光誠 외 『古代天皇のすべて』 新人物往来社) 4月
- 中國史書와倭의 五王 『梁職貢圖』의倭國使者와 『梁職貢圖』의 百濟使者 梁朝와倭國의 交渉 <魏志>倭人傳에 의거한倭國使圖 宋朝의 創建과 諸國王任官倭國王의誕生珍의 自稱과倭隋 등의 任官濟의 稱號와 ‘軍郡’二十三人 對中交涉의 終焉倭五王關係年表 『宋書』倭國傳 훈독
- 湯淺幸孫 <倭の五王と日本國王 -書紀と中國史料> (『日本歴史』 483號) 8月
- ※ 金錫亨 『初期韓日關係史』 下·第二章(社會科學出版社)

[1989年]

- 山尾幸久 『古代の日朝關係』 (搞書房) 4月
- 第3章 3節 『宋書』에 보는 日韓關係(‘倭五王’의 性格 ‘倭五王’의 官號 倭王의 ‘都督諸軍事’號 倭王武의 上表文)

[1990年]

- 李永植 <五世紀倭王の稱號の解釋をめぐる一視角 -韓南部諸國名の意味を中心に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7集. 뒤에 『伽耶諸國と任那日本府』 吉川弘文館 · 1993年) 3月
- 머리말 1.中國 南北朝時代의 冊封 2.百濟王 · 臣下의 稱號에 보이는 中國地名 3.倭王의 稱號에 보이는 韓南部諸國名 맷음말
- 吉村武彦 <倭の五王とは誰か> (吉村武彦 외 『争點 日本の歴史』 2, 新人物往来社) 12月
- 머리말 五世紀에 두 개의 大王家가 존재하였는가(『宋書』와 『梁書』 두 개의 大王說倭의 五王은同一父系氏族倭의 五王은 누구인가(記紀의 系譜 稲荷山古墳出土鐵劍銘

今後の 比定法 倭王의 比定) 雄略朝의 支配機構(府官制 人制에서 部民制로)

※金 錫亨 <初期韓日關係小史> (社會科學出版社)

※沈 仁安 <倭の五王の遣使除授考> (『日本研究』第4期, 뒤에 『中國からみた日本の古代－新しい古代史像を探る－』 ミネルヴァ書房・2003年)

1.倭讃遣使의 問題에 대하여 2.『宋書』 本紀의 遣使記事의 問題에 대하여 3.除授와 그意義

[1992年]

○川本芳昭 <四, 五世紀の中國と古代朝鮮・日本との關係について> (『佐賀大學教養部研究紀要』 24號) 3月(英文)

Introduction I.The dispatch of delegates to China by Wa no Goou II. Nei-chao and Pu III.Xin-ren and Jiu-ren IV.Refomation of Taika and Refomation by Xiao-wen-ti

○川本芳昭 <四, 五世紀の中國と朝鮮・日本> (鈴木靖民 외 『新版 古代の日本2 アジアからみた古代日本』 角川書店) 5月

倭五王의 中國遣使(倭五王 時代의 바다의 길 北魏의 擴大 기타 要因) 内朝制度(古代日本の‘氏族制’와 北魏의 氏族制 内朝制度 人制에 대하여 八部·五部·六部(北魏의 部族制의 傳統 高句麗의 경우 百濟의 경우 新羅의 경우) 新人과 舊人(新人과 舊人 高句麗·百濟·新羅의 경우) 族制의 秩序의 變遷(古代日本の 경우 北魏의 경우와 비교 유사성이 생긴 원인)

○川本芳昭 <倭國の四一三年東晉遣使> (鈴木靖民 외 『新版 古代の日本2 アジアからみた古代日本』 角川書店) 5月

※(中文) 王健群 <任那日本府と倭の五王> (『伽倻文化』 5)

1.歷史上 ‘任那日本府’의 存在 여부 2.倭五王에 대한 宋의 奉爵에 관한 解釋

[1993年]

○塙澤裕仁 <宋書にみる倭隋の將軍號> (『法政大學大學院紀要』 31號) 10月

머리말 1.方位將軍號에 대하여(定員 規定의 意味 都督諸軍事·刺史와 方位將軍號의 關係) 2.元嘉期에 확인되는 將軍號 重複帶位 사례 3.重複 事例에서 본 宋 職官制 4.倭隋의 除正에 관하여 結語

[1994年]

○坂元義種 <‘倭の五王’の研究> (『歴史讀本』 39-14) 7月

머리말 1.倭五王의 遣使와 在位 2.倭五王의 國際의인 地位 맷음말에 대신하여 –倭國王

의 稱號의 意味와 倭國使

※洪元卓 『百濟と大和日本の起源』(百濟インターナショナル)

※延敏洙 <倭の五王時代の對外關係 -對宋外交と韓半島問題-> (『金甲周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뒤에 『古代韓日關係史』 第3章, 혜안)

1.序言 2.對宋外交의 主體로서의 倭 五王 -그 實體와 관련하여- 3.宋外交의 開始와 展開4.韓半島 諸國에 대한 軍號 請求問題 5.結語

[1995年]

○高寛敏 <倭の五王と朝鮮> (『東アジア研究』 8號) 3月

머리말 1.讚의 通宋 開始 2.珍·濟의 自稱 稱號 3.武의 上表文 맷음말

○福井佳夫 <倭國王武“遣使上表”について(上)> (『中京國文學』 14號) 3月

倭國王武“遣使上表”札記

○西條 勉 <倭の五王と古代王權の系譜學 -天皇の系譜と物語について> (『國士館大學文學部 人文學會紀要』 28號) 10月

1.머리말 2.比定論의 原點 3.매장된 大王 3.(?)舊系譜의 復元 4.一系化의 方法 5.맺음말

[1996年]

○内田清 <百濟·倭の上表文の原典について> (『東アジアの古代文化』 86號) 2月

1.上表文의 루트를 찾아서 2.百濟 上表文과 類同語句 3.倭 上表文과 類同語句 4.『原·晉書』의 成立 5.類同語句의 寶庫 『晉書』 6.上表文의 起草者 7.맺음말 8.追記

○鈴木英夫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第Ⅱ編 五世紀後半の倭國と朝鮮諸國(青木書店) 2月

第3章 倭 五王時代의 內外의 위기와 渡來系 集團의 進出 -‘高句麗征討計畫’의 意義- 第4章 倭王武 上表文의 基礎的 考察 第5章 倭王武의 對宋外交의 一側面 -昇明元年에 遣使한 倭王을 둘러싸고- 第6章 倭王武와 稱號 自稱의 時代 -武의 王權과 外交의 特質-

○福井佳夫 <倭國王武“遣使上表”について(下)> (『中京國文學』 15號) 3月

倭國王武“遣使上表”考察

○川口勝康 <倭王濟=允恭天皇> (『歴史と旅』 4月號) 4月

倭五王의 比定 前田論文의 고증 記紀의 王統譜를 다시 본다 履中系와 允恭系의 대립 安康과 雄略

○前之園亮一 <允恭天皇の高句麗遠征と茅渟行幸傳承> (『東アジアの古代文化』 87號) 5月

○内田 清 <百濟·倭の上表文の原典について(續)> (『東アジアの古代文化』 87號) 5月

- 菊木美行 <倭の五王に関する一考察 - 南朝冊封体制における‘王’と國王をめぐって-> (ヒストリア153号) 12月

머리말 1. 南朝諸史에 보이는 ‘王’과 ‘國王’ (《宋書》 《南齊書》 《梁書》 《陳書》 《南史》) 2. 芮芮과 扶南의 稱號에 대하여 (扶南, 芮芮(蠕蠕)) 3. 冊封體制下의 ‘王’과 ‘國王’ 國 (‘王’國, ‘國王’國, 特殊性을 갖는 國 - 倭와 扶南, 芮芮) 4. ‘倭國王’에서 ‘倭王’으로 맷음말

- 菊木美行 <元嘉七年遣使の‘倭國王’をめぐって> (《史料》 144号)

[1997年]

- 坂元義種 <東アジアと倭の五王> (《別冊 歴史讀本》 22-6) 2月

宋朝의 수립과 諸國王의 進號 高句麗와 百濟의 江南王朝 交渉 倭國의 對中交渉 空白의 背景 413년의 수수께끼의 倭國使 倭國=遠夷來貢의 意味 자궁심 강한 倭國王 倭讚 倭國王의 稱號가 의미하는 것

[1998年]

- 高 寛敏 <五世紀、倭國の王統譜とその物語> (《東アジア研究》 21号)

- 黒 弘道 <允恭朝に關する考察> (《學習院大學文學部年報》 44号) 3月

머리말 1. 允恭과 인연이 있는 땅 葛城 2. 特異한 卽位事情 3. 盟神探湯 - 氏姓의 秩序를 바르게 하는 것인가? - 4. 允恭朝와 氏姓制 5. 允恭朝의 政情과 外交 6. 《宋書》에서 본 允恭朝 (1. 安東將軍과 平西將軍 2. 濟의 高句麗征討計劃) 맷음말

- 吉村武彦 <倭の五王と‘大王’> (《古代天皇の誕生》 角川書店) 7月

倭의 五王(東晉에 入貢 五人の 倭國王과 血緣關係 ‘두 개의 大王家’論 倭國王의 一族은 倭姓) 倭國王의 冊封과 그 比定(宋과 倭國의 冊封關係 對外의 인 冊封關係의 意圖 倭國內에 대한 意圖 倭五王의 比定方法 個人名에서 본 比定法) 大和王權의 國王 稱號(倭國王과 ‘大王’ 金石文에 보이는 ‘王’ ‘大王’ 文字 ‘王’과 ‘大王’)

- 川口勝康 <倭の五王 ‘二大王統’ 論争> (《歴史讀本》 10月号) 10月

二大王統論의 提出 反論과 論點의 检증 二系를 統合하는 二侯王

[1999年]

- ※ 李 在碩 <日本古代雄略朝의 歷史像> (《日本歷史研究》)

[2000年]

- ※ 崔 在錫 <中國史書에 보이는 五世紀의 ‘倭의 五王’記事에 대하여> (《古代韓國と日本列島》 一志社)

- I.머리말 II.藤間生大의 見解 批判 III.坂元義種의 見解 批判 IV.鈴木英夫의 見解 批判
V.倭 五王 記事의 檢討 VI.맺음말

[2001年]

- 川崎 晃 <倭王權と五世紀の東アジア -倭王武・百濟王慶上表文と金石文-> (黛弘道編
『古代國家の政治と外交』吉川弘文館) 1月
머리말 1.倭王武의 遣使를 둘러싸고 2.百濟王 餘慶의 上表文 3.倭王武의 上表文과 百濟
王 餘慶의 上表文 4.王과 大王(太王) 맺음말
○前之園亮一 <倭の五王の通宋の開始と終焉について -辛酉革命説・戊午革運説から見た
場合-> (黛弘道編『古代國家の政治と外交』吉川弘文館) 1月
머리말 1.四一三年 東晉에의 遣使에 대하여 2.四二一年 宋에의 遣使와 辛酉革命説 3.四
七八年 宋에의 遣使와 戊午革運説

[2002年]

- 前之園亮一 <倭の五王・司馬曹達・百濟府官の單名について> (『紀要(共立女子短期大
學文科)』45號) 1月
머리말 1.倭・百濟・高句麗의 府官의 單名과 中國使節의 複名 2.中國의 單名 流行에서
複名 流行으로 3.中國의 單名・複名의 比較 4.倭의 五王의 單名과 中國의 單名・複名
맺음말
○鈴木英夫 <倭の五王と高句麗 -韓半島に關わる倭王の稱號と對高句麗戰爭計劃-> 『高句
麗研究』 14輯) 12月
I.머리말 II.倭의 五王과 야마토 王權의 王 III.武 上表文에서 본 倭國과 高句麗, 韓半
島 IV. ‘韓半島南部軍事’號의 意味 V.『日本書紀』 雄略紀의 史料批判 VI.結語

[2003年]

- 坂元義種 <『宋書』に描かれた‘倭國’> (別冊歴史讀本 『新視點 古代倭國の研究』 新
人物往來社) 5月
『宋書』의 版本 등 <倭國傳> 冒頭의 地理記事 ‘親魏倭王’에서 ‘倭國王’으로 五世紀 ‘倭
國王’의 登場時期 ‘倭讚’의 外交의 特異性 倭國王의 稱號
○田中俊明 <倭の五王と朝鮮> (姜德相先生古希・退職記念 『日朝關係史論集』 新幹社)
5月
머리말 1.‘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號에 대하여 2.都督加羅諸軍事의 意
味 3.武의 上表文을 둘러싼 問題 맺음말

- 河内春人 <倭王武の上表文と文字表記> (《國史學》 181號) 11月
머리말 1.上表文의 作成者 2.上表文 奉呈의 背景 3.東아시아의 人名表記 맷음말에 대신
하여 -武와 와카다케루

[筆者名索引] (같은 해에 複數 있는 경우에는 * 를 붙였다)

- 李永植(1990)
- いき一郎(1981)
- 池田 溫(1977)
- 稻田 晃(1983 · 1984 · 1986 · 1987 *)
- 井上秀雄(1982)
- 井上光貞(1980)
- 莉木美行(1996 *)
- 内田 清(1985 · 1996 *)
- 大山誠一(1983)
- 笠井倭人(1973 · 1981 · 1986)
- 川口勝康(1982 · 1996 · 1998)
- 川崎 晃(2001)
- 川本芳昭(1988 · 1992 *)
- 栗原 薫(1986)
- 高寛敏(1995 · 1998)
- 河内春人(2003)
- 西條 勉(1995)
- 佐伯有清(1975)
- 坂元義種(1976 · 1977 · 1978 * · 1979 * · 1980 * · 1981 * · 1986 · 1988 · 1994 · 1997 · 2
003)
- 塩澤裕仁(1993)
- 鈴木英夫(1985 · 1987 · 1996 · 2002)
- 鈴木靖民(1978 · 1985 · 1988 *)
- 關 和彥(1982)
- 武田幸男(1975)
- 田中俊明(2003)
- 筑紫 豊(1981)
- 寺田勝年(1981)
- 藤間生大(1981)
- 原島禮二(1983)
- 福井佳夫(1995 · 1996)
- 本位田菊士(1982)

○前之園亮一(1996 · 2001 · 2002)

○黛 弘道(1998)

○湊 哲夫(1973)

○安本美典(1981)

○山尾幸久(1989)

○横山貞裕(1980 *)

○湯淺幸孫(1981 · 1986 · 1988)

○吉田 修(1980)

○吉村武彥(1990 · 1998)

※金錫亭(1988 · 1990)

※洪元卓(1994)

※延敏洙(1994)

※李在碩(1999)

※崔在錫(2000)

※朴鍾大(1985)

※(中)王健群(1992)

※沈仁安(1987 · 1990)